정답과 해설

고등학교

공통국어1

강호영 외

1. 소통으로 커지는 세상

01 방문객

문제로 확인 본책 010~011쪽

01 ⑤ 02 ⑤ 03 ④ 04 ①

01 색채 이미지는 각각의 색을 표현하거나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가리키는데, 이 시에서 색채를 나타내는 시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또 이 시는 평이한 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생각을 담담하게 진술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와'의 반복, '오기 때문이다'의 반복 등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② 이 시의 화자는 평서형 종결 어미인 '-다'를 사용하여 문장을 종결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담담하게 진술하고 있다.
③ 자연물인 '바람'이 마치 사람처럼 대상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④ 사람이 온다는 것의 의미를 그의 과거 - 현재 - 미래 - 일생이 온다고 하며 점차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02 이 시에서 '바람'은 부서지기 쉬운 방문객의 마음을 살피고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화자가 타인을 대하는 자세를 배우고자 하는 대상이다.

03 독자 맥락은 독자의 상황과 연관하여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다. ④는 독자가 고등학생이 되고 반 친구들을 처음 만나게 된 상황과 연관지어 독자 맥락에서 감상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현재 세태와 관련지은 감상으로 사회·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한 감상에 해당한다.
② 작가의 다른 작품과 연관지어 감상하고 있으므로 작가 맥락을 바탕으로 한 감상이다.
③ 작가의 작품 경향과 연관지어 감상하고 있으므로 작가 맥락을 바탕으로 한 감상이다.
⑤ 작품의 내용 요소를 바탕으로 작품에서 전달하려는 바를 파악한 것이다.

04 이 시의 화자는 사람과 만나는 일을 방문객을 맞이하는 일로 표현하고 있다. 이때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지나가는 순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을 맞이하는 중대한 일로 보고 있다.

꼭 필요한 쏙 쏙 단원 평가 문제 본책 012~015쪽

01 ④ 02 어마어마한 일 03 ⑤ 04 ③ 05 ① 06 ⑤ 07 ① 08 ③ 09 ④ 10 ⑤ 11 바람 12 ② 13 ⑤ 14 ① 15 ③ 16 ②

01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작품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도 있고,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한 작품의 의미를 발견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작품에 대한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는 태도는 올바른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02 서술형 이 시는 사람이 오는 일을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표현하며,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만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만남의 중요성을 말하는 시구를 찾아 썼다.	☐

03 이 시는 타인과의 만남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깨닫고 인연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이 시에서는 만남을 대하는 자세로 '환대'의 자세만 다루고 있다. 이와 반대되는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이 시에서는 사람이 오는 것, 즉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을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표현하며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③ 화자는 '바람'이 상처받은 '마음'을 더듬듯, 자신 역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④ 화자는 사람과의 만남을 '방문객'으로 표현할 뿐, 새로운 장소로 자신이 찾아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자 하고 있지는 않다.

04 수미상관은 시의 처음과 끝에 같은 구절을 반복하여 배치하는 기법으로 이 시는 수미상관법이 쓰였다고 볼 수 없다.

05 '바람'은 상처받은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존재로, 화자는 '바람'을 흉내 내며 자신도 타인을 환대하고자 한다.

06 (가)는 인간관계의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고 싶은 소망을, (나)는 만남의 중요성과 타인을 만날 때의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가)와 (나)는 자연물을 그린다기보다는 자연물을 사람처럼 비유하거나 자연물을 통해 인간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가)는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한 소망을, (나)는 사람과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둘 다 갈등이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
③ (나)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인간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가)와 (나)에서 자연의 순수한 모습이 드러나는 부분은 찾을 수 없으며, 두 작품 모두 자연과 인간의 비교가 아닌 인간사의 모습만 다루고 있다.

07 (가)의 '섬'은 '소통'의 의미로 보느냐 '단절'의 의미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의 소통이나 단절이지 화자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공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 오답 풀이 | ②, ⑤ '섬'을 사람들로부터 벗어난 공간으로 바라보면 사람들 사이에 섬이 존재함으로써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섬이라는 공간이 생기게 된다. 이럴 경우 화자의 소망은 사람들에게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미로도 읽힐 수 있다.
③, ④ '섬'을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로 이해한다면, 화자의 소망은 현대 사회의 인간 소외 현상을 극복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여 인간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

08 문학 작품에는 다양한 맥락이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며 감상할 때 이해의 폭이 넓어짐을 알 수 있다. 작품이 창작될 당시는 물론 현재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어떻게 소통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09 ㉣은 '바람'처럼 타인의 마음을 섬세하고 부드럽게 이해하려는 화자의 노력을 드러낸다.

10 '일이다', '오기 때문이다', '것이다'와 같은 평서형으로 문장을 종결하여 화자의 깨달음을 담담한 독백조로 서술하고 있다.

11 서술형 '바람'은 마음을 더듬어 볼 수 있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는 상처받기 쉬운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시어 '바람'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찾아 썼다.	☐

12 <보기>는 윤동주의 「자화상」을 독자 맥락에서 감상한 것이다. ②에서는 자연물인 '바람'을 마치 사람처럼 표현한 의미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데, 이처럼 작품 자체의 가치나 아름다움을 논하는 것은 독자 맥락과는 거리가 멀다.

13 이 시에서 내적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시의 화자는 갈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환대'라는 단어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방문객'은 '어떤 사람이나 장소를 찾아오는 손님'을 뜻한다. 이 시는 타인과의 만남을 '방문객'을 맞이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제목에 대한 질문을 만들어 볼 수 있다.
② 시인이 사람과의 만남을 '방문객'으로 표현했듯, 만남을 또 다른 시적 발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질문을 만들어 볼 수 있다.
③ 시의 함축적 의미와 운율, 시의 표현 방법 등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질문을 만들어 볼 수 있다.
④ 여러 자연물 중에서 타인을 위로하는 존재로 '바람'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질문을 만들어 볼 수 있다.

14 사람과 만나는 일을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만남 자체가 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삶과 앞으로 살아갈 삶, 즉 일생 전체를 마주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15 이 글은 가짜 눈이 내리는 기후 이변과 재난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으며 서술자의 내적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기후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작가가 전하려는 주제 의식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16 <보기>에서 작가는 이상 징후가 몰려오는 속도를 낮추도록 노력은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본 것은 작가의 의도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글 속의 '가짜 폭설'은 허구적 상황이지만, 이와 비슷한 환경적 문제는 현실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독자는 그 점에서 공감할 수 있다
③ 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예기치 않은 재난은 현실에서 경험한 문제이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격리나 고립된 상황은 글의 일부와 공통점을 지닌다.
④ <보기>에서도 자연과 기후 변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생태적 관점에서 이 작품을 읽는 것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⑤ '가짜 눈'은 허구적 소재로 사용되었으며, 이처럼 문학 작품에서는 허구적 이야기를 통해 독자에게 현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달한다.

고난도 업 모단원 심화 문제

본책 016~017쪽

01 ④ 02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03 ④ 04 ② 05 ③ 06 ①

01 '필경'은 '끝장에 가서는.'이라는 뜻으로 '결국', '마침내'와 유사한 의미이다. 이는 결과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필연의 의미이지 실제와 반대되는 뜻으로 말하는 반어와는 관련이 없다.

02 서술형 이 시에서는 방문객이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온다고 하고 있다. 결국은 그 사람의 일생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라며 점차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를 하나의 단어로 집약하는 표현이 '일생'임을 이해하고 시구를 찾아 썼다.	☐

03 이 시는 타인과의 만남을 사람이 온다는 것으로 표현하며, 타인과의 만남에 대한 인식과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04 이 시에서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라며 만남의 의미와 소중함을 긍정적인 태도로 이야기하고 있다.

05 이 소설에서는 '가짜 눈'이라는 재난을 극복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이들은 '가짜 눈이 아무리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다고 말하며 끝없이 치우는 이들'이다. 이는 재난 상황 속에서 복구 작업을 계속하는 사람들을 묘사한 것으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 준다.

06 문학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기보다는 허구와 상상의 세계를 통해 현실을 새로운 시각으로 제시하거나 비판적인 사고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 소설에서는 '가짜 눈'이라는 소재를 통해 기후 변화와 재난, 그리고 사회적 혼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02 함께 읽고 매체로 소통하기

문제로 확인 본책 020~021쪽

01 ② 02 ⑤ 03 ⑤

01 이 글에서는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해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나를 안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아는 것이며, 이때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의 겹치는 부분을 찾는 것이 방향성이라고 하였다.

02 나침반의 바늘이 방향을 잡아 멈춘 후에도 미세하게 떨리듯이, 자신의 방향을 결정한 '확신' 단계에 이르게 되더라도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였다.

03 작가는 10대야말로 이것저것 시도해 보더라도 괜찮은 시기로,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이 좋아하면서 동시에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바라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작가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② 이 글에서는 10대에 이것저것 시도해 보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방향을 여러 번 바꾸어도 된다는 이야기와 같다.

③ 10대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주변에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글에서 언급한 내용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작가는 10대에 이것저것 다양한 것을 시도하고 경험하며 자기 자신을 발견하라고 하고 있다.

꼭 필요한 쏙 모단원 평가 문제 본책 022~025쪽

01 ⑤ 02 방황 - 모색 - 두려움 - 확신 03 ⑤ 04 ② 05 ③ 06 ③ 07 ③ 08 ⑤ 09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10 ⑤ 11 ① 12 ④ 13 ② 14 ⑤

01 이 글의 (다)에서는 진로를 찾는 과정에서 방향이 속도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진로를 찾는 과정을 나침반의 단계에 비유하며 속도보다는 방향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02 서술형 이 글에서는 한 사람이 자신의 방향을 찾아가기 위한 네 가지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방황', 두 번째 단계는 '모색', 세 번째는 '두려움', 마지막 단계는 '확신'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자신의 방향을 찾아가기 위해 거치는 네 단계'를 순서대로 썼다.	☐

03 이 글에서 '시계'는 속도를, '나침반'은 방향을 비유하고 있다. 시계를 멈추라는 말은 무작정 빨리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조급해하지 말라는 의미이고, 나침반을 보라는 말은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먼저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04 '창조적 방황'이란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해 마치 나침반이 빙글빙글 돌아가듯 혼란을 겪고 있는 시기를 말한다. 이 글에서 삶의 방향성을 자신이 좋아하고 동시에 잘하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했으므로, 아직 이를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②의 학생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겹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데, 좋아하면서 동시에 잘하는 것을 작가는 '방향성'이라고 부르고 있다. ①의 학생은 이 방향성을 찾은 '확신'의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작가가 10대에 이것저것 시도해 보라고 한 것처럼, ③의 학생은 여러 경험을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확신'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④ 자신의 방향성을 찾고 그 목표를 향해 이미 나아가고 있는 학생이므로 '확신'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⑤ 아직 자신의 방향을 찾지 못했지만 주변의 조언을 얻어 탐색하고자 한다고 했으므로, 이런저런 경험을 해 보면서 자신에 대해 실험하고 '모색'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05 <보기>에서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거나 방향을 잃었을 때 느끼는 불안을 '내면의 나침반이 흔들리는 상태'로 비유하며, 이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한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불안을 극복해야 할 문제가 아닌, 성장과 발전의 중요한 과정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과 <보기>는 모두 방황과 불안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이를 새로운 길을 찾는 과정으로 긍정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보여 준다.

| 오답 풀이 | ① 이 글은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기>는 내면의 불안을 '나침반'에 비유하고 있다.
② 일반적인 통념으로는 방황이나 불안을 부정적인 것, 빠르게 끝내야 할 것으로 인식하지만, 두 글 모두 이를 필연적인 과정이자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④ 이 글과 <보기> 모두 방황이나 불안을 인생에서 길을 찾아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⑤ 이 글과 <보기> 모두 삶의 목표를 찾거나 이루기 위해서는 방황이나 불안을 필연적으로 겪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06 진로나 관심 분야와 관련하여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의미 있고 주제에 적합한 주요 정보를 수집하고 선별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보를 수집하고 선별하는 데 시간을 낭비할 수 있고, 주제와 거리가 먼 정보들을 보느라 본래 집중해야 할 자료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다.

07 선생님의 질문은 '진로나 관심 분야의 글이나 자료를 주제 통합적으로 읽어본 후 얻을 수 있는 점'을 묻고 있다. 친구들의 진로를 무작정 따라하며 진로를 정하는 것보다는, 글을 읽고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나 진로를 더 깊이 이해하거나 능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 답변이다.

08 '예나'와 '민재'는 매체 자료를 제작할 때 그 영향력을 고려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제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매체 자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매체의 영향력을 생각하며 책임감을 지니고 자료를 제작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09 서술형 '예나'와 '민재'는 매체 자료를 제작하며 사회적 소통을 통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예나'의 말에서 찾아 썼다.	☐
대화체를 평서문으로 바꾸어 썼다.	☐

10 '민재'는 매체 자료를 통해 환경에 관심이 적은 사람들에게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탄소 발자국을 줄이자는 캠페인을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에서 중요한 점은 환경에 관심이 적은 사람들에게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이다. 그러나 ㉡의 수용자 특성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기후 위기 대비는 개인 차원에서도 실천'하는 이들로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11 '예나'의 모둠은 지역 문화를 소개하는 매체 자료를 제작할 때, 다양한 내용을 화면, 소리, 자막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 줄 수 있는 매체 자료가 적합하다고 언급했다. 영상 자료는 다양한 시각적, 청각적 요소를 결합하여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로, '예나'의 의도에 가장 부합한다.

| 오답 풀이 | ② 블로그 글은 텍스트 기반의 자료로, 예나가 원한 시청각적 요소가 포함된 생동감 있는 자료와는 거리가 멀다.
③ 인쇄물은 시각적 요소를 활용할 수 있지만, 소리와 자막 등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하는 매체 자료로는 적합하지 않다.
④ 라디오 방송은 소리만을 활용하므로 영상 자료처럼 시각적 요소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예나가 원하는 매체 자료의 유형에 맞지 않는다.
⑤ 카드 뉴스는 간략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유용하지만, 다양한 내용과 시청각적 요소를 포함한 자료 제작의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

12 매체 활용 전략에서 구강 관리에 필요한 최신 기기나 기술 소개는 다루고 있지 않다. 또한 이는 올바른 양치질 정보를 알리려는 목적하고도 거리가 멀다.

13 비용을 정산하는 일은 영상 제작을 모두 마치고 해야 할 일이다. 한편 후속 작업을 위한 예산을 수립하는 일은 이미 매체 자료 제작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일이다.

14 <보기>에서 언급된 학생 인터뷰 영상을 추가하는 것은 동일한 학생 입장인 수용자들이 공감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실제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으면 학생인 수용자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며, 현장감을 더할 수 있다. 이는 수용자의 관심을 끌고,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다.

| 오답 풀이 | ① 설문 조사에 텍스트를 너무 많이 추가하면 혼란을 주거나 수용자의 집중을 방해할 수 있다. <보기>에서는 설문 조사를 시각화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였으므로, 수용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 자료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영상의 길이는 정보의 양과 질에 따라 조절해야 하며, 지나치게 길이를 줄이면 중요한 정보를 누락할 수 있다. 내용의 핵심을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설문 조사 내용을 시각화하면 보는 사람이 더 집중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므로, 설문 조사 내용을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보여 준다는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다.
④ 설문 조사 내용을 시각화하여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는데, 이를 말로 읽어 준다는 내용은 피드백을 잘못 받아들인 것이다.

고난도 업 오단원 심화 문제

본책 026~027쪽

01 ④ 02 ② 03 ⑤ 04 ③ 05 ⑤ 06 ㅁ - ㄱ - ㄷ - ㄴ - ㄹ

01 이 글은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단계라는 추상적인 내용을 '나침반'의 바늘이 방향을 가리키는 것에 비유하여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이 글은 작가의 생각을 설명하고 있는 글로 실험이나 조사와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② 몽테뉴의 말을 일부 인용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성인이나 현인의 유래가 있는 옛날의 일을 기록한 고사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③ 이 글에서는 삶의 방향이나 목표 설정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다루고 있다. 힘들게 싸워서 어떤 바라는 것을 얻어내야 한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⑤ 이 글은 개인적인 인생에서의 길과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는 글로, 사회 현상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02 이 글에서 '방향성'은 자신이 좋아하면서 동시에 잘하는 것을 찾는 것이라고 하였다. ②의 학생은 좋아하는 일이 없는데도 진로를 정했다고 했으므로 '확신'의 단계라고 보기 어렵다.

03 주제 통합적 읽기 과정에서는 정보의 선별과 평가가 중요하며, 모든 정보를 다 담아내는 것은 효율적인 자료 분석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04 매체 자료를 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 제공이다. 주제와 목적에 맞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시각적 효과는 정보 전달을 돕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시각적 효과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내용의 정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정확한 정보 전달이 우선되어야 한다.

05 이 모둠은 지역 문화를 소개하는 매체 자료를 제작할 예정이며, 쌍방향 소통이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 영상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하면 사람들이 언제든지 영상을 시청하고 실시간 피드백을 할 수 있다. 또한, 화면, 소리, 자막을 통해 생생하게 다양한 내용을 소개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책은 깊이 있는 정보 제공에 적합하지만, 쌍방향 소통은 어렵다.
② 신문은 짧고 간결한 정보 제공에 적합하지만, 지역 문화를 소개하는 데 화면, 소리, 자막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③ 라디오는 현장감을 전달할 수 있지만, 시청각적 요소가 중요한 지역 문화 소개에는 적합하지 않다.
④ 블로그 역시 쌍방향 소통 등 매체 자료의 전달 효과가 높지만, 화면, 소리, 자막 등을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06 서술형 매체 자료를 제작할 때는 매체 제작의 계획을 세운 후(ㅁ), 매체 유형을 선정하고(ㄱ) 매체 제작을 기획한다(ㄷ). 이후 실제 매체 자료를 제작하고(ㄴ) 매체 자료를 게시 및 평가한다(ㄹ). 이러한 매체 자료를 계획하여 제작하고 인터넷에 게시하는 활동을 통해 사회적 소통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매체 자료를 제작하는 단계에 맞게 순서대로 기호를 나열하여 썼다.	☐

대단원 평가 문제

본책 028~033쪽

01 ⑤ 02 ③ 03 ② 04 ④ 05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기 쉬운 마음의 속성 06 ② 07 ⑤ 08 ⑤ 09 ⑤ 10 ⑤ 11 ④ 12 ⑤ 13 창조적 방황 14 ① 15 ④ 16 ③ 17 ① 18 ⑤ 19 ⑤ 20 ⑤ 21 ⑤ 22 ②

01 사람과 만날 때 그 사람은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마음으로 자신의 일생 전체를 가지고 오게 된다. 그러므로 화자는 만남의 순간에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고 여기며, 그 사람의 전체 삶을 포용하고 환대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이 시에서는 만남의 소중함과 만남을 대하는 자세를 다루고 있을 뿐 이별의 상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이 시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방문객을 맞이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화자가 어딘가로 이동한다거나 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③ 사람의 마음이 부서지기 쉽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마음의 속성을 섬세하고 예민하리라고 추측할 수는 있지만, 이는 화자의 마음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자 자신도 마음을 열어야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02 '방문객'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람이나 장소를 찾아오는 손님.'을 의미한다. 이 시에서는 실제로 찾아오는 손님이라기보다는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 일, 타인과 만나게 되는 일을 손님이 찾아오는 것에 비유했다고 볼 수 있다.

03 의문형은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 유형을 말하며, 의문형 문장 종결 어미에는 '-(ㄴ/는)가', '-(느)냐', '-(으)니' 등이 있다. 이 시는 평서형 종결 어미 '-다'를 사용하여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는 문장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와'의 반복과 '오기 때문이다'의 반복 등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그의 과거와', '그의 미래가'처럼 '그의'를 반복하여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즉 그 사람의 전체가 옴을 강조하고 있다.
④ 사람이 아닌 자연물인 '바람'이 마치 사람처럼 마음을 더듬어 본다고 표현하고 있다.
⑤ 문장을 '-다'로 표현하여 담담하고 독백적인 어조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04 이 시는 만남을 단순하고 일상적인 일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전체가 오는 '어마어마한 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부서지기' 쉬운 마음으로 오는 그 사람의 약한 마음을 더듬을 줄 아는 '바람'의 모습처럼 만남의 순간에는 깊은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05 서술형 방문객의 마음이 부서지기 쉽거나 이미 부서지기도 했을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 주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부서지기'의 의미를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기 쉽거나 다치기 쉬운 것으로 파악하여 썼다.	☐
'마음'의 속성을 연약하거나 깨지기 쉬운 것으로 밝혀 썼다.	☐

06 (가)에서 화자는 사람과의 만남을 어마어마한 일로 묘사하며, 타인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함께 오는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 것으로 의미 있게 바라보고 있다. 이는 단순히 외면적인 만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온전히 맞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드러낸다. 또한, (나) 역시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는 것으로 보아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섬에 가고 싶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은 바람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와 (나)는 모두 타인과 소통하며 관계를 맺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나)에서는 '섬'을 아무도 없는 공간으로 볼 경우 복잡한 인간관계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가)의 경우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고뇌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다루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두 시 모두 자연과 인간이 대립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으며, 이상 세계가 아닌 현실 세계에서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④ 작가가 이런 시적 경향을 보여 주는 것은 맞지만, '바람'이나 '섬'은 자연물 그 자체의 시어가 아니라 '바람'은 다른 이를 어루만질 수 있는 존재, '섬'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어 주는 존재로 형상화되고 있다.
⑤ (나)의 경우 '섬'을 사람과 사람을 잇는 소통의 공간으로 본다면 단절된 인간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소망으로 보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가)의 경우는 원래 있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누군가를 만날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07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은 작품의 내용과 표현을 중심으로 한 분석이다.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작품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은 독자 맥락에 따라 작품을 감상할 때의 질문이다.

| 오답 풀이 | ①, ②, ③, ④ 시어와 시구의 함축적 의미, 운율, 표현 방법, 어조 등은 작품의 내용과 표현 요소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 것이다.

08 문학 작품이 연관된 다양한 맥락 중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답한 학생은 '혜성'이다. 다른 학생들과 달리 시의 일부가 건물의 글판에 걸려 사회적으로 소통될 때 어떠한 의미를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오늘날과 같이 온라인 소통이 보편화된 사회에서는 가벼운 만남도 많이 일어나고, 만남 자체의 소중함이 간과되는 일도 많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만남의 소중함과 타인을 대하는 자세를 나타낸 이 시의 의미를 탐구해 볼 수 있다.

09 (마)에서는 진짜 눈과 섞여서 내리는 가짜 눈을 치우는 것을 포기한 사람도 있지만, 아무리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다고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없이 눈을 치우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였다.

10 소설을 통해 인간의 힘으로 예측하기 어렵거나 해결할 수 없는 재난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면서, 현실에서 이런 상황이 닥칠 경우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가짜 눈'이 허구의 소재인 것은 맞지만, 소설은 허구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현실의 모습을 반영하므로 단순히 소재가 허구적이라고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이 소설에서는 기후 변화로 고통받거나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작품 자체에 대한 내용이므로 사회·문화적 맥락을 통한 감상으로 보기 어렵다.

③ 소설 속 인물의 모습에서 교훈을 얻는 모습은 독자 맥락에서 감상한 내용이다.
④ 이 소설에서 재난 상황에서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은 작가의 의도된 연출로, 단순히 기후 변화보다 그에 대응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작가는 기후 변화와 같은 이상 징후의 속도라도 낮출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작가의 말에서 밝히고 있다.

11 (나)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쯤에 있는지 단번에 답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아야 자신의 위치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12 '나를 안다'는 상태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일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도윤은 이 세 가지가 일치하여 방향성을 찾은 학생으로, 이 글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상태에 해당한다. 나머지 학생들은 이 세 가지가 일치하지 않거나 방황하는 상태에 있다.

13 서술형 이 글에서는 삶의 방향과 목표를 찾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방황을 부정적이거나 피해야 하는 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창조적 사람들이 응당 겪어야 하는 일로 보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삶의 방향을 찾는 단계의 첫 번째 단계인 방황의 의미를 파악하고 썼다.	☐
(가)에서 '창조적 방황'을 정확하게 찾아 썼다.	☐

14 영상 매체 제작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모둠 구성원과 함께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모둠 구성원과 역할을 나누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

15 모둠에서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평가하며 능동적인 독자의 태도를 기를 수 있다. 독서의 속도는 모둠 구성원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주제 통합적 읽기 활동을 통해 얻는 가치로는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진로나 관심 분야와 관련된 주제 통합적 읽기 활동에서는 진로나 관심사가 유사한 학생들이 모둠을 구성하여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눈다.
② 모둠 활동을 통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다. 독서 계획을 세우고 자료를 읽으면서 탐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읽은 자료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재구성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다.
⑤ 진로나 관심 분야와 관련된 자료를 읽음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얻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16 글로 정보를 전달하면서 글 사이에 사진을 넣을 수 있는 매체는 책, 잡지, 블로그, 신문 기사이다. 이때 독자의 반응을 받아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은 블로그이다.

17 매체 자료를 제작할 때에는 먼저 정보 전달, 설득, 정서 표현 등 소통의 목적을 설정하고, 매체 자료를 수용하게 될 수용자의 관심사나 배경지식 등을 파악해야 한다.

18 매체 자료를 제작할 때뿐만 아니라 자료나 정보를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19 이 영상 매체 자료는 우리 학교 학생들의 참여를 위한 것이므로, 지역 주민들에게 축제 참가를 권유하는 것은 매체 자료의 목적과 거리가 멀다.

20 매체를 제작하는 활동에 모든 과정을 함께 하기 어렵기 때문에 역할을 적절하게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영상을 만든다면 진행, 영상 촬영, 편집, 대본 작성, 출연 등 영상 제작에 필요한 역할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실제 제작을 할 때 일부 학생들에게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영상 제작에는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므로, 역할을 효율적으로 나누어 균등한 작업을 분담해야 한다. 각자 좋아하는 역할만 맡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② 역할을 나누지 않고 독립적으로 작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팀 프로젝트에서는 협력과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
③ 모둠장은 팀의 전체적인 진행을 책임져야 하므로 아무 역할도 맡지 않으면 전체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④ 모둠장이 모든 역할을 혼자 맡는 것은 불가능하고 비효율적이다.

21 전년도 축제의 사진과 영상을 활용할 때, 저조한 참여도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축제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이 전략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자막을 통해 지역 축제의 의의를 나타내는 것은 적절하다. 시청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② 밝은 음악을 삽입하는 것은 축제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강조하는 전략으로 적절하다.
③ 학생 인터뷰를 통해 축제의 즐거움과 가치를 전달하는 것은 효과적인 전략이다.
④ 신뢰할 수 있는 신문 기사를 활용하는 것도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홍보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

22 친구들과 질문하며 책을 읽으면 책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이때 책의 가격과 관련된 정보는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2. 문학이 그린 네 가지 색깔

01 수라

문제로 확인 본책 038~039쪽

01 ③ 02 ④ 03 ④ 04 ④

01 이 시의 화자는 처음에 '거미 새끼'를 발견하고는 무심하게 문밖으로 쓸어 버린다. 그러나 잠시 후, '큰 거미'를 발견하고는 이를 새끼 거미의 어미로 여겨 연민을 느끼며 서러워한다. 그리고 '무척 적은 새끼 거미'를 발견하고는 가슴이 메이고 뿔뿔이 흩어진 거미 가족의 모습에 슬퍼한다.

02 이 시에서 공간의 이동은 드러나지 않는다. 시의 화자는 방 안에 있으면서 거미들을 문밖으로 버리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03 화자가 거미를 버린 곳은 춥고 어두운 문밖이다. 거미 가족이 처한 이러한 상황을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에 비추어 볼 때, '차디찬 밤'은 우리 민족이 처한 혹독한 현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04 화자는 '새끼 거미', '큰 거미', '매우 적은 새끼 거미'를 차례대로 문밖으로 버리면서 이 거미들이 밖에서라도 만나기를 바라고 있다. 거미 가족이 만나기를 바라는 것에서 뿔뿔이 흩어진 우리 민족이 다시 만나기를 희망하는 태도를 살펴볼 수 있다.

꼭 필요한 쏙 쏙 단원 평가 문제 본책 040~041쪽

01 ② 02 ② 03 ① 04 ③ 05 ① 06 '수라'는 일제 강점기에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우리 민족의 비극적 현실을 의미한다. 07 ① 08 ③

01 역설이란 이치에 어긋나거나 모순되는 진술을 통해 진실을 표현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시에서 화자는 시적 대상인 거미 가족을 보며 서럽고 슬픈 감정을 느끼고 있으므로 모순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02 이 시의 화자는 자기가 처음 거미를 문밖에 버리면서 거미 가족이 헤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에 서러워하며 찬 밖에서라도 거미 가족이 재회하기를 바라고 있다. 뿔뿔이 흩어진 거미 가족은 일제의 강점으로 삶이 파괴되어 해체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민족의 아픔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시에 '어니젠가', '가제'와 같은 평안도 방언이 쓰여 토속적 느낌을 주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연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 시에서는 화자의 행동으로 인한 거미 가족의 헤어짐만 드러나 있지 만남의 장면은 찾아볼 수 없다.
④ 거미 가족이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은 일제 강점기하에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된 우리 민족이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투영한 것이다. 이를 불가능한 소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이 시에서 자연물인 거미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들은 의인화되어 우리 민족의 모습을 투영하므로, 순수한 자연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03 여기서의 '짜릿하다'는 가슴이나 마음 따위가 아픈 느낌이 있다는 뜻으로, 화자가 '새끼 거미'를 버린 자리에 '큰 거미'가 나타나자 어미 거미의 자식을 자신이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죄책감에 마음이 아팠다는 뜻이다.

04 화자는 '무척 적은 새끼 거미'를 문밖으로 버리며 엄마나 누나나 형을 만나라고 하고 있다. 이는 자신이 먼저 버린 '새끼 거미'와 '큰 거미'를 의인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05 산문시는 시행을 나누지 않고 리듬의 단위가 문장 또는 문단으로 드러나는 시를 말한다. 이 시는 3연으로 연이 구분되어 있고, 시행도 나뉘어 있다.

06 서술형 이 시의 제목인 '수라'는 일제의 극심한 수탈로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현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라'는 일제 강점기에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우리 민족의 비극적 현실을 의미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과 연관 지어 썼다.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다.	☐

참고 자료

백석, 「여우난골족」

이 시에 묘사된 '여우난골'은 명절을 맞아 일가친척이 모두 모이는 장소로서, 공동체적 합일의 공간을 상징한다. 시인은 '여우난골'이라는 어린 시절의 공동체적 공간을 제시하면서 사라져 가는 우리의 소중한 풍속과 민족 공동체 회복에 대한 염원을 드러낸 것이다.

갈래	현대 시, 자유시, 서정시, 산문시
성격	서사적, 회고적, 향토적
제재	명절에 만나는 친척들, 명절 음식, 놀이
주제	명절날 화기애애한 친족 공동체의 모습
특징	산문적 진술로 명절의 모습을 회고적으로 그림.

07 [A]의 시적 대상은 '거미 새끼', [B]의 시적 대상은 '큰 거미', [C]의 시적 대상은 '무척 적은 새끼 거미'이므로 각 연에서의 시적 대상은 전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08 화자는 자신 때문에 '거미 새끼'와 '큰 거미'가 헤어진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데, ㉢은 이런 고통스럽고 죄스러운 마음이 미처 진정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고난도 UP 오답원 심화 문제

본책 042~043쪽

01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러운 종이에 받어 **02** ④ **03** ④ **04** ① **05** ③ **06** ④ **07** ⑤

01 서술형 이 시의 화자는 '큰 거미'가 없어진 곳에 나타난 '무척 적은 새끼 거미'를 다른 가족들을 만나라고 문밖으로 버린다. 화자는 1연에서 '아모 생각 없이' 쓸어 버린 것과 달리 3연에서는 '보드러운 종이에 받어' 조심스럽게 버리는 배려를 보인다. '보드러운 종이'는 촉각적 심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러운 종이에 받어'라는 시구를 찾아 썼다.	☐

02 이 작품은 서정 갈래에 속하는 현대 시이다. 일정한 형식 없이 줄글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은 수필의 특성으로, 수필은 교술 갈래에 속한다.

03 이 시는 1연에서 3연까지 화자가 거미를 문밖으로 버리는 동일한 행동이 반복되며 시상이 전개된다(ㅁ). 이때 화자의 정서는 후반부록 갈수록 점차 심화되며(ㄴ), 화자는 가족과 흩어진 거미 가족의 모습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여 거미 가족이 다시 만나기를 바라고 있다(ㄷ).

04 외세와 전쟁을 치러야 했다는 것은 1930년대 시대 상황과 맞지 않다. 일제의 수탈로 인해 고향을 잃고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는 혼란스럽고 안타까운 우리 민족의 상황을 '수라'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05 [A]에서 무심코 거미를 문밖으로 버린 행동이 일어났기에 화자가 [B]의 행동과 [C]의 행동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A]를 [C]의 계기라고 보아야 한다.

06 백석은 토속어, 방언, 고어와 같은 아름다운 우리말을 시에 사용하여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와 정취를 짙게 드러낸 시인이다. 이 시에서는 '아모', '어니젠가', '가제'와 같은 방언이 쓰였고, <보기>는 시 전체가 방언과 고유어로 이루어져 있다.

07 화자가 ㉠처럼 거미를 문밖으로 버림으로써 거미 가족이 해체되게 된다. 반면 ㉡에서 화자가 거미를 버리는 행동은 문밖에서라도 거미 가족이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02 엇박자 D

문제로 확인

본책 046~057쪽

01 ⑤ **02** ⑤ **03** ④ **04** ④ **05** ⑤ **06** ① **07** ① **08** ① **09** ① **10** ⑤ **11** 엇박자 D와 나는 잘 맞는 파트너였다. **12** ② **13** ① **14** ① **15** ⑤ **16** ① **17** 엇박자 D를 위한 엇박자 연주곡. **18** ④ **19** ④ **20**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21** ⑤ **22** ②

01 이 소설의 중심인물은 '엇박자 D'로, 서술자인 '나'가 그의 이야기를 관찰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이다.

참고 자료

1인칭 관찰자 시점

개념	작품 속의 주변 인물인 '나'가 중심인물을 관찰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시점으로, 주인공의 내면 심리는 직접 서술되지 않음.
특징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제한적으로 드러내어 작품에 긴장감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지만 서술자의 눈에 보이는 세계밖에 다룰 수 없음.

02 '발단-(가)'에서 '나'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특별 활동을 하고 싶었고, 특별히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나'가 합창단에 들어간 이유가 어떤 특별한 활동을 하고 싶지 않아서임을 알 수 있다.

03 이 글의 내용으로 보아 '엇박자 D'가 합창단에서 단장 역할을 맡은 것은 합창단에 대한 열의와 진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친구들을 통솔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04 '발단-(가)'의 내용으로 보아 '나'는 합창단에 들어갈 당시 부모님의 이혼, 동생의 가출로 인해 가족이 흩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두 다 같이 모여 노래를 부르는 합창은 불가능한 유토피아로 느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05 '음악 선생'은 음치와 박치라는 이유로 '엇박자 D'에게 자진 사퇴를 권했지만 '엇박자 D'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06 '음악 선생'은 축제에서 무대를 망치지 않기 위해, '엇박자 D'에게 입만 벙긋하며 립싱크를 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음악 선생'이 모두가 똑같은 박자와 음을 맞추며 노래를 하는 것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7 '진면목'이란 '본디부터 지니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라는 말이다. 즉, '엇박자 D의 진면목'이란 축제 때 부를 노래를 연습하며 '엇박자 D'가 박치이자 음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의미이다.

08 '전개-(나)'에서 '엇박자 D'의 칭찬을 듣은 '나'는 '엇박자 D의 칭찬이 기분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나'는 '엇박자 D'의 칭찬을 듣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다.

09 '전개-(가)'에서 '나'는 '엇박자 D'의 기획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새로웠다고 느끼고 있다. 그러므로 '나'가 '엇박자 D'의 기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② '나'는 '엇박자 D'가 공연의 큰 줄거리를 만들어 왔을 때 솔직히 조금 놀랐다고 하였다.
③ '엇박자 D'는 연주자들이 배우처럼 움직이고, 배경 음악에 맞춰 무대 위를 돌아 다니는 퍼포먼스를 기획하였고, '나'는 이러한 퍼포먼스가 재미있다고 하였다.
④ '더블더빙'의 음악과 무성 영화는 한쪽이 더 강한 것 없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
⑤ '엇박자 D'는 무성 영화와 '더블더빙'의 음악 모두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두 요소를 균형 있게 기획하였다.

10 '엇박자 D'는 주도적으로 공연을 기획했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공을 내세우기 보다는 함께 공연을 준비한 '나'를 인정해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엇박자 D'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성격임을 알 수 있다.

11 서술형 '전개-(가)'에서 '나'는 '엇박자 D'의 공연 기획 능력을 칭찬하고 있으며, '전개-(나)'에서 자신 또한 일을 잘 해서 '엇박자 D'에게 칭찬을 받았음을 드러내며 서로가 잘 맞는 파트너였다고 말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엇박자 D와 나는 잘 맞는 파트너였다.'라는 문장을 '전개-(나)'에서 찾아 썼다.	☐

12 '나'가 합창단 친구들의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합창단에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이 많지 않았고, 열심히 노래를 불렀던 것도 아니고, 함께 모여 각자의 공부만 했기 때문이다. 즉, '나'가 합창단 활동에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13 '전개-(다)'를 통해 '엇박자 D'의 부탁을 들은 '나'는 생색을 내기에 적당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여 친구들을 공연에 초대하기 위해 연락했음을 알 수 있다.

14 '나'가 취재 기자를 꼬드겨 인터뷰까지 하게 된 이유는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려 유명세를 타면 자신에게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나'의 속물적인 모습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15 '나'는 공연 전에 몇 번이나 꼼꼼하게 시스템을 확인하면서 성공적인 공연 준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가 공연이 끝난 후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자신을 찾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으로 보아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긴장과 기대를 느끼는 모습임을 알 수 있다.

16 공연 전에 '엇박자 D'는 떨린다고 말하며 긴장하고 있다. 또, '나'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공연이 시작된다고 말하는 부분, '나'가 관객들이 커다란 해일이 되어 공연장을 삼켜 버릴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 등을 미루어 짐작했을 때 공연을 앞두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7 서술형 '나'는 '더블더빙'의 엇박자 연주곡을 듣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엇박자 D를 위한 엇박자 연주곡.' 같다고 표현하며, 고등학교 시절 '엇박자 D'의 합창도 나름의 가치와 의미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처럼 느낀다.

평가 기준	확인 ☑
'더블더빙'의 연주곡에 대한 '나'의 평가를 '위기-(라)'에서 찾아 5어절로 썼다.	☐

18 ㉣은 무성 영화 속 기차의 충돌 직전 장면에 기타 소리를 입혀 '더블더빙'이 무대에 등장하는 순간을 표현한 것이다. ㉣에서 '빵'은 음성 상징어는 맞지만, 기타 소리를 표현한다고 보아야 한다.

19 이 공연에서는 의도적으로 관객들에게 무성 영화의 여자의 찡그린 얼굴에 맞춰, '더블더빙'의 연주가 묘하게 어긋나며 리듬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며 재미를 유발한다. '엇박자

D'가 이와 같이 공연을 기획한 것은 이를 통해 엇박자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20 서술형 '엇박자 D'는 22명의 음치들의 목소리를 서로 절묘하게 어우러지도록 믹싱하여 서로의 소리를 해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 보아 '엇박자 D'가 생각하는 합창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엇박자 D'가 생각하는 합창의 의미를 다름을 존중하고 개성을 드러내면서 조화를 이룬다는 맥락으로 썼다.	☐

21 '엇박자 D'가 친구들에게 음치들의 목소리를 조화롭게 믹싱하여 20년 전의 노래를 들려준 것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음치들의 노래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보여 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ㄱ. '엇박자 D'는 자신이 노래를 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노래를 잘하지 못하는 목소리끼리 어울려도 조화롭고 아름다울 수 있음을 보여 주려는 것이다.

ㄴ. '엇박자 D'가 믹싱을 잘하긴 했지만 '엇박자 D'가 음치들의 합창을 들려준 이유는 이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22 ㉡의 '립싱크'는 친구들이 '엇박자 D'에 대한 예의를 표하기 위해 각자의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나'가 주도하여 이를 실행한 것이 아니다. 친구들의 립싱크에는 다름과 개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뿐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극복한 '엇박자 D'에 대한 예의도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꼭집게 쏙 오단원 평가 문제

본책 058~063쪽

01 ① **02** ③ **03** ③ **04**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 **05** ③ **06** ② **07** ③ **08** ① **09** ④ **10** 공연장의 조명이 번쩍이며 더블더빙이 나타나자 한 차례 해일이 일었다. **11** ② **12** ③ **13** ② **14** ③ **15** ⑤ **16** ⑤ **17** ③ **18** ⑤

01 이 글은 소설로 서사 갈래에 속한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쓴 글이라는 설명은 교술 갈래 중 수필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02 이 글의 서술자인 '나'는 중심인물인 '엇박자 D'를 관찰하는 주변 인물로, 자신이 관찰한 내용을 서술할 뿐, '엇박자 D'의 내면까지는 알 수 없다.

03 (나)에서 '엇박자 D'를 제외한 합창단원들은 모두 합창단에 들어가면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라)에서 '엇박자 D'는 합창단에서 노래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기에 축제 때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를 것이라는 광고를 여러 곳에 해 두었음을 알 수 있다.

② (가)에서 '나'가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고서는 전혀 활동하지 않는 합창단에 들어간 것과, (나)에서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노래 연습보다는 밀린 잠을 보충한 것으로 보아 '나'가 합창단에서 활동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나)에서 '음악 선생'이 합창단 활동 시간에 내내 자습을 시키는 것으로 보아 합창단 활동에 열의가 없음을 알 수 있다.

⑤ (다)에서 '음악 선생'이 '쉬운 노래니까 딱 한 번만 맞춰' 보자고 하는 것으로 보아 축제에서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04 서술형 이 글에서는 합창에서 '엇박자 D'의 목소리만 들리면, 아이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음이 뒤죽박죽되며 박자가 제멋대로 변하는 상황을 묘사하며 '엇박자 D'의 목소리를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라고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합창에 영향을 주는 '엇박자 D'의 목소리를 빗댄 표현을 (라)에서 찾아 3어절로 썼다.	☐

05 ㉢의 뒤에는 '엇박자 D'가 놀라울 정도로 박치이자 음치였으며 다른 아이들의 노래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내용이 이어진다.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의 '엇박자 D'의 진면목은 모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매력이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음치이자 박치라는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합창단에 대해 '제대로 된 합창단은 불가능한 집단이었다'와 같이 설명한 것으로 보아 합창단의 실상을 짐작할 수 있다.

② '나'는 고등학교 시절 같은 합창단 단원인 '엇박자 D'가 밖으로 나가서 노래 연습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나'가 '엇박자 D'에게 신경 쓰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④ ㉣에 제시된 '불길한 기운'은 '엇박자 D'의 목소리가 다른 아이들의 합창까지 망칠 것임을 의미한다.

⑤ '음악 선생'의 강압적 행동에 눈치를 보면서 부르는 노래이므로 이미 노래가 아니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06 ⓐ는 '음악 선생'이 '엇박자 D'에게 소리를 내지 않고 입만 벙긋벙긋할 것을 강요하는 부분이므로 조화로움과는 관련이 없다.

| 오답 풀이 | ①, ③ '엇박자 D'에게 입만 벙긋벙긋하게 지시한 것은 '음악 선생'이 '엇박자 D'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강요와 억압에 의해 이루어졌다.

④ 전체가 모두 똑같은 음을 내기 위해 목소리가 다른 '엇박자 D'에게 노래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에는 전체를 위해서라면 개인의 개성은 희생해도 된다는 '음악 선생'의 생각이 담겨 있다.

⑤ '음악 선생'의 입장에서 '엇박자 D'가 입만 벙긋벙긋하는 것은 합창을 망치지 않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생각한 방법이다.

07 (다)에서 '나'는 '더블더빙'의 음악이 음반으로 듣던 것보다, 리허설 때 들었던 것보다 10배 정도는 강력한 음악이었다며 놀라워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나'는 공연 당일까지 '엇박자 D'와 함께 공연 준비를 잘 끝냈다.
② '나'는 공연 시작 전 1시간이 1초처럼 지나간다고 하며 시간이 빨리 간다고 표현하고 있다.
④ '나'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이름 앞에 붙은 잘못된 수식어가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굳이 바로잡지 않았다.
⑤ '나'는 '엇박자 D'의 스토리보드가 꼼꼼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08 '나'는 인터뷰한 방송의 자막이 잘못 달렸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이기에 굳이 바로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이 유명해질 것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를 통해 '나'가 자신의 성공을 바라며 이해관계를 따지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② 공연이 잘 되어 자신이 유명세를 타기를 바라는 것이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아니다.
③, ⑤ (가)에서 '나'는 자신을 위해 자신이 하는 일을 성공시키려 할 뿐 자신을 낮추거나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④ 진정성 있는 음악을 위해 관객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수들을 비판하며 자신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09 (다)에서 '더블더빙' 멤버들이 오두막집으로 돌진하던 기차가 되어 관객들 앞으로 뛰쳐나왔다는 구절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는 멤버들이 기차처럼 뛰쳐나왔다는 의미일 뿐, 실제 무대 위에 기차를 등장시켰다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흑백 무성 영화가 영사되던 스크린을 찢고 '더블더빙'의 멤버들이 나타났다.
② 무성 영화와 '더블더빙'의 연주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③ 무성 영화 속 기차가 거의 다 다가왔을 때, '더블더빙'의 강렬한 기타 소리가 터지며 관중들의 정적을 깨우고 있다.
⑤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공연장의 불이 꺼지자 한 남자가 나오는 짧은 무성 영화가 시작되고 있다.

10 서술형 (다)에서 흑백 무성 영화가 영사된 스크린을 찢고 더블더빙의 멤버들이 나타나자 공연장의 조명이 번쩍이며 한 차례 해일이 일었다는 표현으로 관객들의 반응을 묘사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다)에서 찾아 썼다.	☐
올바른 표현을 찾아 썼다.	☐

11 <보기>에 따르면 무성 영화는 소리 없이 영상으로만 구성된 영화이다. ㉠과 ㉡은 모두 무성 영화이지만, ㉡은 '더블더빙'의 연주가 음향 효과 역할을 할 수도 있으므로, ㉠에 비해 ㉡의 영상에서 음향의 빈자리를 크게 느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보기>에 따르면 관객들은 영상으로만 구성된 무성 영화에 더욱 집중한다고 했으므로, ㉠에서 기차가 소리 없이 다가올 때 영상에 집중하던 관객들은 긴장했을 것이다.
③ ㉠과 달리 ㉡에서는 '더블더빙'의 연주가 음향 효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관객들은 무성 영화의 특성상, 영상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의 영상 내용에 맞춰 기차가 언제 올지 궁금해할 것이다.
⑤ 관객들은 <보기>에 따라 무성 영화인 ㉡의 영상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에서 재채기를 하려는 여자의 얼굴에 집중할 것이다.

12 '나'는 '더블더빙'이 「재채기」라는 무성 영화에 맞춰 조금씩 엇박자로 연주하는 것에 관객들이 더욱 재미를 느끼는 것을 보고, 이를 '엇박자 D를 위한 엇박자 연주곡'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엇박자도 그 나름의 가치가 있음을 보여 준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13 ⓐ의 '묘하다'는 '일이나 이야기의 내용 따위가 기이하여 표현하거나 규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②의 '묘하다'는 '모양이나 동작이 색다르다.'는 의미이다.

| 오답 풀이 | ①, ③, ④, ⑤에서는 '묘하다'가 '일이나 이야기의 따위가 기이하여 표현하거나 규정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쓰였다.

14 이 글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로, 작품 속의 '나'가 '엇박자 D'를 관찰하며 벌어지는 사건에 대한 서술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이 글에 인물 간의 대화가 나타나나 이를 통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 않다.
② 이 글은 과거형 서술을 통해 사건을 드러내고 있다.
④ 소설의 시점 중,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⑤ 이 글은 동일한 시간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여 주고 있지 않다.

15 '엇박자 D'가 합창단 친구들을 공연에 초대하려는 이유는 자신이 기획한 공연을 통해 과거의 아픔을 극복한 자신의 모습을 친구들에게 보여 주고 다름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알려 주고 싶어서이다.

16 <보기>의 '음악 선생'은 모두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합창이라고 생각하지만 (라)에서 '엇박자 D'가 보여 주는 합창은 모두 다른 목소리지만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고, 그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보기>의 립싱크는 '음악 선생'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라)의 친구들의 립싱크는 '엇박자 D'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③ (라)의 음치들의 노래는 각자의 다름을 존중해야 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데, 관객들과 친구들 모두 아름답다고 느끼고 있으므로 나름의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보기>의 사건이 '엇박자 D'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라)의 사건은 '엇박자 D'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17 (가)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쓰였으며 서술자인 '나'가 눈에 보이는 것을 관찰하여 전달하고 있다. 반면 <보기>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였으며 모든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직접 제시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가)는 작품 안의 서술자가 상황을 묘사하고 있으며, <보기>는 작품 밖의 서술자가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② (가)의 서술자는 관찰자의 입장이므로 겉으로 드러난 중심인물의 행동만 묘사하고 있으며, <보기>는 작품 밖 전지적 관점의 서술자가 인물의 속마음을 자세하게 전달하고 있다.
④ <보기>의 작품 밖의 서술자는 사건을 전지적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으며 (가)의 서술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만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서술하고 있다.
⑤ (가)는 주변 인물인 '나'의 관점에서, <보기>는 전지적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18 ㉤의 '입을 벙긋거렸다'는 동작 자체를 단순히 기술한 표현이다. 어떤 느낌, 소리, 분위기를 전달하기보다 행동 그 자체를 묘사한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공연 시작 전 관객들이 조용히 노래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시각화하여 표현하였다.
② 앙코르 곡을 앞두고 어둠과 고요에 잠긴 무대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묘사하였다.
③ 아주 작게 들리던 음악 소리가 조금씩 커지며 관객들에게 퍼져 나가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④ 어둠 속에서 음치들의 노래가 관객들에게 들리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고난도 업 모단원 심화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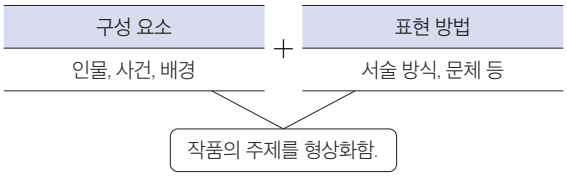
본책 064~065쪽

01 ⑤ **02** ④ **03** ⑤ **04** ⑤ **05** ④ **06** ⓐ는 '음악 선생'의 지시에 따른 강압적인 립싱크이고, ⓑ는 음치들의 노래를 통해 다름과 개성의 존중을 보여 준 '엇박자 D'에 대한 예의를 표현하기 위해 한 자발적인 립싱크이다.

01 이 글은 서사 갈래이다.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은 내용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전달한다는 설명은 교술 갈래 중 수필에 대한 설명이다.
| 오답 풀이 | ① 서사 갈래는 인물의 내적 갈등, 인물 간의 외적 갈등 등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② 서사 갈래는 작가 본인이 아닌, 작가가 내세운 서술자를 통해 이야기를 서술한다.
③ 서사 갈래는 현실 세계에 일어날 법한 사건을 다루지만, 이는 작가가 꾸며 쓴 허구적 이야기이다.
④ 인물, 사건, 배경은 소설의 구성 요소로 전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참고 자료

소설의 구성 요소와 주제 형상화



02 이 글은 '엇박자 D'가 음치라는 이유로 상처를 받았던 과거 고등학교 시절과 고등학교 졸업 후, 20년이 지난 현재에 상처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이 '엇박자 D'와 고등학교 친구들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이 글은 '나'와 '엇박자 D'라는 특정 인물들의 과거와 현재를 드러내고 있다.
② 인물의 이름을 '엇박자 D'라고 명명하여 음치, 박치임이 드러나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다.
③ 이 글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주변 인물인 '나'가 중심인물인 '엇박자 D'를 관찰하고 있다.
⑤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과거와 고등학교 졸업 후, 20년이 지난 현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03 '나'와 '엇박자 D'는 과거에 동일한 합창단에서 활동했지만, 합창단 활동에서 상처를 받은 '엇박자 D'는 현재까지 과거의 사건의 영향을 받고 있다. '나'에게 끼친 영향이나, '엇박자 D'와 대조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현재 '엇박자 D'가 기획한 공연에 같은 합창단이었던 친구들을 초대하는 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나'가 과거의 기억을 중첩하여 서술하고 있다.
②, ④ 이 글은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사건 사이에 배치하여 '엇박자 D'의 삶에서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과거가 단순히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현재의 인물을 형성하는 데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③ 이 글은 과거 고등학교 축제 합창 때 '엇박자 D'가 '음악 선생'에게 립싱크를 강요당하고, 현재 '엇박자 D'가 음치들의 합창을 들려주는 사건을 '현재-과거-현재'의 구성 방식으로 보여 주어 '다름과 차이에 대한 존중과 이해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04 <보기>에 따르면 '화음'은 둘 이상의 높이가 다른 음이 동시에 울려서 생기는 것인데, 다채롭고 안정적인 느낌을 준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의 음치들의 노래가 마치 화음처럼 들린 것은, 다름을 수용하고 존중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이 글에서의 '화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② 이 글에서의 '화음'은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③ 이 글에서의 '화음'은 자신의 뛰어난 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④ 이 글에서의 '화음'은 타인을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개성을 보여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05 ㉠이 하는 합창은 '음악 선생'의 강요와 강압에 의한 합창이고, ㉡이 하는 합창은 개인의 개성이 존중되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합창이다. 그러므로 ㉠의 합창이 음악적 감수성을 일깨워 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의 '22명의 아이들'은 합창을 망치는 목소리를 찾아 나서는 '음악 선생'의 화난 모습에 혹시나 자신이 합창을 망친 사람일 수 있다는 불안감에 위축된 채로 노래를 하고 있다.
② ㉡의 음치들의 노래는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③ ㉡의 음치들의 노래가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는 반면, ㉠의 '22명의 아이들'은 '음악 선생'에게 혼이 날까 봐 노래를 즐기지 못하고 있다.
⑤ '엇박자 D'가 ㉠의 '22명의 아이들'에게 ㉡의 음치들의 노래를 들려준 이유는 각자의 개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의 아름다움을 보여 주기 위해서이다.

06 서술형 ⓐ는 합창은 한 목소리로 동일하게 소리를 내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음악 선생'의 억압에 의한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립싱크이고, ⓑ는 음치에 대한 편견과 고정 관념을 극복한 '엇박자 D'의 모습에 예의를 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립싱크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와 ⓑ의 의미를 썼다.	☐
ⓐ와 ⓑ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썼다.	☐

03 파수꾼

문제로 확인 본책 068~079쪽

01 ③ **02** '이리 떼'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03** ③ **04** ⑤ **05** 딸기 **06** ① **07** ⑤ **08** ② **09** ④ **10**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는 권력자, 시민을 통제하려는 권력자 **11** ④ **12** ① **13** ③ **14** ③ **15** ① **16** ③ **17** ② **18** ④ **19** ② **20** ⑤ **21** ⑤ **22** ② **23** ② **24** 바람 소리만이 더욱 거칠어진다.

01 이 글에서 파수꾼 '가'는 망루 위에서 '이리 떼'가 나타났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파수꾼 '가'는 자신의 임무에 충실할 뿐 파수꾼 '다'가 진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앞부분 줄거리를 통해 마을 사람들이 '이리 떼'를 몹시 두려워하며, '이리 떼'의 습격을 알리는 파수꾼을 두어 '이리 떼'의 공격에 대비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앞부분 줄거리에서 파수꾼 '가'가 망루 위에서 '이리 떼'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면, 망루 아래의 파수꾼 '나'와 '다'는 북을 쳐서 '이리 떼'의 습격을 마을에 알린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파수꾼 '가', '나', '다'가 '이리 떼'의 출현을 감시하며 '이리 떼'가 나타나면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전개-(나)'에서 파수꾼 '나'는 파수꾼 '다'에게 "얘야, 자꾸만 우기지 마라. 나는 이 황야에서 평생을 지냈단다. 넌 여기 온지 겨우 사흘밖엔 안 됐고. 그런데, 사흘밖에 안 된 네가 평생을 보낸 나보다 뭘 잘 안다고 그러니?"라고 말하였다. 이를 통해 파수꾼 '나'는 파수꾼 '다'가 이 일을 한지 얼마 안 되었다는 점을 들며 그의 말을 믿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앞부분 줄거리에서 파수꾼 '다'가 '이리 떼'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실을 편지에 써서 '촌장'에게 전달하였다고 하였다. 또 '전개-(가)'에서 파수꾼 '다'는 파수꾼 '나'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2 서술형 파수꾼 '다'는 망루에 올라갔다가 '이리 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큰 충격을 받는다. 아침 식사를 하겠냐는 파수꾼 '나'의 말에 지금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고 대답한 것은 '이리 떼'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평가 기준	확인 ☑
파수꾼 '다'가 '이리 떼'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았다고 썼다.	☐

03 이 글은 상징적인 소재들을 제시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 글에서 '망루'는 파수꾼들이 '이리 떼'가 오는지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이리 떼'가 거짓을 상징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망루'는 거짓 선전의 도구, 민중을 통제하기 위한 권력의 수단임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 '양철북'은 '망루'와 같이 거짓된 체제나 거짓 선전의 도구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② ⓑ '이리 떼'는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은 실제하지 않는 가공의 존재로, 거짓, 지배 이념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④ ⓓ '흰 구름'은 '이리 떼'의 실체로 진실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⑤ ⓔ '덫'은 '이리 떼'를 잡기 위한 것으로, 권력 유지를 위해 설치된 도구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04 파수꾼 '다'가 '이리 떼'가 없다는 진실을 편지에 적어 '촌장'에게 보낸다. 이로 인해 '촌장'이 파수꾼 '다'를 찾아오며 '촌장'과 파수꾼 '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 오답 풀이 | ①, ② 파수꾼 '다'가 '촌장'에게 보낸 편지로 인해 둘 사이의 갈등이 유발되므로 '편지'가 낭만적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인물 간의 유대감을 강화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이 작품은 1974년에 발표된 희곡으로 당대의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나타나지만, '편지'가 시대적 배경을 구체화하고 있지는 않다.
④ 이 글에서 '편지'는 파수꾼 '다'가 '이리 떼'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쓴 것으로, 파수꾼 '다'의 감정을 전달하는 데 초점이 있지 않다.

05 서술형 '촌장'은 파수꾼 '다'를 설득하며 함께 딸기를 따러 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권력자가 민중을 회유하기 위해 내세우는 대가로, 거짓을 통해 얻는 이득과 부당한 권력이 누리는 실리를 상징한다.

평가 기준	확인 ☑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소재를 '딸기'라고 이 글에서 찾아서 썼다.	☐

06 파수꾼 '다'의 편지를 받고 온 '촌장'은 파수꾼 '다'의 공포감을 유발하고 이익을 언급하며 파수꾼 '다'를 회유하는데,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속내와 달리 온화하고 신뢰감을 주는 '촌장'의 외양은 그의 위선적인 성격을 더욱 강조하는 효과를 지닌다. 따라서 ㉠을 통해 부각되는 '촌장'의 면모는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다름.'을 뜻하는 '표리부동(表裏不同)'이라는 한자 성어가 가장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② '역지사지(易地思之)'는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봄.'이라는 뜻이다.
③ '사필귀정(事必歸正)'은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이라는 뜻이다.
④ '동상이몽(同床異夢)'은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딴생각을 하고 있음을 이르는 말.'이라는 뜻이다.
⑤ '일거양득(一擧兩得)'은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익을 얻음.'이라는 뜻이다.

07 ⓔ는 '촌장'이 파수꾼 '다'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는 파수꾼 '다'가 진실을 알게 된 후 마음이 괴로워졌음을 표현한 것이다.
② ⓑ는 '촌장'이 파수꾼 '다'와 단둘이 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③ ⓒ는 파수꾼 '다'가 진실을 밝힌 것에 대한 불쾌한 심정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④ ⓓ는 '촌장'이 마을 사람들이 도끼까지 들고 올 거라는 부정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파수꾼 '다'의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08 수천 개의 쓸모없는 덫들을 보살피고 양철 북을 요란하게 두들긴 충직한 파수꾼들의 고귀한 희생을 헛되게 할 수 있겠냐고 한 것은 파수꾼 '다'가 아니라 '촌장'이다.

| 오답 풀이 | ①, ③ 파수꾼 '다'가 자신이 본 흰 구름이 아름답고 평화로웠다고 말한 것과 마을 사람들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도출할 수 있다.
④, ⑤ '촌장'이 사람들이 '이리 떼'에 대항하기 위해 단결했으며, 그것이 마을을 지켜 주는 질서를 만든 것이라 말한 것을 통해 도출할 수 있다.

09 '촌장'은 마을 사람들이 '이리 떼'에 대항하기 위해 단결하고 질서를 만들었다고 하며, 거짓으로 만들어진 경계심이 마을의 질서를 만들고 유지했다고 합리화하고 있다(ㄱ). 또 '이리 떼'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 주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하며 상식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는 독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ㄷ). 아울러 구름만을 고집하면 파수꾼의 희생도 허사가 되고 마을의 질서가 무너진다고 하며 진실이 밝혀졌을 때 생길 수 있는 상황을 왜곡하여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ㄹ).

| 오답 풀이 | ㄴ. '촌장'은 '나도 알고는 있지.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촌장'이 문제에 대한 잘못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0 서술형 '촌장'은 '이리 떼'라는 존재하지 않는 공포의 대상을 통해 마을을 통제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촌장'의 상징적인 의미를 '진실을 은폐'하거나 '시민(마을 사람들)을 통제'하는 '권력자'라는 내용이 담기도록 썼다.	☐

11 '촌장'이 말한 '거짓 놀이'는 사람들에게 '이리 떼'가 존재한다고 거짓말한 것을 의미한다. 실체도 없는 '이리 떼'를 파수꾼들이 감시하고, '이리 떼'가 왔다고 양철 북을 두들기면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 과정을 놀이에 빗대어 말한 것이다.

12 이 글의 '촌장'은 자신에게 불리한 행동을 하려는 파수꾼 '다'에게 격앙된 반응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침착하게 반응한다. 또한 파수꾼 '다'의 말에 수긍하는 척하며 교활한 말로 파수꾼 '다'를 회유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촌장'이 교활하고 위선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다.

13 이 글의 '촌장'은 파수꾼 '다'가 입을 손해를 들어 '다'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지 않다. '촌장'은 교묘한 말로 파수꾼 '다'를 회유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파수꾼 '다'가 오늘 흰 구름을 외치려는 것은 흰 구름을 믿지 못해서라는 것을 통해, '촌장'이 파수꾼 '다'의 의지를 꺾기 위해 진실을 믿지 못한다고 몰아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내일이 되면 파수꾼 '다'를 따라 흰 구름이라 외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통해, '촌장'이 파수꾼 '다'를 회유하기 위해 거짓 약속으로 조건을 제시하며 타협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자신이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싶어서 파수꾼 '다'가 오늘 흰 구름을 외치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파수꾼 '다'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의도가 작용했다고 확대하여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흰 구름의 첫날 살인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과장되게 표현하여 파수꾼 '다'의 불안감과 동정심을 자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은 '촌장'이 끔찍한 결과를 가정하여 파수꾼 '다'를 질책하자, 파수꾼 '다'가 화들짝 놀라며 한 말이다. 파수꾼 '다'의 입장에서는 '촌장'의 오해를 풀고, 진심을 전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거나 크고 뚜렷하게 대사를 해야 한다. 반면 상대방의 시선을 피하거나 우물거리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숨기거나 떳떳하지 못한 상황을 회피하고자 할 때 적절하다.

15 ⓐ에서 파수꾼 '다'는 진실을 오늘 외치겠다고 말하며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촌장'의 회유에 속아 ⓑ와 같이 말하게 된다.

16 파수꾼 '다'가 열이 나는 것은 간밤에 담요를 덮지 않아서 병이 난 것으로 진실을 지키기 위하여 아픈 척을 하는 것이 아니다. 또 '이리 떼'인지 아니면 흰 구름인지 파수꾼 '다'의 입을 통해 직접 들어 보자는 촌장의 말에 쓰러질 것 같은 걸음으로 망루를 향해 걸어가는데 이는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괴로움 때문으로, 아픈 척을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 오답 풀이 | ① '촌장'은 '이리 떼인지 아니면 흰 구름인지, 직접 이 아이의 입을 통하여 들어 봅시다.'라고 하며 파수꾼 '다'도 거짓말에 동참하게 하고 있다.
② 파수꾼 '나'는 비판적 사고 없이 끝까지 '촌장'의 말을 믿으며 순종하는 인물로, 파수꾼 '다'가 아픈 것이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파수꾼 '다'를 걱정하는 것에는 거짓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④ 파수꾼 '다'는 '이리 떼'가 없다고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쓰러질 듯 망루로 올라가고 망루 위에 올라간 뒤 긴 침묵을 가지는데 이는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 괴로워하고 갈등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⑤ '촌장'이 마을 사람들에게 하는 '이리 떼인지 아니면 흰 구름인지, 직접 이 아이의 입을 통하여 들어 봅시다.'라는 말을 통해 마을 사람들이 '이리 떼'의 정체에 대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몰려온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17 파수꾼 '나'는 '촌장'에게 순응하며 파수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다. 즉 파수꾼 '나'는 '촌장'의 음모를 알지 못하고 진실에 대한 의구심 없이 권력자를 따르는 하수인을 상징적으로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8 '촌장'은 파수꾼 '다'가 진실을 알리려고 하는 노력을 누구나 한 번씩 앓는 병이라고 말하며 진실을 추구하는 파수꾼 '다'의 순수한 마음을 젊은 시절의 혈기로 치부하고 있다.

19 ㉡은 관객들을 마을 사람들로 설정하여 극 중에 끌어들이는 장면이다. 앉아 있는 관객을 대상으로 '촌장'이 관객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관객이 무대에 올라 배우와 직접 소통하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몰려온 마을 사람들을 관객으로 설정한 것은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등장인물 수에 제약이 있는 희곡의 제약을 극복하게 한다.
③ 관객이 마을 사람의 입장이 되어 스스로 자신을 성찰할 수 있게 한다.
④, ⑤ '촌장'이 관객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은 관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극에 더 몰입할 수 있게 한다.

20 파수꾼 '다'는 결국 '촌장'의 회유에 넘어가 진실을 왜곡하고 만다. 파수꾼 '다'가 진실을 왜곡하는 부분은 망루에 올라가 '이리 떼다, 이리 떼! 이리 떼가 몰려온다!'라고 외치는 모습이다.

21 '대단원-(가)'는 진실을 밝히려는 갈등 상황이 진실이 은폐되는 것으로 종결되면서 막이 내리는 극의 대단원 부분이다.

| 오답 풀이 | ① 극의 배경과 등장인물이 제시되는 부분은 '발단'이다.
②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부분은 '전개'이다.
③ 갈등에 따른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는 부분은 '절정'이다.
④ 갈등의 균형이 깨지면서 사건 전개의 속도가 빨라지는 부분은 '하강'이다.

22 '촌장'은 진실을 알고 있는 파수꾼 '다'에게 황야에서 일생을 보내라고 하고 있다. 이는 파수꾼 '다'를 마을과 고립시켜 진실을 영원히 은폐하려는 것이다.

23 파수꾼 '다'는 진실을 밝히려고 하지만 결국 '촌장'의 꾐에 넘어가고 만다. 망루 위의 파수꾼이 "이리 떼다!"라고 하는 외침에 조용히 양철 북을 두드리는 파수꾼 '다'의 모습은 '촌장'의 권력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전락해 버린 것임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촌장'에 대한 설명이다.

③ 파수꾼 '다'는 진실을 알리려고 하였으나 '촌장'의 꾐에 회유되어 '촌장'의 권력을 유지하는 하수인으로 전락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④ 파수꾼 '다'는 알게 된 진실을 밝히려 하였으므로 진실을 끝까지 모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⑤ 파수꾼 '다'가 '촌장'의 권력을 유지하는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은 맞지만 진실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진실을 밝히려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24 서술형 이 글에서는 이러한 지배층의 횡포로 인한 파수꾼 '다'의 허무한 심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바람 부는 소리가 거칠게 들려온다', '바람 소리만이 더욱 거칠어진다.'와 같은 음향 효과를 사용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결말에서 음향 효과를 이용하여 비극성을 드러낸 부분을 찾아 썼다.	☐

꼭 필요한 쏙 모단원 평가 문제

본책 080~085쪽

01 ⑤ 02 ① 03 ④ 04 ② 05 ④ 06 ⑤ 07 ③ 08 ④ 09 ③ 10 ① 11 ⑤ 12 ④ 13 무대 위 등장인물 수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 14 ⑤ 15 ④ 16 ④ 17 파수꾼 '다'는 조용히 양철 북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18 ④ 19 ⑤ 20 ⑤ 21 ②

01 이 글은 극 갈래인 희곡으로,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특정 서술자의 시선으로 사건과 인물의 심리를 전달하는 것은 서사 갈래의 특성이다.

| 오답 풀이 | ①, ③ 희곡은 무대라는 공간 안에서 상연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한정된 공간인 무대에서 사건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시간과 공간 및 등장인물의 수에 제한을 받는다.

② 희곡은 인물의 성격과 의지가 빚어내는 극적 대립과 갈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④ 희곡은 모든 사건을 무대 위에서 배우의 행동을 통해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일처럼 현재화하여 보여 준다.

02 이 글은 진실이 은폐되고, 이를 밝히려는 시도조차 저지되는 사회를 비판하는 희곡으로, 우화적 기법과 상징성이 강한 인물들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촌장'은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는 권력자를, 파수꾼 '다'는 권력에 저항하여 진실을 밝히려고 하지만, 결국 지배자의 회유에 굴복하고 마는 나약한 지식인을 상징한다.

03 파수꾼 '다'가 '촌장'에게 쓴 편지를 운반인이 가져오는 과정에서 도중에 읽어 본 것이다. 파수꾼 '다'가 이 과정을 예상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이 글에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파수꾼 '다'가 '촌장'에게 사람들이 '이리 떼'가 몰려온다는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는 게 좋냐고 말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파수꾼 '나'가 '이리 떼'가 덫에 치여 있다는 '촌장'의 말에 드디어 잡는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파수꾼 '다'의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촌장님도 아시는군요?"를 통해 파수꾼 '다'는 그동안 '촌장'이 '이리 떼'가 없다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⑤ 지시문의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과 정중한 태도. 낮고 부드러운 음성'을 통해 '촌장'이 실제 성격과는 다른 온화하고 신뢰감을 주는 외양과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4 파수꾼 '다'가 본 '흰 구름'은 '이리 떼'의 정체이며 거짓에 가려졌던 진실을 의미한다.

| 오답 풀이 | ① '망루'는 민중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불러일으켜 그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거짓된 체제나 거짓 선전의 도구로 볼 수 있다.

③ '딸기'는 마을 사람들을 속여 얻는 부정한 이득으로 부당한 권력이 누리는 실리로 볼 수 있다.

④ '팻말'은 거짓 명분을 내세워 진실을 은폐하는 도구로 실리를 독차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⑤ '덫'은 이리 떼를 잡기 위한 것으로 권력 유지를 위해 설치된 도구로 볼 수 있다.

05 파수꾼 '다'가 쓴 편지의 내용은 '이리 떼는 없고, 흰 구름뿐.'이며, '운반인'은 이 내용을 그대로 마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였다.

| 오답 풀이 | ① (나)에서 '운반인'이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니는 말을 통해 편지에 쓰인 내용이 '이리 떼는 없고, 흰 구름뿐.'임을 알 수 있다.

② 파수꾼 '다'는 '이리 떼'가 없다는 진실을 알고 난 후 '촌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편지를 썼다.

③ '촌장'은 파수꾼 '다'가 보낸 편지를 꺼내 보이며,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고 말하고 있다.

⑤ (가)에서 '촌장'은 여기저기 덫이 깔려 있고 망루 위의 파수꾼이 외치는데도 딸기 따기에만 열중했던 옛 추억을 상기시켜 주는 편지를 받았다고 하였다.

06 이 글에서는 '해설자'가 '촌장'이 되어 등장한다. 이는 관객의 몰입을 방해하여 관객이 거리감을 가지고 극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하려는 극적 장치이다.

07 [A]에는 마을을 지키기 위해 '촌장'이 한 헌신의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④ '이리 떼'에 대항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단결하고, 질서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② 파수꾼들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⑤ 없는 걸 두려워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고 말하며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으니 거짓말이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다.

08 이 글은 '이리 떼', '흰 구름', '망루' 등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 소재를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이 글에서는 '이리 떼'의 실체를 알리는 문제를 두고 파수꾼 '다'와 '촌장'이 갈등하고 있으며, 이는 대화를 통해 드러난다.

② '촌장'이 혼잣말처럼 "그러나 잘될까? 흰 구름, 허공에 뜬 그것만 가지고 마을이 잘 유지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독백이 드러나 있지만, 이는 내적 갈등의 심화가 아니라 망루 위에 올라가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파수꾼 '다'에게 한 말이 거짓임을 드러내는 '촌장'의 속내이다.

③ 이 글에서 과거와 현재를 대비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드러내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이 글이 우화적 방식으로 현실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역사적 사실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 있지도 않다.

09 <보기>는 (다)의 일부를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각색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점을 사용하면 서술자는 작품 밖에서 인물의 심리나 사건 전개 등의 모든 것을 파악하며 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인공의 관점에서 사건을 전달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다)와 <보기>는 모두 '촌장', 파수꾼 '나', '마을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

② (다)의 '촌장'과 파수꾼 '나'가 한 말은 <보기>에서 일부 직접 인용의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④ 현재 시제로 사건을 표현하고 있는 (다)와 달리 <보기>에서는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⑤ (다)에서 '흠칫 놀라며'라는 지시문으로 파수꾼 '나'의 속마음이 나타난 것과 달리 <보기>에서는 '파수꾼 '나'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는 놀라서'라고 하여 서술자에 의해 인물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10 파수꾼 '가'가 '이리 떼'가 나타났다고 소리를 지르면, 파수꾼 '나'는 '양철 북'을 두드리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즉, '촌장'의 거짓말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촌장'에게 동조하는 인물이므로 중립적 입장에서 갈등을 중재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② '이리 떼'의 정체가 '흰 구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파수꾼 '다'는 '촌장'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이리 떼'의 정체를 알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촌장'은 마을의 질서를 위해 '이리 떼'의 정체를 숨기는 것이 좋다며 반대한다.

③ '촌장'의 계략에 넘어간 파수꾼 '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됨으로써 둘 사이의 갈등은 해소된다. (나)에는 '촌장'의 회유에 넘어가는 파수꾼 '다'의 모습이 나타난다.

④ '촌장'은 오늘 일을 자신에게 맡긴다면 내일은 파수꾼 '다'를 따라 '흰 구름'이라 외칠 것이라며 파수꾼 '다'에게 조건적인 타협안을 제시하며 설득하고 있다.

⑤ 파수꾼 '다'는 내일은 자신과 같이 '흰 구름'이라 외칠 것이라는 '촌장'의 약속을 믿고, 자신이 진실을 밝힐 경우 '촌장'이 입게 될 피해, 즉 마을 사람들의 보복으로 '촌장'이 죽게 될 것을 염려하여 '촌장'의 설득에 회유된다.

11 '촌장'은 [A]에서 자신이 처할 수 있는 상황을 극단적으로 묘사하여 파수꾼 '다'의 불안감과 동정심을 자극하고 있다.

12 '촌장'이 진실을 숨기려는 의도를 가지고 파수꾼 '다'를 회유하는 부분이므로 ㉠에는 '은밀한 목소리로'라는 지시문이 가장 적절하다. '은밀하다'는 '숨어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다.'라는 뜻이다.

13 서술형 <보기>는 희곡의 특성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제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작품은 관객들을 '마을 사람들'로 설정하여 많은 수의 사람들을 등장시킬 수 없는 극의 제약을 극복하고 있는데 ㉡에서 이러한 특성이 드러난다.

평가 기준	확인 ☑
등장인물 수의 제약이 있는 희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

14 ⓔ에서 파수꾼 '다'는 불안감과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촌장'의 의도대로 반응을 보인 것이므로, '촌장'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야 한다는 연출자의 지시는 적절하지 않다.

15 이 글에서는 파수꾼 '다'가 양철 북을 두드리는 장면으로 막을 내리고 있으며, 이는 촌장의 권력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전락해 버린 모습을 드러낸다. 따라서 등장인물 모두가 나와 북을 두드려야 한다는 연출자의 계획은 글의 내용에 비춰볼 때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바람 소리, 북 소리 등을 통해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사회의 비극적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② 양철 북은 파수꾼 '나'와 '다'가 모두 두드리고 있고 북소리도 함께 들려야 하므로 소리가 잘 나는 양철 북을 소품으로 준비해야 한다.
③ 망루는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곳이므로 무대 장치로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망루를 설치해야 한다.
⑤ 파수꾼 '다'는 진실을 밝히는 문제로 내면의 갈등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연기하는 배우는 내면의 갈등을 보여 주어야 한다.

16 '운반인'이 '이리 떼'가 없다는 진실을 말함으로써 마을 사람들이 몰려 온 것이므로 '운반인'을 진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는 권력층의 조력자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7 서술형 파수꾼 '다'가 진실을 모두 알면서도 양철 북을 두드리는 모습은 촌장의 권력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전락하였음을 보여 준다.

평가 기준	확인 ☑
'파수꾼 '다'는 조용히 양철 북을 두드리기 시작한다.'라는 문장을 이 글에서 찾아 썼다.	☐

18 이 작품에서는 관객을 등장인물로 설정함으로써 회피나 무관심 등으로 잘못된 권력이 유지되는 현실을 관객이 자각할 수 있게 하고 있다.

19 '촌장'이 파수꾼 '다'에게 마을에 오지 말라고 한 것은 진실을 알고 있는 파수꾼 '다'를 마을과 격리시켜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이다. '촌장'은 이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20 파수꾼 '다'는 '촌장'의 회유에 속아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리 떼'가 있다고 외친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졌고, 이미 거짓을 말했기 때문에 파수꾼 '다'는 '촌장'에게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굴복하게 된 것이다.

21 파수꾼 '다'는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황야에 고립되고 만다. 거친 바람 소리만 들리도록 한 것은 진실이 은폐된 현실의 비극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고난도 업 오단원 심화 문제

본책 086~087쪽

01 ④ **02** ⑤ **03** 파수꾼 '나'는 파수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촌장'의 음모를 알지 못하는 권력의 하수인이다. **04** ④ **05** ①

01 이 글에서 '촌장'은 충직한 파수꾼에게 미안하다고 하였으나, 이내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되다고만 할 수 없으며,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것이라고 말하며 거짓을 합리화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파수꾼 '다'는 '이리 떼'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하고, '촌장'은 이를 막으려고 한다. 즉 '이리 떼'의 존재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문제가 갈등의 원인이다.
② '촌장'은 파수꾼 '다'가 진실을 말하지 않도록 내일 진실을 외치겠다며 거짓으로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다.
③ '촌장'은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해칠 것이라고 말하며 파수꾼 '다'를 설득하고 있다.
⑤ '촌장'의 계략에 넘어간 파수꾼 '다'가 사람들 앞에서 '이리 떼'가 있다고 거짓으로 외치면서 갈등이 종결된다.

02 이 글은 '촌장'의 계략으로 '이리 떼'가 없다는 진실이 은폐되기 때문에 거짓말의 주체인 '촌장'은 신뢰를 잃지 않지만, <보기>의 '양치기 소년'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는다.

03 서술형 [A]에서 파수꾼 '나'는 파수꾼 '다'에게 망루에 올라가 자신이 파수꾼이라는 것을 자랑하라고 당부한다. 이를 통해 파수꾼 '나'가 파수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끝까지 '촌장'의 음모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파수꾼 '나'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내용을 썼다.	☐
파수꾼 '나'가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내용을 썼다.	☐

04 ㉠은 거짓으로 조장된 공포, ㉡은 평화로운 진실을 상징한다. 파수꾼 '다'는 ㉡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은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여긴다고 보아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파수꾼 '다'와 '촌장'은 모두 '이리 떼'가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② 파수꾼 '다'와 '촌장'은 모두 '이리 떼'는 없고 '흰 구름'만 존재한다는 진실을 알고 있다.
③ 파수꾼 '다'는 '흰 구름'을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촌장'은 '흰 구름'은 불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
⑤ '촌장'은 마을의 안정을 위해서는 '흰 구름'이 아닌 '이리 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05 ⓐ는 진실의 왜곡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부당한 이득을 제시하여 진실을 밝히려 하는 소수를 봉쇄하려는 권력자의 교활한 행동이다.

| 오답 풀이 | ② ⓑ는 '촌장'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권력자임을 암시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③ ⓒ는 파수꾼 '다'를 위로하는 척하면서 진실을 은폐하여 민중을 통제하려는 권력자의 위선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④ ⓓ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폭로할 것인지, 권력이 강요되는 지배 이념을 따를 것인지 고민하는 파수꾼 '다'의 행동이다.
⑤ ⓔ는 권력으로 무장한 거짓된 지배 이념을 믿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폭시키는 어리석은 민중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04 선의를 믿는 것의 어려움

문제로 확인 본책 090~093쪽

01 ③ 02 ② 03 일종의 모험 04 ⑤ 05 ④ 06 ④ 07 ③ 08 ① 09 ⑤

01 이 글은 교술 갈래에 속하는 수필로, 수필의 서술자는 작가 자신이다. 허구적인 서술자가 등장하는 것은 소설과 같은 서사 갈래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② 수필은 형식과 표현이 자유롭고 작가의 개인적인 체험이나 생각, 정서를 직접 드러내기 때문에 문학 갈래 중에서 작가의 개성과 가치관이 가장 잘 드러난다.
④ 수필은 개방적인 글로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고 누구나 쓸 수 있다.
⑤ 수필은 작가가 경험하고 생각한 내용과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이나 통찰을 글로 표현한 문학 갈래이다.

02 1에서 작가는 여간해서는 약을 지어 주지 않는 한의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선의를 믿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음을 깨닫고 있다.

03 서술형 작가는 누군가의 선의를 믿는 일이 어쩌면 있을지도 모를 상대의 악의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라고 하며 이를 '일종의 모험'이라고 비유하였다. 이는 불신에 찬 사회에서 누군가를 믿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보기>에서 설명한 표현을 이 글에서 찾아서 썼다.	☐
2어절로 썼다.	☐

04 ㉠은 남을 속이는 경우가 만연해 타인에게 선의가 있음을 선뜻 믿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①~④는 모두 선의를 가장해 신뢰를 얻고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에 해당하나 ⑤는 불법이나 비윤리적 행위가 아닌,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업의 책임 있는 조치에 해당한다.

05 ㉡은 사건이나 현상을 표면에 드러난 것 그대로 믿지 않고 숨겨진 의도나 배후 세력의 조작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의미한다. 상대방의 친절에 대해 그 선의를 의심하는 ④가 이와 관련이 있다.

06 이 글의 작가는 선생님의 말에서 선의를 듣는 조카를 통해 선의를 믿는 힘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으므로, 반어적 표현으로 부정적 현실을 강조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이 글에서 작가는 조카와 있었던 일을 회상하고 있다.
② 이 글에서 작가는 조카와 나눈 대화를 인용하고 있다.
③ 조카가 선생님이랑 나눈 이야기를 요약하여 나열하고 있다.
⑤ '우리에게도 분명 있었을 그 힘을 우리는 언제부터 잃어버리고 만 걸까'라는 부분에서 의문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07 이 글에서 작가는 자신의 조카가 선생님과 함께 버스를 타고 오며 혼이 난 것에 가까운 지적과 당부를 들었는데도 즐거워했다고 하였다.

08 '나'는 '유치원 선생님'이 조카에게 한 이야기는 지적과 당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조카는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왔다는 것에 즐거워한다.

09 작가는 유치원 선생님께 지적과 당부를 들은 조카가 선생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 오며 이야기를 나눈 것에 기뻐한 것을 보며, 조카가 겉으로 드러난 말 대신 선생님의 선의를 들으며 왔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한다. 작가는 조카가 쥐고 있는 세상이 내 것보다 크고 단단하게 느껴졌다고 하여 타인의 선의를 믿는 태도의 소중함과 선의를 믿는 힘의 가치를 깨달았음을 제시하고 있다.

꼭집게 쏙 오단원 평가 문제 본책 094~095쪽

01 ⑤ 02 ② 03 ⑤ 04 불신과 불의가 모든 행동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으로, 누군가의 선의를 믿는 일이 믿음으로써 입게 될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05 ②

01 이 글은 정해진 형식이 없고 표현이 자유로워서 작가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수필이다.

02 이 글의 작가는 다니는 한의원에 대해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타인의 선의를 믿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음을 알게 되고, 조카와 대화를 나누며 조카에게는 타인의 선의를 믿는 힘이 있고, 그런 힘을 지닌 조카의 세상이 단단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작가의 경험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할 때 작가는 타인의 선

의를 믿으며 서로 신뢰를 공유하는 삶을 바람직한 삶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나'는 우리의 불신을 그저 탓할 수만도 없지만 탓할 수 없다고 해서 옳거나 정당하다는 뜻은 아니라고 하였다.

| 오답 풀이 | ① '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요즘 그런 선의는 아주 드문 것이 되어 쉽게 떠올릴 수 없고 상상하기도 힘드니 믿기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
② 작가는 약을 지어 주지 않는 한의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선의를 믿지 않는 사회의 세태를 떠올리고 있으므로, 흥미롭다는 말에는 작가의 부정적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나'는 여간해서는 약을 지어 주지 않는 한의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우리 사회가 선의를 믿지 못하게 되었음을 깨닫는다.
④ '나'는 약을 지어 주지 않는 것이 한의원 운영에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지만, 찾아온 사람에게는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도록 한 것이니 그것을 어떤 선의라고 볼 수 있지 않겠냐고 하였다.

04 서술형 이 글에서는 타인에게 선의가 있음을 선뜻 믿기에는 세상이 나쁜 게 사실이라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음모론적 시각이 현실 판단의 기준이 되고, 불신과 불의가 모든 행동의 우선순위가 된다고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이 의미하는 사회 현상을, '불신'과 '불의'라는 의미가 담기도록 썼다.	☐
㉡의 이유를 피해나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담기도록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5 이 글은 수필로 작가의 경험을 통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사례를 제시하여 타인의 선의를 잘 믿지 않는 세태, 타인의 선의를 선뜻 믿기 어려운 사회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으나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아니다.

고난도 업 모단원 심화 문제

본책 096~097쪽

01 ③ **02** ⑤ **03** ⑤ **04** ㉠은 약을 잘 짓지 않는 한의원의 선의를 믿지 않는 것으로 보아 타인의 선의를 신뢰하지 않고, ㉡은 선생님께 지적과 당부를 들었지만 선생님과 이야기 나눈 것이라 생각하고 즐거워한 것으로 보아 타인의 선의를 신뢰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 **05** ③ **06** ⑤

01 (가)에는 '아무리 그렇게 표현해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방법이 없지 않은가.'에서, (나)에는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에서 설의적 표현을 찾아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가)와 (나) 모두 설의적 표현은 나타나지만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
② (가)와 (나) 모두 우화적 방식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나)는 유추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④ (가)와 (나)는 모두 대화하는 듯한 어조가 나타나지 않으며 이를 통해 경험을 친근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
⑤ (가)에서는 조카의 말 등 인물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지만 (나)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02 (가)의 작가는 타인의 선의를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을, (나)의 작자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고치고 개혁하는 세상을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있다.

03 (가)와 (나)에는 사회 제도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가)는 지인들과 대화를 나눈 경험을 통해 선의가 드문 것이 되었으며 이를 믿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다는 깨달음을 얻고 있다.
② (가)는 조카와 대화를 나눈 경험을 통해 사람의 선의를 신뢰하는 바람직한 삶의 방향에 대해 깨닫고 있다.
③ (나)는 집을 고친 경험을 통해 사람의 잘못도 빨리 고쳐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고 있다.
④ (나)는 사람의 잘못을 빨리 고쳐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은 후 나라의 정사도 이와 마찬가지라며 깨달음을 확장하고 있다.

04 서술형 ㉠의 사람들 중에서 약을 잘 지어 주지 않는 한의원의 선의를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점에서 타인의 선의를 믿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의 조카는 선생님의 지적과 당부를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받아들인 데서 타인의 선의를 믿는 마음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이 타인의 선의를 신뢰하지 않음을 근거를 들어 썼다.	☐
㉡이 타인의 선의를 신뢰하는 마음을 지녔음을 근거를 들어 썼다.	☐

05 작가는 조카가 쥐고 있는 세상이 내 것보다 크고 단단하게 느껴졌다고 하여 선의를 믿는 힘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다.

06 [A]에서는 유추의 방법(다른 대상과의 공통점을 근거로 미루어 짐작하는 방식으로, 대상을 다른 범주에 속한 대상과 연관 지어 설명함.)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다. ⑤에도 '우리 개구리와 황소개구리'의 관계를 '영어와 우리말의 관계'에 연결하여 설명하는 유추가 사용되었다.

대단원 평가 문제

본책 098~105쪽

01 ⑤ **02** ① **03** ③ **04** ⑤ **05** '나'는 조카와의 경험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타인의 선의를 신뢰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자신의 깨달음을 말하고자 하였다. **06** ④ **07** ③ **08** ⑤ **09** ① **10** '음치들의 합창'을 통해 과거에 자신이 받았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11** ⑤ **12** ⑤ **13** ⑤ **14** ⑤ **15** 바람 소리 **16** ④ **17** ④ **18** ① **19** ② **20** ② **21** ③ **22** ④ **23** ④

01 (가)는 서정 갈래로 화자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작가가 설정한 대리인이다. (나)는 교술 갈래로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술하므로 서술의 주체인 '나'는 작가 자신이다.

02 (가)의 '나'는 화자이고, (나)의 '나'는 작가 자신이다. (가)에서는 거미 가족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며, (나)에서는 작가의 현대 사회에 대한 깨달음이 드러난다.

03 이 시에서 화자가 거미를 버리는 것은 거미 가족이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는 것으로, 이를 거미 가족(우리 민족)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4 이 시에서는 의인법, 상징과 같은 여러 표현 방법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지만, 역설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 ① 이 시에는 시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과 같은 감각적 심상의 시어들이 활용되었다.
② 의인법을 사용하여 사람이 아닌 거미를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③ '차디찬 밤'과 같이 함축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사용하였다.
④ 운율을 형성하는 '~다'와 같은 종결 표현을 사용하여 시의 정서와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05 서술형 (나)의 작가인 '나'가 조카와 있었던 일을 서술한 이유는 조카가 지니고 있는 타인의 선의를 신뢰할 수 있는 힘이 불신이 만연한 현대 사회에 필요하다는 자신의 깨달음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작가가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 드러나도록 썼다.	☐
작가가 조카와의 경험을 서술한 이유를 작가의 깨달음과 연결지어 썼다.	☐

06 ㉠은 '무척 적은 새끼 거미'를 보드러운 종이에 받으려는 염려와 배려의 마음을, ㉡은 타인의 선의를 믿는 힘의 가치를 조카의 손을 통해 표현한 것이다.

07 이 글은 주변 인물인 '나'가 중심인물인 '엇박자 D'의 모습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서술한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이다.

| 오답 풀이 | ①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중심인물인 '엇박자 D'는 사건에 개입하고 있지만 서술자가 아니다.
② 서술자는 중심인물이 아닌 주변 인물인 '나'로, '나'는 중심인물과 관련된 과거의 사건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④, ⑤ 이 글의 서술자는 '엇박자 D'의 친구인 '나'로 작품에 등장하고 있고, 관찰자로서 인물과 사건을 관찰하여 전달하고 있다. 모든 인물의 내면과 처지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8 이 글에서는 '나', '엇박자 D', 합창단 친구들과 같이 과거와 현재에 중첩되는 인물들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사건이 연관성을 갖고 제시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이 글에는 빈번한 장면 전환이 드러나지 않고, 긴박한 분위기도 드러나지 않는다.
② 이 글은 한국의 현대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대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③ 이 글에 '엇박자 D'가 과거 '음악 선생'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나타나 있으나 이는 '나'의 서술을 통해 회상되고 있으며 과감한 생략과 비약을 통해 나타나고 있지 않다.
④ 이 글에서 과거와 현재가 나타나는 것은 맞지만, 인물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09 공연에 온 친구들이 입만 벙긋거리며 립싱크를 한 것은 음치에 대한 고정 관념과 편견을 극복한 '엇박자 D'의 모습에 예의를 표하는 것이자 다름과 차이를 이해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② '음악 선생'이 '엇박자 D'에게 립싱크를 강요한 것은 모두가 같은 목소리로 합창을 해야 한다는 획일성을 강요한 것이다.
③ '엇박자 D'는 '음악 선생'으로부터 합창에서 립싱크를 하라고 강요받는데 이는 '엇박자 D'의 개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서로 음이 다르지만 화음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감동을 주는 '엇박자 D'가 준비한 공연을 통해 '엇박자 D'가 음치에 대한 편견과 고정 관념을 깨뜨리고, 음치들의 노래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공연을 준비했음을 알 수 있다.
⑤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이 작품에서 '엇박자 D'가 이름이 아니라 박치이거나 음치인 점이 부각되는 '엇박자 D'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것은 그가 다름과 차이를 존중받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0 서술형 <보기>는 과거의 상처를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치유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엇박자 D'는 과거의 합창에서 '음악 선생'에게 받았던 상처를 '음치들의 합창'이라는 긍정적인 경험으로 치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엇박자 D'의 과거 경험과 연결지어 썼다.	☐

11 (나)를 통해 '더블더빙' 연주의 엇박자가 오히려 관객들에게 더 큰 재미를 선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나'는 고등학교 시절 '엇박자 D'의 엇박자 합창 역시 그 나름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느껴졌기에 '더블더빙'의 연주가 '엇박자 D'에게 바치는 노래 같다고 생각한 것이다.

12 '엇박자 D'가 공연에서 들려준 음치들의 합창은 자신만의 박자와 음을 내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합창이라는 '엇박자 D'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것으로, 모두가 똑같은 박자의 음을 맞추는 것이 합창이라는 20년 전의 '음악 선생'이 생각한 합창과는 다른 것이다.

13 운반인은 파수꾼 '다'가 '촌장'에게 보낸 편지를 도중에서 읽고 그 내용을 마을 사람들에게 폭로한 것이지 '촌장'에게 고발한 것이 아니다.

14 <보기>는 작가가 「파수꾼」에서 '이리 떼'가 있다는 거짓 소문으로 마을을 지배하고 있는 '촌장'의 모습을 통해 1970년대의 사회적 현실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 글을 감상할 때, 파수꾼 '다'는 권력에 저항하지만 결국 굴복하는 당대의 나약한 지식인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망루'와 '양철 북'은 '이리 떼'의 존재를 마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며 민중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② <보기>에 따르면 '촌장'은 독재 정권을 유지하려던 권력자로 볼 수 있다.
③ <보기>에 따르면 '이리 떼'는 독재 권력이 체제 유지를 위해 꾸며 낸 공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④ <보기>에 따르면 마을 사람들은 진실을 알지 못하고 통제당하던 시민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15 서술형 거칠게 들리는 '바람 소리'는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는 진실이 통하지 않는 사회의 비극과 파수꾼 '다'가 느끼는 좌절감 혹은 무력감을 음향 효과를 통해 드러낸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바람 소리'라고 썼다.	☐

16 '딸기'는 권력자가 민중의 공감을 얻기 위해 언급하는 회유책이자 진실이 왜곡되고 은폐된 곳에서 자라나는 특권과 부당한 대가를 의미한다. 또, '팻말'은 '딸기'로 상징되는 실리를 독차지하기 위해 내세운 거짓 명분이자 수단이다.

17 ㉠에서 '촌장'은 관객을 향하여 이야기를 함으로써 관객을 극에 참여시키고 있다. 이는 무대 위 등장인물 수의 제약을 극복하고 관객에게 회피나 무관심 등으로 잘못된 권력이 유지되는 현실을 자각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18 '촌장'은 진실을 알고 있는 파수꾼 '다'를 마을과 격리시키기 위해 황야에서 일생을 보내라고 말한다. 즉 '촌장'은 파수꾼 '다'를 격리시키면서 진실을 은폐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19 (가)는 서정 갈래인 시로, 운율이 느껴지는 언어로 주제를 형상화 한다. 하지만 (나)는 서사 갈래인 소설로 운율이 느껴지는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가)는 서정 갈래인 시로 작품 속 '나'는 작가가 설정한 화자이고, (라)는 교술 갈래인 수필로 작품 속 '나'는 작가 자신이다.
③ (나)는 소설, (다)는 희곡으로 (나)와 (다)는 인물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④ (다)는 희곡으로 (나)의 소설과 달리 사건을 현재화하여 표현한다.
⑤ (라)는 수필로 (나)의 소설, (다)의 희곡과 달리 작가의 직접적인 경험을 솔직하게 풀어낸다.

20 2연에서 화자가 '큰 거미'를 쓸어 문밖으로 버리는 것은 가족인 '거미 새끼'를 만나기를 바라며 한 행동으로, <보기>와 관련지어 보면, 우리 민족의 가족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21 언어 공동체는 지역, 세대, 성, 문화 등에 의해 다양하게 구성되며, 한 사람이 여러 언어 공동체에 동시에 소속될 수 있다.

22 '나'와 친구들이 노래에 맞춰 립싱크를 하는 것은 다름과 개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표현하고 음치에 대한 편견을 극복한 '엇박자 D'에게 예의를 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3 (다)의 ⓐ는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거짓으로 만들어 낸 공포의 대상이다. (라)의 ⓑ는 타인의 선의를 신뢰하는 조카의 마음이 담긴 것으로, 상대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한다.

3. 일상을 보는 예리한 눈

01 투표를 안 해도 될까

문제로 확인 본책 110~115쪽

01 ② 02 ① 03 ⑤ 04 민주주의 체제가 위태로워지고 민주주의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 정부와 정치인들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워진다. 05 ③ 06 ③ 07 ④ 08 ③ 09 ④ 10 ② 11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여러 계층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12 ④

01 이 글은 여러 가지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논설문이다. 필자는 투표를 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근거로 들어 투표 참여가 필요하다는 자신의 주장을 논증하고 있다.

02 필자는 기권은 적극적인 정치적 표현 행위이자 권리라는 프랑스 기권당의 주장에 대해, '과연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며 이에 대해 이어질 논제를 제시하고 있다.

03 '본론 1'에서 필자는 투표율이 낮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근거로 들며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는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 이유로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여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04 서술형 '본론 1 - (다)'에서는 튀니지의 총선 투표율이 11.2퍼센트에 그쳤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투표율이 낮게 나올 경우 민주주의 체제가 위태로워지고 이 투표로 당선된 정부와 정치인들이 과연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민주주의 체제가 위태로워지고 민주주의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썼다.	☐
낮은 투표율로 당선된 정부와 정치인들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썼다.	☐

05 필자는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이 없다면 투표를 안 해도 되지 않는가?'라는 예상 반론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반박을 통해 논지를 강화하고 있다.

06 이 글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정당에 가입하라고 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투표를 하기 위해 꼭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이 있을 필요는 없다. 지지하지 않더라도 공약을 비교해 보거나 자신의 목소리를 더 잘 낼 수 있는 후보자나 정당을 찾아 투표하는 것이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07 필자는 투표 한 번으로 내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지만, 투표를 하지 않으면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08 ㉠의 '연구 결과'는 말러 교수의 연구 결과로, 투표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에 개입하여 투표가 소득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내용이므로 투표의 긍정적 영향을 보여 준다.

09 이 글은 귀납적 논증 방법을 활용하여 글을 전개하고 있다. 귀납적 논증 방법은 개별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보편적인 주장을 이끌어 내며, 전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지식을 결론으로 삼기 때문에 지식을 확장할 수 있다. ⓐ와 ⓓ는 연역적 논증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참고 자료

논증 방법

귀납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주장을 이끌어 내는 논증 방법
연역	일반적인 사실을 전제로 하여 개별적인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 내는 논증 방법
유추	두 대상이 비슷하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다른 점에서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논증 방법

10 예시는 예를 들어 보인다는 것으로 글에서는 일반적으로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는 본론이나 가운데 부분에서 다루어진다. 이 글에서도 결론 부분에서는 필자가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을 뿐 예시를 다루고 있지는 않다.

11 서술형 투표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행위로 투표를 해야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결론 - (가)'의 내용을 참고하여 썼다.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다.	☐

12 핵심 문장이나 주장이 나오면 바로 앞이나 뒤에 그와 관련한 내용이 나온다. ㉠에 쓰인 연결 어미 '-다면'은 어떠한 사실을 가정하여 조건으로 삼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바로 뒤에 결과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올 것임을 알 수 있다.

꼭집게 쏙 오단원 평가 문제

본책 116~119쪽

01 ② **02** ⑤ **03** ⑤ **04** (라),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이 없다면 투표를 안 해도 되지 않는가? **05** ② **06** ② **07** ① **08**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만 전달되고 반영되어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 **09** ③ **10** 이제 투표로 세상을 향해 힘껏 소리쳐 보자. **11** ⑤ **12** ② **13** ④

01 이 글은 어떤 주제에 관하여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을 체계적으로 밝혀 쓰는 논설문으로, 필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이유와 근거가 제시되어 있다.

| 오답 풀이 | ① 어떤 인물의 생애와 업적, 언행, 성품 등을 사실에 바탕하여 기록한 글로 감동을 주는 글의 갈래는 전기문이다.
③ 어떤 사물의 이치나 현상, 지식 등에 대하여 필자가 알고 있는 바를 쉽게 풀이하여 독자에게 이를 이해시키고자 하는 글인 설명문에 대한 설명이다.
④ 작가의 경험이나 사상 등을 형식적인 구애 없이 산문 형식으로 쓴 글인 수필에 대한 설명이다.
⑤ 시, 소설, 감상문 등 다양한 갈래에서 여러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작가의 감상을 드러낼 수 있다.

02 필자는 (다)에서 '투표에서 기권을 인정하는 것'과 '투표하지 않은 권리'는 다른 것이라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필자는 (나)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연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있을까?'나 (마)의 '그들의 주장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와 같이 독자에게 질문을 던져 흥미를 유발하고, 이어서 그에 대한 답을 밝히는 방식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다.
② (가)에서는 브라질 시민 2,84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의 결과를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
③ (가)에서는 의무 투표제를 실시하는 브라질에서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를 살펴보며 글을 시작하고 있다.
④ (나)에서는 프랑스 기권당이 기권 표를 유효 표로 분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03 필자는 (다)에서 11.2퍼센트라는 매우 낮은 투표율이 나온 아프리카 튀니지의 총선 사례를 예로 들어,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에 민주주의 체제가 어떻게 위태로워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04 서술형 필자는 자신의 주장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내놓을 수 있는 주장(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이 없다면 투표를 안 해도 되지 않는가?)을 미리 예상하고 이를 재반박함으로써,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자신의 논지를 강화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보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속한 문단의 기호를 '(라)'라고 썼다.	☐
예상 반론을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이 없다면 투표를 안 해도 되지 않는가?'라고 썼다.	☐

05 <보기>에는 프랑스의 2002년 대선 1차 투표 당시 유권자들의 무관심으로 투표율이 낮게 나오자 극단적인 색채를 지닌 정치인이 결선에 진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이를 (라)에서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며 기권을 하면 결국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의 통치를 받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게 된다는 내용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여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에 향후 벌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보여 줄 수 있다.

06 이 글에는 필자의 주장에 따른 이유 및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그 타당성을 살펴보면서 읽어야 한다(ㄷ, ㅁ). 또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반박을 할 수도 있으므로 논리적인 관계가 적절한지 살펴본다(ㄱ).

| 오답 풀이 | ㄴ. 필자의 주장이 모든 문단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
ㄹ. 필자는 주장을 펼치기에 가장 적절한 논증 방법을 선택한다. 이때 하나의 논증 방법이 선택될 수도 있고, 여러 논증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07 (가)에서는 다양한 계층에서 투표를 하여 투표율이 높은 국가는 정부가 여러 계층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정부가 사회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투표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② (나)에서는 우리나라 21대 총선의 최종 투표율이 높아진 데에는 선거 연령을 낮춘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고 있다.
③ (다)에서는 청소년 유권자가 생기자 청소년을 위한 공약이 생기는 예시를 보여 주며 투표를 하면 사회가 변화한다고 말하고 있다.
④ (라)에서는 올바른 정치와 국민을 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표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투표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⑤ (마)에서 필자는 독자에게 투표의 가치를 깨닫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표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08 서술형 주장은 어떤 문제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이유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관적 요인을, 근거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말한다.

평가 기준	확인 ☑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만 전달되고 반영되어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내용을 썼다.	☐

참고 자료

논증 요소

주장	어떤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
이유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관적 요인
근거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예상 반론과 그에 대한 반박	주장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과 그 반론에 대한 반박

09 '한 표의 가치를 깨닫고 이를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다)에서 18세로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서 각 정당이 청소년의 마음을 잡으려고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공약을 내놓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10 서술형 (마)에서 필자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투표의 가치를 말하며,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자는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필자는 투표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데 동참하자며 독자에게 투표에 참여할 것을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권유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마)에서 정확한 문장을 찾아 썼다.	☐
비유적 표현의 의미를 파악하고 썼다.	☐

11 대표적인 논증 방법으로는 귀납, 연역, 유비 추리 등이 있다. 이 글에서는 다양한 나라의 사례를 제시한 후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으므로 귀납의 논증 방법이 사용되었다.

12 주장의 내용으로 보아 이 광고문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공익 광고는 기업이나 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말한다. 이 광고는 공익 광고 협의회에서 제작한 공익 광고에 해당한다.

③ 이 광고의 왼쪽 그림 일기의 '목줄을 안해도'라는 표현과 '목줄 착용,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의 시작입니다.'라는 문구로 보아, 반려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광고임을 알 수 있다.

④ 이 광고는 반려견이 주인에게는 귀여운 동물이지만,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을 만나게 되는 상대의 입장에서는 맹수처럼 보일 수 있음을 이유로 들어 그림 일기 형식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⑤ 이 광고의 '개물림 사고 연간 2,000건 이상 발생'이라는 문구로 보아 반려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논증을 재구성할 때에는 필자의 주장 및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를 찾아 논증 과정이 논리적이고 타당한지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만의 관점을 세워서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 오답 풀이 | ㄱ. 논증을 구성할 때는 자신만의 관점을 세울 수 있으므로 필자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다.

ㄹ. 필자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제시해야지 과장하거나 축소, 확대하는 것은 쓰기 윤리에 어긋난다.

고난도 UP 오단원 심화 문제

본책 120~121쪽

01 ⑤ **02** ③ **03** 귀납,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주장을 이끌어 내는 방법이다. **04** ③ **05** ④ **06** ⑤

01 (다)에서 투표를 해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며 기권을 선택하기보다 자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투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마)에서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가장 직접적인 행위가 투표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다)에서 투표율이 높은 국가의 정부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부 계층이 아닌 여러 계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게 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라)에서 18세로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서 각 정당이 청소년의 마음을 잡으려고 청소년 맞춤형 공약을 내놓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마)에서 만약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02 이 글에서 필자는 투표의 가치를 깨닫고, 투표에 참여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므로 투표로 가치를 실현하고, 우리가 지닌 투표권의 가치와 이유에 대해 제시한 ③이 가장 적절한 표제와 부제라고 할 수 있다.

03 서술형 이 글에서 사용된 논증 방법은 귀납이다. 귀납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주장을 이끌어 내는 논증 방법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논증 방법을 '귀납'이라고 썼다.	☐
귀납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주장을 이끌어 내는 논증 방법이라고 썼다.	☐

04 <보기>의 기준에 따르면, (나)의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구체적인 수치 및 조사 방법 등이 제시되지 않아 근거로 다소 미흡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필자의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05 <보기>에서는 투표를 하지 않으면 세상은 나아지지 않는다며 유권자 의식 조사 결과를 반박하였고, '말러 교수'의 연구 결과를 추가 사례로 제시하여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06 일상생활에서도 상대방을 설득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이유와 근거를 조리 있게 구성하면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

02 매체가 비추는 세계

문제로 확인

본책 124~127쪽

01 ① **02** ③ **03** ② **04** 인간이 기계처럼 취급되는 현실
05 ⑤ **06** ④ **07** ㉠: 환경 보호, ㉡: 마케팅 수단(그린 워싱)

01 영화 「모던 타임즈」가 제작될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은 노동자들에게 반복적이고 강도 높은 노동을 요구하며 그들을 기계처럼 취급하던 때로, 노동자들의 인간적인 측면이 무시되었다. 영화 「모던 타임즈」는 이러한 현실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

02 사회적 의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를 비판적으로 감상하려면 영화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맥락을 살펴서 제작자가 영화를 통해 전달하려고 하는 주제 의식을 파악해야 한다.

03 찰리가 기계 안에 빨려 들어가 나사를 조이는 모습은 인간이 기계의 일부로 취급받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노동자가 실제 기계 안에 들어가서 노동하는 현실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사장, 관리자, 작업반장 등은 노동자의 업무를 감시하는 상위 직책자들이다.
③, ④ 사장의 감시로 인해 잠시의 휴식도 취하지 못하는 찰리의 모습은 노동자의 인간적 측면이 무시되는 현실을 보여 준다.
⑤ 노동자에게 강요되는 노동은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며 경쟁을 부추긴 결과에 해당한다.

04 서술형 찰리가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장면은 인간이 기계처럼 취급되는 현실을 비판하고자 한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인간이 기계처럼 취급되는 현실을 비판한다고 썼다.	☐

05 이 뉴스는 산업화 이후 기후 위기 현상이 심화되자 투자자들이 기업에 대해 이에스지(ESG) 평가를 하여 투자를 결정하게 되고, 이에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이에스지(ESG) 경영을 시작하게 된 사회·문화적 맥락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06 이 뉴스에서는 이에스지(ESG) 경영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관점을 균형 있게 제공하면서, 이에스지(ESG) 경영의 실효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07 서술형 이 뉴스에서는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매장의 컵 회수율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는 이에스지(ESG) 경영의 긍정적인 면을, 친환경 등을 앞세워 기업 이미지를 포장하는 그린 워싱 논란을 통해 이에스지(ESG) 경영의 부정적인 면을 모두 다루고 있다.

꼭 필요한 쏙 모단원 평가 문제

본책 128~131쪽

01 ④ **02** ① **03** ⑤ **04** ② **05** ④ **06** ③ **07** ① **08** ④
09 ⑤ **10** ⓐ: 손전화, ⓑ: 곽밥 **11** ① **12** ⑤

01 (나)는 영상 매체인 뉴스에 해당한다. 따라서 인쇄 매체인 신문 기사에 비해 현장감과 생동감이 있다.

02 (가)는 '컨베이어 시스템'의 도입으로 노동자에게 반복적이고 강도 높은 노동을 강요하는 사회적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컨베이어 시스템'을 예찬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3 <보기>는 기후 변화 행동 연구소의 연구 결과 및 인터뷰를 통해 다회용 컵 사용 정책이 기업의 마케팅 수단인 '그린 워싱'에 불과하다는 점을 드러내며 부정적인 관점을 다루고 있다. (나)에서는 이에스지(ESG) 경영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은 물론 부정적 관점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04 개인 방송의 경우 일반적인 대중 매체에 비해 법적 규제나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므로, 자극적인 내용으로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난다. 따라서 사회적 의제를 다룬 개인 방송을 시청할 때 혐오, 폭력, 선정성, 거짓 정보 등이 나타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05 영상 설명란은 제작자가 입력한 영상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다. 자막과 이미지는 영상에 포함되는 내용이므로, 영상 설명란이 아닌 영상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06 (나)에서 조화로운 다문화 사회를 '샐러드 그릇', '비빔밥'에 빗대어 설명하며 다문화 사회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 있을 뿐, 상반된 두 관점을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 ① (가)에서는 통계청이라는 믿을 만한 기관의 통계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② (가)에서는 이주 배경 인구의 구체적 수치를 통해 한국 사회가 다문화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④ (다)는 대화 상황을 통해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⑤ (라)는 단어 수록의 구체적인 예시를 활용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07 (가)에서는 이주 배경 인구가 2040년에는 323만 명으로 10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언어 공동체의 범위 또한 현재보다 확장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08 조화로운 다문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주 배경 주민들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어 사용을 강제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09 (라)에 따르면 북한의 사전인 『조선말대사전』에는 '가전'이나 '가전제품'이 실려 있지 않다.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는 '가전', '가전제품'은 모두 '가구'라고 한다고 하였다.

10 서술형 (다)는 '핸드폰', '도시락'의 남북한 어휘가 달라 의사소통에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남한의 표준어인 '핸드폰'을 문화어로 바꾸면 '손전화', '도시락'을 문화어로 바꾸면 '곽밥'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와 ⓑ를 북한의 문화어로 옳게 바꿔 썼다.	☐

참고 자료

어휘적인 측면에서의 남북한 언어 차이

- 의미는 같지만 말이 다른 경우
  예 빙수(남) - 단얼음(북), 도넛(남) - 가락지빵(북) 등
- 말은 같지만 의미가 다른 경우
  예 '궁전'은 남한에서는 '임금이 거처하는 집'이라는 뜻이지만 북한에서는 '어린이들이나 근로자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교양 수단들과 체육 문화·시설을 갖추고 정치 문화 교양 사업을 하는 크고 훌륭한 건물'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음.
- 남북한 한쪽에서만 사용하는 경우
  예 - 남에서만 쓰는 낱말: '누리꾼', '찜질방', '재수생', '주식', '수능' 등
  - 북에서만 쓰는 낱말: '밥공장(밥을 비롯한 주식물들을 만들어서 근로자에 공급하는 곳)', '량권(국가 기관에서 발행한 식량을 대신하는 증표)' 등

11 남한과 북한의 문화와 언어 교류 활성화로 서로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 남과 북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12 <보기>의 출연자 말에 따르면 북한 사람은 직접적으로 대놓고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해 남한 사람은 돌려서 말하며 간접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 오답 풀이 | ① 남한과 북한에서 사용하는 일상 언어에는 동일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다. 이러한 어휘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맞으나, <보기>의 내용은 어휘가 아닌 화법상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② <보기>에서는 외래어나 외국어를 사용한 대화는 나타나 있지 않다. 면접 상황에서 북한에서는 직접적으로 아니라고 표현하는 반면, 남한에서는 아니라는 표현은 감추고 나중에 연락한다거나 잘하셨다고 표현하는 것에 대한 북한 출연자의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③ 남한은 표준어를 사용하고 북한은 문화어를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보기>는 이러한 어휘의 차이가 아니라 화법상 표현 방식이 달라 남과 북에서 표현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보여 주고 있다.

④ <보기>의 북한이탈주민 출연자에 따르면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보다 진솔한 표현을 선호한다고 말하고 있다.

고난도 업 모단원 심화 문제

본책 132~133쪽

01 ② 02 ⑤ 03 ② 04 ③ 05 ⑤

01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는 사회적 의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이때 사회적 의제에 대한 생산자의 관점은 물론 수용자의 관점도 고려하여 분석해야 한다.

02 (가)는 기업의 이윤을 위한 생산성만을 추구하여 인간을 마치 기계의 부속물처럼 다루고 있는 현실을 비판·풍자하고 있다.

03 공정성은 매체 자료를 통해 전달되는 주장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을 말한다. 따라서 주장이 나의 생각과 일치한다고 해서 공정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04 <보기>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주 배경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 준다. 이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므로, 언어 실천 양상이 획일화되고 한민족의 동질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추론은 적절하지 않다.

05 <보기>에는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제작자의 관점만 다루고 있고, 난민 수용의 문제점과 같은 다른 관점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아 편향되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대단원 평가 문제

본책 134~139쪽

01 ⑤ 02 ⑤ 03 ③ 04 ⑤ 05 ② 06 ① 07 설문 조사의 구체적인 수치, 조사 방법 등이 제시되지 않아 근거로 미흡하다. 설문 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필자의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08 ② 09 기권은 암묵적 동의와 같으며, 기권을 하면 결국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의 통치를 받게 된다. 10 ⑤ 11 ④ 12 ⑤ 13 ⑤ 14 ② 15 ② 16 ⑤ 17 ③

01 이 글은 '투표를 해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과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개한 논설문이다. 따라서 주장, 이유, 근거 등이 논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검증하며 읽어야 한다.

02 (다)에서 유권자들에 대한 설문 조사 내용을, (라)에서 미국 '말러 교수'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투표를 해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ㄷ). 그리고 (나)에서 투표율이 낮았던 튀니지의 사례를 제시하여, 투표율이 낮을 때의 문제점을 제시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있다(ㄹ).

| 오답 풀이 | ㄱ. 이 글에서는 선거 연령 제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ㄴ.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주장을 펼치고 있을 뿐, 필자의 경험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03 (나)에서 '투표에서 기권을 인정하는 것'은 '투표하지 않을 권리'와는 다르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둘을 같은 의미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④ (라)에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만 전달되고 반영되면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투표율이 낮은 사회에서는 일부 계층의 의견만 전달되므로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고 하였다.

② (라)에서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이 투표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라)를 보면 투표는 정부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장치임을 확인할 수 있다.

04 <보기>는 기권을 인정하라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기>의 주장에 대해 필자는 투표를 하지 않으면 국민이 원하는 사회를 만들기 어렵다고 의견을 낼 수 있다.

05 이 글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인 주장을 이끌어 내는 귀납의 논증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②는 '고래', '원숭이'의 개별적인 사실에서 '포유류'에 관한 일반적인 주장을 이끌어 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③, ④ 연역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⑤ 유추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06 이 글은 소제목별로 필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갖추고 있는 논설문이다. <보기>의 광고문 역시 반려견 목줄 착용과 관련한 주장, 이유, 근거를 정리할 수 있다.

07 서술형 근거의 타당성 측면에서 브라질이나 튀니지의 사례와 달리, (다)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근거의 타당성 측면에서 평가하여 썼다.	☐
아쉬운 점을 보완했을 때의 효과를 함께 썼다.	☐

08 우리나라의 21대 총선의 최종 투표율은 이전 투표율보다 높아진 것이며, 이는 18세 시민에게 투표권이 생기면서 유권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09 서술형 논증을 할 때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예상 반론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반박을 함으로써 자신의 논증을 강화할 수 있다. 필자는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이 없다면 투표를 안 해도 되지 않는가?'라고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했으며, 이에 대해 기권은 암묵적 동의와 같으며, 기권을 하면 결국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의 통치를 받게 된다고 반박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을 적절하게 썼다.	☐
(나)를 참고하여 썼다.	☐

10 이 글의 필자가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는 것, 즉 투표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고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필자는 기권할 수 있는 권리와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별개의 것으로 보고 있기는 하나,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기권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투표의 가치와 중요성이다.

② 필자는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므로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우리나라는 투표에서 기권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필자는 기권을 개인의 선택일 뿐, 법이나 제도로 명시한 권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④ 필자는 투표 참여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주장은 펼치고 있지 않다.

11 (가)는 산업화 시대에 기계화가 진행되면서 인간이 기계의 부품처럼 취급당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고, (나)는 '이에스지(ESG) 경영'의 여러 측면을 살펴보며 그 실효성을 점검하고 있다.

12 '이에스지(ESG)'는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나타내는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말이다. 이를 다루고 있는 뉴스 (나)는 이러한 '이에스지(ESG) 경영'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균형 있는 시각에서 보도하고 있다.

13 (나)는 텔레비전 뉴스로, 뉴스의 생산자는 방송사이다. 제목, 섬네일, 영상 설명란을 중심으로 생산자 개인의 관점을 전달하는 것은 개인 방송에 대한 설명이다.

14 (가)에서 '이주 배경 인구'는 내국인 귀화자, 내국인 이민자 2세, 외국인 인구를 모두 합친 것이라고 하였다. (가)에서는 이러한 이주 배경 인구가 2040년에는 10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어, 한국 사회가 다문화 형태로 변화하게 됨을 보여 주고 있다.

15 (가)와 (나)에서는 언어 공동체가 다문화 형태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보기>의 대화에서는 이주 배경 주민들을 위해 여러 언어로 쓰인 안내문을 비치한 예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언어 공동체가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 이주 배경 이주민들을 위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다.

16 남한과 북한은 모두 한글을 쓰는 동일한 언어 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 남북한의 분단이 지속되고 사회생활의 차이로 점점 달라지고 있지만, 한겨레로서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 오답 풀이 | ① 『미리 만나는 겨레말작은사전』에서 남한과 북한의 어휘 차이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② <보기>의 '세리'가 말하는 '도시락'이라는 말을 '치수'는 알아듣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설명하는 내용이 『미리 만나는 겨레말작은사전』에 들어갈 수 있다.
③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가 계속된다면 같은 한글을 쓰더라도 서로 쓰는 말이 달라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④ 남한과 북한이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의사소통이 더욱 원활해질 것이고, 서로 소통이 원활해진다면 심리적 거리감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17 개인 방송 제작자가 개인 방송을 하며 수익금(이익으로 들어오는 돈)을 벌 수는 있으나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이며, 방송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일과도 거리가 멀다.

4. 빛나는 언어생활

01 음운의 변동

문제로 확인 본책 144~147쪽

01 ④ 02 ① 03 ② 04 자음 05 ① 06 ② 07 ① 08 ④ 09 ⑤ 10 교체, 축약

01 교체에 속하는 음운 변동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되기, 구개음화가 있다. 거센소리되기는 축약에 속한다.

02 음절의 끝에 'ㅍ'이 오면 'ㅂ'으로 발음된다.

03 '국물'은 [궁물]로 발음된다. 이는 받침 'ㄱ'이 뒤에 오는 'ㅁ'의 영향을 받아 비음 'ㅇ'으로 바뀌어 발음된 것으로, 비음화가 일어나는 예이다.

| 오답 풀이 | ① '부엌[부억]'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는 예이다.
③, ④ '설날[설:랄]', '신라[실라]'는 유음화가 일어나는 예이다
⑤ '국밥[국빱]'은 된소기되기가 일어나는 예이다.

04 서술형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음운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 비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이고, 유음화는 비음이 유음의 영향을 받아 유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이 둘은 모두 앞뒤 자음의 발음을 같게 하여 편하게 발음하려고 일어나는 현상이다.

05 ①의 '체증(滯症)'은 된소리되기가 나타나는 환경에 해당하지 않아 [체증]으로 발음된다.

| 오답 풀이 | ②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ㄷ'이 온 경우이며, [의지할떼]로 발음된다.
③ 용언 어간의 끝소리 'ㄴ' 뒤에 첫소리가 'ㄱ'인 어미가 온 경우이며, [신:꼬]로 발음된다.
④ 음절 끝 'ㅂ' 뒤에 'ㅈ'이 온 경우이며, [갑찌게]로 발음된다.
⑤ 한자어의 'ㄹ' 받침 뒤에 'ㅈ'이 온 경우이며, [갈쯩]으로 발음된다.

06 구개음화는 잇몸소리인 'ㄷ, ㅌ'보다 센입천장소리인 'ㅈ, ㅊ'이 모음 'ㅣ'가 소리 나는 위치와 더 가까워 발음을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07 어간 끝에 모음 'ㅡ'를 가진 용언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할 때는 앞의 모음 'ㅡ'가 탈락하며, 용언의 어간 끝모음이 'ㅏ/ㅓ'일 때 뒤에 같은 'ㅏ/ㅓ'로 시작되는 어미가 오는 경우에는 한쪽의 'ㅏ/ㅓ'가 탈락한다. 따라서 두 모음이

이어질 때 그중 뒤의 모음이 탈락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8 '붙이다'는 [부치다]로 발음되는데, 이는 앞말의 끝소리 'ㅌ'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것이므로 구개음화의 예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좋고[조:코]'는 'ㅎ'과 'ㄱ'이 만나 'ㅋ'으로 발음되므로,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이다.
② '맏형[마텽]'은 'ㄷ'과 'ㅎ'이 만나 'ㅌ'으로 발음되므로,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이다.
③ '굽히다[구피다]'는 'ㅂ'과 'ㅎ'이 만나 'ㅍ'으로 발음되므로,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이다.
⑤ '잊히다[이치다]'는 'ㅈ'과 'ㅎ'이 만나 'ㅊ'으로 발음되므로,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이다.

09 ㄴ 첨가는 뒷말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ㅟ, ㅚ'는 반모음 'ㅣ̆[j]'로 시작하는 이중 모음이 아닌 단모음에 해당한다.

10 서술형 구개음화는 'ㄷ, ㅌ'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 'ㅈ,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으로 교체에 속한다. 거센소리되기는 예사소리 'ㄱ, ㄷ, ㅂ, ㅈ'이 'ㅎ'과 만나 두 음운이 축약되어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으로 발음되는 현상으로 축약에 해당한다.

꼭집게 쏙 오단원 평가 문제

본책 148~153쪽

01 ③ **02** ⑤ **03** ③ **04** ② **05** ② **06** ① **07** ③ **08** ④ **09** ③ **10** ③ **11** 형식 형태소 **12** ④ **13** ⑤ **14** ③ **15** 꼳동산, 음절의 끝소리 규칙 **16** ② **17** ① **18** ⑤ **19** ④ **20** ① **21** [옫안] → [오단] **22** ④ **23** ⑤ **24** ④ **25** ⑤ **26** ① **27** ① **28** ③ **29** ④ **30** 음절의 끝소리 규칙, ㄴ 첨가, 비음화가 일어나며 [반니랑]으로 발음해야 합니다.

01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 오답 풀이 | ①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는 형태소이다.
②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소리마디는 음절이다.
④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가장 작은 단위는 문장이다.
⑤ 분리하여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나 그 말의 뒤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말은 단어이다.

02 음운 변동은 표기된 단어를 보다 쉽게 발음하거나 말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기도 그렇지 않기도 하다.

| 오답 풀이 | ①, ②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함으로써 생기는 혼란을 없애기 위해 음운 변동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음운 변동은 외국어만이 아니라 외래어, 한자어 등 모든 우리말을 보다 쉽게 발음하기 위해 일어난다.
④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단어의 발음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음운 변동을 통해 이를 실제 표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이다.

03 '치러'는 어간 '치르-'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를 만나 모음 'ㅡ'가 탈락하는 모음 탈락 현상이 일어난 탈락의 예이다.

| 오답 풀이 | ① '까맣다[까:마타]'는 'ㅎ'과 예사소리 'ㄷ'이 만나 두 음운이 합쳐져 [ㅋ]으로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 축약의 예이다.
② '굳이[구지]'는 앞말의 끝소리 'ㄷ'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인 'ㅈ'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 교체의 예이다.
④ '집념[짐념]'은 받침 'ㅂ'이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 'ㅁ'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비음화가 일어난 교체의 예이다.
⑤ '눈요기[눈뇨기]'는 앞말의 자음이 'ㄴ'으로 끝나고 뒷말이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합성어로, 그 사이에 'ㄴ'이 덧붙어 발음되는 ㄴ 첨가가 일어난 첨가의 예이다.

04 '높이[노피]'는 앞 음절의 끝소리인 'ㅍ'이 뒤 음절의 첫소리로 이어져 발음되는 연음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음운에 변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민낯[민낟]'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음절 끝에 오는 'ㅊ'이 [ㄷ]으로 발음된 것이다.
③ '밥물[밤물]'은 받침 'ㅂ'이 뒤에 오는 비음 'ㅁ'의 영향을 받아 비음 'ㅁ'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비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④ '국화[구콰]'는 예사소리 'ㄱ'이 'ㅎ'을 만나 두 음운이 축약되어 거센소리인 [ㅋ]으로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이다.
⑤ '맨입[맨닙]'은 앞말이 자음 'ㄴ'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파생어로, 그 사이에 'ㄴ'이 덧붙어 발음되는 ㄴ 첨가가 일어난 것이다.

05 모음 탈락은 '커서(크-+-어서)', '가서(가-+-아서)'와 같이 표기에도 반영되어, 모음이 탈락된 형태로 적는다.

| 오답 풀이 | ① ㄴ 첨가는 한여름[한녀름], 솜이불[솜:니불]과 같이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③ 된소리되기는 국밥[국빱], 갑자기[갑짜기]와 같이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④ 거센소리되기는 축하[추카], 낳고[나:코]와 같이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밖[박], 옷[옫], 숲[숩]과 같이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06 ⓐ '밭[받]'은 음절 끝의 'ㅌ'이 [ㄷ]으로 발음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이 적용된다.
ⓑ '국물[궁물]'은 받침 'ㄱ'이 뒤에 오는 비음 'ㅁ'의 영향을 받아 비음 'ㅇ'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비음화(교체)가 일어난다.
ⓒ '설날[설:랄]'은 받침 'ㄹ'의 영향으로 뒤에 오는 비음 'ㄴ'이 유음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유음화(교체)가 일어난다.
ⓓ '축하[추카]'는 예사소리 'ㄱ'이 'ㅎ'과 만나 두 음운이 합쳐져 [ㅋ]으로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난다.
ⓔ '법학[버팍]'은 예사소리 'ㅂ'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 'ㅍ'으로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난다.
ⓕ '갑자기[갑짜기]'는 음절 끝 'ㅂ' 뒤에 오는 예사소리 'ㅈ'이 된소리인 'ㅉ'으로 발음되는 된소리되기(교체)가 일어난다.
ⓖ '솜이불[솜:니불]'은 앞말이 자음 'ㅁ'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합성어로, 그 사이에 'ㄴ'이 덧붙어 발음되는 ㄴ 첨가(첨가)가 일어난다.
ⓗ '해돋이[해도지]'는 앞말의 끝소리 'ㄷ'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인 'ㅈ'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구개음화(교체)가 일어난다.
ⓘ '고파서(고프-+-아서)'는 어간 '고프-'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서'를 만나 모음 'ㅡ'가 탈락하는 모음 탈락(탈락)이 일어난다.
따라서 ⓐ~ⓘ의 단어 중에서 교체가 일어나는 사례는 ⓐ, ⓑ, ⓒ, ⓕ, ⓗ이다.

07 ㉡의 '뜻밖[뜯빡]'과 '볏짚[벼찝/변찝]'은 앞의 음절과 뒤의 음절 모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다.
| 오답 풀이 | ① '복[복]', '밖[박]', '부엌[부억]'은 모두 음절의 끝소리가 'ㄱ'으로 발음된다.
② '낫, 낮, 낯, 낱'은 표기는 다르지만, 발음되는 소리는 [낟]으로 같다.
④, ⑤ ㉠~㉤을 통해 우리말은 음절의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개 자음만 발음되며, 이외의 자음이 오면 'ㄱ, ㄷ, ㅂ' 중 하나로 바뀌어 발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08 '대통령[대:통녕]'은 받침 'ㅇ' 뒤에 오는 'ㄹ'이 비음 '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경우이다.
| 오답 풀이 | ① '막내[망내]', ② '잡념[잠념]', ③ '백마강[뱅마강]', ⑤ '맏며느리[만며느리]'는 받침 'ㄱ, ㄷ, ㅂ'이 비음 'ㄴ, ㅁ'의 영향을 받아 비음 'ㅇ, ㄴ, ㅁ'으로 발음되는 경우이다.

09 '신라[실라]'와 '대관령[대:괄령]'은 뒷말의 첫소리인 'ㄹ'의 영향으로 앞말의 받침인 비음 'ㄴ'이 유음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 오답 풀이 | '강릉[강능]'은 받침 'ㅇ' 뒤에 오는 'ㄹ'이 비음 '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각골[각꼴]'은 음절 끝 'ㄱ' 뒤에 오는 예사소리 'ㄱ'이 된소리인 'ㄲ'으로 발음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한여름[한녀름]'은 앞말이 자음 'ㄴ'으로 끝나고 뒷말이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파생어로, 그 사이에 'ㄴ'이 덧붙어 발음되는 ㄴ 첨가가 일어난다.

10 밤길[밤낄]은 음절 끝의 자음 'ㅁ' 뒤에 오는 예사소리 'ㄱ'이 된소리인 'ㄲ'으로 바뀌지만, 앞말의 '밤'이 용언의 어간이 아니므로 ㉠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라고 볼 수 없다. '밤길'은 고유어 '밤'과 고유어 '길'이 만나 형성된 합성어로 뒷말이 된소리로 나는 사잇소리 현상(합성 명사에서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이고 뒷말의 첫소리가 안울림 예사소리이면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하는 현상)이다.
| 오답 풀이 | ① 국밥[국빱]은 음절 끝의 자음 'ㄱ' 뒤에 오는 예사소리 'ㅂ'이 된소리인 'ㅃ'으로 발음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② 밥상[밥쌍]은 음절 끝의 자음 'ㅂ' 뒤에 오는 예사소리 'ㅅ'이 된소리인 'ㅆ'으로 발음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④ 갈등[갈뜽]은 한자어인 '갈(葛)'의 받침 'ㄹ' 뒤에 오는 예사소리 'ㄷ'이 된소리인 'ㄸ'으로 발음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⑤ 갈 곳[갈꼳]은 '갈'의 관형사형 어미 '-ㄹ' 뒤에 오는 예사소리 'ㄱ'이 된소리인 'ㄲ'으로 발음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11 서술형 구개음화는 앞말의 끝소리 'ㄷ,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인 'ㅈ,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이다. '여닫이[여다지]'는 앞말의 끝소리 'ㄷ'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ㅈ'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평가 기준	확인 ☑
'형식 형태소'라고 정확하게 썼다.	☐

12 건너(건너-+-어)는 끝모음이 'ㅓ'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건너-'의 뒤에 어미 '-어'가 결합하면서 한쪽의 'ㅓ'가 탈락한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꺼야(끄-+-어야), ② 써서(쓰-+-어서), ③ 떠(뜨-+-어), ⑤ 예뻐서(예쁘-+-어서)는 끝모음이 'ㅡ'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끄-', '쓰-', '뜨-', '예쁘-'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여 모음 'ㅡ'가 탈락한 것이다.

13 <보기>의 단어는 모두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거센소리되기는 예사소리 'ㄱ, ㄷ, ㅂ, ㅈ'이 'ㅎ'과 만나 두 음운이 축약되어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으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14 형태소 '맨'과 '입'이 결합한 파생어 '맨입'(①)의 앞말은 자음 'ㄴ'으로 끝나고(②) 뒷말은 모음 'ㅣ'로 시작한다(③). 따라서 그 사이에 'ㄴ'이 덧붙어(④) [맨닙]으로 발음된다(⑤).

15 서술형 '꽃동산'은 우선 음절 끝의 'ㅊ'이 'ㄷ'으로 발음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꼳동산]이 되고, 음절 끝 'ㄷ' 뒤에 오는 예사소리 'ㄷ'이 된소리인 'ㄸ'으로 발음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꼳똥산]으로 발음된다.

평가 기준	확인 ☑
㉠에 들어갈 발음을 '꼳동산'이라고 썼다.	☐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됨을 썼다.	☐

16 '말합니다'는 받침 'ㅂ'이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 'ㅁ'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말:함니다]로 발음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같이'는 앞말의 끝소리 'ㅌ'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인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구개음화가 일어나므로, [가치]로 발음해야 한다.

③ '산란기'는 뒷말 첫소리인 'ㄹ'의 영향으로 앞말의 받침인 비음 'ㄴ'이 유음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유음화가 일어나므로, [살:란기]로 발음해야 한다.

④ '낳고'는 'ㅎ'과 예사소리 'ㄱ'이 만나 두 음운이 합쳐져 거센소리 'ㅋ'이 되므로, [나:코]로 발음해야 한다.

⑤ '흡수'는 음절 끝 'ㅂ' 뒤에 오는 예사소리 'ㅅ'이 된소리인 'ㅆ'으로 발음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므로, [흡쑤]로 발음해야 한다.

17 '낳는'은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앞말 '낳'의 음절 끝 'ㅎ'이 'ㄷ'으로 바뀌어 [낟:는]이 된다. 이후 '낟'의 음절 끝 'ㄷ'이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 'ㄴ'으로 발음되는 비음화가 일어나, 최종적으로 [난:는]으로 발음된다.

18 (가)는 앞말이 'ㄴ'으로 끝나는 음절이 'ㄹ'로 시작하는 음절을 만났을 때 비음화가 일어날 수도, 유음화가 일어날 수도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ㄴ'으로 끝나는 글자가 단어의 자격을 지닌 2음절 한자어일 때는 뒤에 오는 'ㄹ'이 '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비음화가 일어나지만, 단어의 자격을 지니지 않은 한자들이 결합한 경우일 때는 'ㄴ'이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유음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동일한 음운론적 환경에서 다른 음운 변동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같은 환경이지만 서로 다른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ㄴ'으로 끝나는 글자의 자격이 다르기 때문이지, 보는 관점에 따라 음운 변동이 다르게 해석되는 것이 아니다.

② 단어를 구성하는 음절 수뿐만 아니라 단어의 자격 유무도 음운 변동의 주요 조건이다. 또한 이는 'ㄴ'으로 끝나는 글자가 'ㄹ'로 시작하는 글자를 만났을 때에 대한 설명이므로, 이 경우만으로 음운 변동의 주요 조건이 단어를 구성하는 음절 수라고 볼 수는 없다.

③ 'ㄴ'으로 끝나는 음절이 'ㄹ'로 시작하는 음절을 만나는 동일한 음운론적 환경에서 서로 다른 음운 변동이 일어날 수 있음을 설명했을 뿐, 이 둘의 경우가 일정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음운 변동이 아니라고 하지는 않았다.

④ 'ㄴ'으로 끝나는 글자가 'ㄹ'로 시작하는 글자를 만나는 같은 환경에서 비음화가 일어나기도 유음화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내용이므로, 두 음운 변동이 전혀 다른 환경에서 일어난다는 내용은 (가)의 내용에서 벗어난 것이다.

19 '광한루'는 단어의 자격을 지니지 않은 한자들이 결합하여 한 단어를 이루었으므로 'ㄴ'이 'ㄹ'로 바뀌어 발음된다. 따라서 '생산량[생산냥]'의 경우와 달리 [광:할루]로 발음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생산-량' 등과 같이 'ㄴ'으로 끝나고 단어의 자격을 지닌 2음절 한자어 뒤에 'ㄹ'로 시작하는 한자가 결합하면 'ㄹ'이 'ㄴ'으로 바뀌어 발음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생산량'은 [생산냥]으로 읽어야 한다.

② '난로', '신라' 등과 같이 단어의 자격을 지니지 않은 한자들이 결합하여 한 단어를 이루는 경우 'ㄴ'이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난로', '신라'는 각각 [날:로], [실라]로 발음해야 한다.

③ '진리'는 '난로', '신라'와 마찬가지로 단어의 자격을 지니지 않은 한자들이 결합하여 한 단어를 이루는 경우이므로, 'ㄴ'이 'ㄹ'로 바뀌어 발음된다. 따라서 [진니]라고 읽지 않고 [질리]로 읽는다.

⑤ '의견란'은 '생산-량'과 마찬가지로, 'ㄴ'으로 끝나고 단어의 자격을 지닌 2음절 한자어 뒤에 'ㄹ'로 시작하는 한자가 결합한 경우이다. 따라서 'ㄹ'이 'ㄴ'으로 바뀌어 발음되므로 [의:견난]으로 읽어야 한다.

20 '부엌으로'는 자음으로 끝나는 말인 '부엌' 뒤에 형식 형태소인 조사 '으로'가 이어지므로, 앞 음절의 끝소리인 'ㅋ'이 뒤 음절의 첫소리로 이어져 [부어크로]로 발음한다.

참고 자료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 실질 형태소(어휘 형태소): 독립적 의미를 가지며, 대상이나 동작, 상태 등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 체언, 수식언, 독립언, 용언의 어간이 포함됨.
- 형식 형태소(문법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지 않고, 실질 형태소에 결합하여 기능이나 문법 관계를 나타내는 형태소. 조사, 접사, 용언의 어미가 포함됨.

21 서술형 '옷 안'은 '옷'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안'이 이어지기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옫안]이 된다. 그리고 앞 음절의 끝소리 'ㄷ'이 뒤 음절의 첫소리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오단]으로 발음된다.

평가 기준	확인 ☑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옫안]이 됨을 썼다.	☐
최종적으로 [오단]으로 발음됨을 썼다.	☐

22 '밭 위쪽'은 자음으로 끝나는 말인 '밭'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위'가 이어지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받위쪽] → [바뒤쪽]으로 발음한다. '길섶을'은 자음으로 끝나는 말인 '길섶[길썹]' 뒤에 형식 형태소인 조사 '을'이 이어지므로, 앞 음절의 끝소리인 'ㅍ'이 뒤 음절의 첫소리로 이어져 [길써플]로 발음한다. '대관령'은 단어의 자격을 지니지 않은 한자들이 결합하여 한 단어를 이루었으므로 'ㄴ'이 'ㄹ'로 바뀌어 발음된다. 따라서 [대:괄령]으로 발음한다.

23 (나)는 라디오 방송에서 '곁을[겨틀]'을 [겨츨]이라고 잘못 발음한 사례이다. 이는 구개음화를 잘못 적용하여 생긴 오류이므로 음운 변동 현상 중 교체와 관련된 사례이다. (다)는 안내문에 '잠가 주세요'를 '잠궈 주세요'로 잘못 표기한 사례이다. 어간인 '잠그-'의 끝모음 '—' 뒤에 어미 '-아'가 결합하면 '—'가 탈락하는 모음 탈락 현상이 일어나므로, '잠궈'가 아니라 '잠가'로 표기해야 한다. 따라서 이는 음운 변동 현상 중 탈락과 관련된 사례이다.

| 오답 풀이 | ①, ② (가)의 대화에는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 음운 변동 현상을 표기에 반영한 사례가 나타나 있다. '어떡해'는 [어떠캐]로 소리 나며,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샅샅이'는 [삳싸치]로 소리 나며,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찾아볼게'는 [차자볼께]로 소리 나며, 발음할 때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몹시'는 [몹:씨]로 소리 나며 발음할 때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이처럼 '어떡해'는 축약이 일어나며 '샅샅이', '찾아볼게', '몹시'는 교체가 일어난다.

③ (나)는 '곁을'을 [겨츨]이라고 잘못 발음한 사례이다. 구개음화는 앞말의 끝소리 'ㄷ, ㅌ'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날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곁' 뒤의 '을'은 형식 형태소이지만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발음할 때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겨틀]이라고 발음해야 하며, 이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조건에서 구개음화를 잘못 적용하여 발음했기 때문에 일어난 오류이다.

④ (다)는 '잠가'를 '잠궈'로 잘못 표기한 사례이다. 기본형 '잠그다'의 어간인 '잠그-'의 끝모음 '—'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가 결합해서 '—'가 탈락하는 모음 탈락이 일어나므로, '잠궈'가 아니라 '잠가'로 표기해야 한다. 이는 음운 변동 현상 중 탈락 현상을 올바르게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오류이다.

24 (가)의 '찾아볼게'는 연음 현상과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므로, [차자볼께]로 발음한다.

| 오답 풀이 | ① '기억해'는 거센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나므로, [기어캐]로 발음한다.

② '어떠케'는 '어떡해'를 잘못 표기한 것이다. '어떡해'는 거센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나므로 [어떠캐]로 발음한다.

③ '삳삳치'는 '샅샅이'를 잘못 표기한 것이다. '샅샅이'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구개음화 현상에 따라 [삳싸치]로 발음한다.

⑤ '몹씨'는 '몹시'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것이다. '몹시'는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나므로, [몹:씨]로 발음한다.

25 '곁을'은 자음으로 끝나는 말인 '곁' 뒤에 형식 형태소인 조사 '을'이 이어지므로, 앞 음절의 끝소리인 'ㅌ'이 뒤 음절의 첫소리로 이어져 [겨틀]로 발음한다.

| 오답 풀이 | ①, ② 뒤에 이어지는 '을'은 형식 형태소이므로 앞말의 '곁'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곁'의 음절 끝에 오는 'ㅌ'은 뒤 음절의 첫소리로 연음되므로 [틀]로 발음한다.

③ '을'이 형식 형태소인 것은 맞지만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아니기 때문에 'ㅌ'이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④ '을'은 형식 형태소이며, 'ㅌ'의 대표음도 'ㅅ'이 아니라 'ㄷ'이다.

26 (다)는 '잠가 주세요'를 '잠궈 주세요'로 잘못 표기한 사례이다. '잠그다'의 어간인 '잠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가 결합하므로 '—' 탈락이 일어나 '잠가'가 되며, 이는 표기에도 반영된다. '담궈' 역시 기본형 '담그다'의 어간인 '담그-'의 끝모음 '—'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가 결합하여 '—'가 탈락하는 모음 탈락이 일어나므로, '담가'로 발음하고 이를 표기에도 반영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② '들러'는 기본형 '들르다'의 어간인 '들르-'의 끝모음 '—'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가 결합해서 '—'가 탈락하는 모음 탈락이 일어난다. 이에 따라 [들러]로 발음하고 이를 표기에도 반영하여 '들러'로 써야 하므로 맞게 표기된 것이다.

③ '피워'는 기본형 '피우다'의 어간인 '피우-'의 끝모음 'ㅜ'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와 결합한 것으로, [피워]로 발음하며 이를 표기에도 반영하여 '피워'로 써야 하므로 맞게 표기된 것이다.

④ '쒀서'는 기본형 '쑤다'의 어간인 '쑤-'의 끝모음 'ㅜ'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서'와 결합한 것으로, [쒀서]로 발음하며 이를 표기에도 반영하여 '쒀서'로 써야 하므로 맞게 표기된 것이다.

⑤ '쓰여'는 기본형 '쓰이다'의 어간인 '쓰이-'의 끝모음 'ㅣ'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와 결합한 것으로, [쓰여]로 발음하며 이를 표기에도 반영하여 '쓰여'로 써야 하므로 맞게 표기된 것이다.

27 '티끌'은 'ㅌ'이 앞말의 끝소리에 오지 않고, 모음 'ㅣ'가 형식 형태소의 첫소리가 아니라 'ㅌ'과 한 형태소 안에 있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모음 'ㅣ'가 형식 형태소의 첫소리인지를 확인하는 조건은 <보기>에 이미 있으므로, 빈칸에는 'ㅌ'이 앞말의 끝소리에 오는지를 확인하는 조건이 들어가야 한다.

| 오답 풀이 | ② 'ㅌ'이 'ㄷ'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것은 구개음화 현상과 관련된 조건이 아니라 음절의 끝소리 규칙 현상과 관련된 조건이다.

③ 'ㅌ'과 'ㅣ'가 한 형태소에 있는 것은 '같이'가 아니라 '티끌'이므로 <보기>의 항목 표시와 맞지 않는다.

④ 구개음화 현상은 앞말의 끝소리 'ㄷ,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인 'ㅈ,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이므로, 'ㄷ, ㅌ'이 들어간 말의 자립성 여부는 구개음화 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⑤ 'ㄷ,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인 'ㅈ, ㅊ'으로 바뀌어 발음될 때, 둘 사이에 다른 음운이 첨가되지 않는다.

28 '꽃향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꼳향기], 그리고 'ㄷ'과 'ㅎ'이 만나 거센소리 'ㅌ'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적용되어 [꼬턍기]로 발음한다. 따라서 총 두 번의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난다.

| 오답 풀이 | ① '꽃말'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꼳말]이 되고, '꼳'의 받침 'ㄷ'이 뒷말 첫소리인 비음 'ㅁ'의 영향을 받아 비음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② '꽃다발'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꼳다발]이 되고, '꼳'의 받침 'ㄷ' 뒤에서 뒷말 첫소리인 예사소리 'ㄷ'이 된소리 'ㄸ'으로 바뀌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꼳따발]로 발음된다.

④ '꽃말'은 교체 현상인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적용되어 [꼰말], '꽃다발'은 교체 현상인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가 적용되어 [꼳따발]로 발음된다.

⑤ '꽃말', '꽃다발', '꽃향기'는 모두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꽃'의 끝소리에 오는 자음 'ㅊ'이 'ㄷ'으로 발음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다.

29 (가)의 '졸업장[조럽짱]', '받고[받꼬]'에서는 된소리되기, '웃는[운:는]'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일어났다. 이들은 모두 교체로, ㄹ에 해당한다. (나)의 '국화[구콰]'와 '좋다[조:타]'에서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났다. 거센소리되기는 축약인 ㄱ에 해당한다.

30 서술형 '밭이랑'은 [받니랑](음절의 끝소리 규칙, 'ㄴ' 첨가) → [반니랑](비음화)과 같이 교체 현상과 첨가 현상이 나타난다.

평가 기준	확인 ☑
음절의 끝소리 규칙, ㄴ 첨가, 비음화 현상을 썼다.	☐
[반니랑]으로 발음해야 함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고난도 UP 모단원 심화 문제

본책 154~155쪽

01 ② **02** ② **03** ④ **04** ① **05** ④ **06** ㉮는 모음 탈락(탈락), ㉯는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난다. ㉮와 ㉯ 모두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의 수가 줄어든다. **07** ① **08** ⑤

01 <보기>는 단어의 초성, 중성, 종성 중 한 음운을 바꾸면 뜻이 다른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음운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보기>의 강의는 초성, 중성, 종성의 음운을 다른 음운으로 바꾸는 경우를 예로 들고 있는데,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음운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③ <보기>의 강의를 통해 음운이 발음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 달라진다는 내용은 알 수 없다. 또한 음운이 발음하는 사람에 따라 형태가 결정된다는 내용도 적절하지 않다.

④ 분리하여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은 단어이다.

⑤ 발음 기관을 통해 나오는 물리적인 소리는 음성이다.

02 제시된 단어 중 음절의 끝소리가 바뀌지 않는 것은 '산, 물, 곰, 병'이고 바뀌는 것은 '밖, 갓, 낮, 짚'이다. '갓, 낮'의 경우도 음절의 끝소리가 'ㄷ'으로 바뀌므로, 음절 끝의 자음이 예사소리이면 바뀌지 않는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밖, 갓, 낮, 짚'은 발음할 때 [박, 갇, 낟, 집]과 같이 음절의 끝소리가 바뀐다.

③ '밖'은 [박], '갓, 낮'은 [갇, 낟], '짚'은 [집]으로 바뀌므로 음절의 끝소리가 'ㄱ, ㄷ, ㅂ' 중 하나로 바뀜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키읔', '빛', '무릎'은 각각 [키윽], [빋], [무릅]으로 발음되므로, 음절의 끝소리가 바뀌는 예로 추가할 수 있다.

⑤ 음절의 끝소리가 'ㄱ, ㄷ, ㅂ' 중 하나로 바뀌는 '밖, 갓, 낮, 짚'과 음절의 끝소리가 바뀌지 않는 '산, 물, 곰, 병'의 예를 통해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총 일곱 개임을 알 수 있다.

03 비음화는 파열음인 'ㄱ, ㄷ, ㅂ'이 비음 'ㄴ, ㅁ'을 만나 각각 비음 'ㅇ, ㄴ, ㅁ'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이때 'ㄱ'은 'ㅇ'으로, 'ㄷ'은 'ㄴ'으로, 'ㅂ'은 'ㅁ'으로 바뀌므로 여린입천장, 윗잇몸, 두 입술의 조음 위치는 변하지 않고 조음 방법만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바뀜을 알 수 있다. 유음화는 비음 'ㄴ'이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 'ㄹ'로 바뀌는 현상인데, 이 역시 윗잇몸의 조음 위치는 바뀌지 않고 조음 방법만 비음에서 유음으로 바뀐다. 따라서 비음화와 유음화는 모두 소리 나는 위치는 그대로인데 발음하는 방법만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비음화와 유음화는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발음과 표기를 일치시키려고 비음화와 유음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② 비음화는 조음 방법이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유음화는 비음이 유음으로 바뀌는 것이므로, 발음 위치는 그대로이나 발음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다.

③ 비음화와 유음화는 이어져 있는 앞뒤 자음의 조음 방법을 같게 하여 표기된 단어를 보다 편하게 발음하기 위해 일어나는 현상이다.

⑤ 비음화와 유음화는 일정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 현상이므로, 발음하는 사람에 따라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하는 현상이 아니다.

04 '여닫이[여:다지]'의 둘째 음절 '닫'의 끝소리 'ㄷ'이 뒤에 오는 형식 형태소 'ㅣ'를 만나 구개음화가 일어나므로, 구개음화는 첫째 음절에서만 일어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② '붙여'는 '붙'의 끝소리 'ㅌ'이 뒤에 오는 'ㅕ'를 만나 구개음화가 일어나 [부처]로 발음된다. 이처럼 구개음화는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ㅑ, ㅕ, ㅛ, ㅠ' 앞에서도 일어난다.

③ '마디(節)'의 경우는 'ㄷ'이 'ㅣ'를 만나지만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처럼 'ㄷ'이 앞말의 끝소리에 오지 않고, 모음 'ㅣ'가 한 형태소 안에 있는 경우에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④ '굳히다'는 '굳'의 끝소리 'ㄷ'이 '히'의 첫소리 'ㅎ'을 만나 'ㅌ'으로 축약된 후에([구티다]), 'ㅌ'이 모음 'ㅣ'를 만나 구개음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구치다])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⑤ '홑이불'은 실질 형태소인 '홑'과 '이불'이 만나 형성된 합성어로, 이처럼 끝소리 'ㅌ' 뒤에 오는 모음 'ㅣ'가 실질 형태소일 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홑이불'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ㄴ 첨가로 [혼니불]로 바뀐 뒤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 [혼니불]로 발음된다.

05 제26항을 보면 한자어의 경우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결실(結實)'은 'ㄹ' 받침 뒤에 'ㅅ'이 연결되기 때문에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결씰]로 발음하지만, '결과(結果)'는 'ㄹ' 받침 뒤에 'ㄱ'이 연결되기 때문에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아 [결과]로 발음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덮개'는 제23항에 따라 받침 'ㅂ(ㅍ)' 뒤에 연결되는 'ㄱ'을 된소리로 발음하므로 [덥깨]로 발음한다.

② '신기다'는 동사 '신다'에 사동 접미사 '-기-'가 결합한 사동사이다. 따라서 제24항에 따라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으므로, [신기다]로 발음한다.

③ '잔다'는 용언 어간 '자-'에 선어말 어미 '-ㄴ-'이 결합한 것이므로 '-ㄴ-'은 어간 받침이 아니다. 따라서 제24항이 적용되지 않아 [잔다]로 발음해야 한다.

⑤ '잘 수'는 용언 어간 '자-'에 관형사형 어미 '-ㄹ'이 결합한 것이므로, 제27항에 따라 '-ㄹ' 뒤에 연결되는 'ㅅ'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06 서술형 ㉮의 '고파서'는 용언 어간 '고프-'의 끝에 오는 모음 'ㅡ'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아서'를 만나 탈락하는 모음 탈락(탈락)이 일어난다. ㉯의 '굽히지[구피지]'는 '굽'의 끝에 오는 자음 'ㅂ'이 뒤에 이어지는 자음 'ㅎ'을 만나 새로운 음운인 'ㅍ'으로 줄어드는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난다. 따라서 ㉮와 ㉯ 모두 음운 변동 결과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어든다.

평가 기준	확인 ☑
㉮에서 모음 탈락(탈락)이 ㉯에서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남을 썼다.	☐
음운 변동 결과 음운의 개수가 줄어든다는 공통점을 썼다.	☐

07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은 ㄴ 첨가가 다른 음운 변동 현상과 함께 일어나는 경우이다. '담요'는 두 형태소가 결합하여 형성된 합성어로, 앞말이 자음 'ㅁ'으로 끝나고 뒷말이 반모음 'ㅣ'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ㄴ'이 덧붙어 [담:뇨]로 발음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른 음운 변동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② '막일'은 ㄴ 첨가가 일어나 [막닐]이 되고, 앞말의 끝에 오는 자음 'ㄱ'이 뒷말의 첫 자음인 비음 'ㄴ'을 만나 비음 'ㅇ'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비음화가 일어나 [망닐]로 발음된다.

③ '홑이불'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ㄴ 첨가로 [혼니불]이 된다. 그리고 앞말의 끝에 오는 자음 'ㄷ'이 뒷말의 첫 자음인 비음 'ㄴ'을 만나 비음 '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비음화가 일어나 [혼니불]로 발음된다.

④ '색연필'은 ㄴ 첨가가 일어나 [색년필]이 되고, 앞말의 끝에 오는 자음 'ㄱ'이 뒷말의 첫 자음인 비음 'ㄴ'을 만나 비음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생년필]로 발음된다.

⑤ '짓이기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ㄴ 첨가로 [짇니기다]가 된다. 그리고 앞말의 끝에 오는 자음 'ㄷ'이 뒷말의 첫 자음인 비음 'ㄴ'을 만나 비음 '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비음화가 일어나 [진니기다]로 발음된다.

08
- '깨끗하다'는 '끗'의 끝 자음 'ㅅ'이 'ㄷ'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이 적용되어 [깨끋하다]가 된다. 그리고 예사소리 'ㄷ'이 'ㅎ'과 만나 두 음운이 축약되어 거센소리 'ㅌ'으로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나 [깨끄타다]로 발음된다. - ⓐ
- '발야구'는 '발'과 '야구'가 결합하여 형성된 합성어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반모음 'ㅣ'로 시작하므로 그 사이에 'ㄴ'이 덧붙어 발음되는 ㄴ 첨가(첨가)가 일어나 [발냐구]가 된다. 그리고 뒷말의 첫소리인 'ㄴ'이 앞말의 끝 자음인 유음 'ㄹ'의 영향으로 유음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유음화(교체)가 일어나 [발랴구]라고 발음된다. - ⓑ
- '앞서서'는 끝모음이 'ㅓ'인 용언의 어간 '앞서-'가 같은 모음인 'ㅓ'로 시작되는 어미 '-어서'를 만나 한쪽의 'ㅓ'가 탈락하는 모음 탈락(탈락)이 일어나 [앞서서]가 되고 '앞'의 끝 자음 'ㅍ'이 'ㅂ'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이 적용되어 [압서서]가 된다. 마지막으로 음절 끝에 오는 자음 'ㅂ' 뒤에 오는 'ㅅ'이 된소리인 'ㅆ'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된소리되기 현상(교체)이 일어나 [압써서]로 발음된다. - ⓒ
- '급행열차'는 '급행'과 '열차'가 결합하여 형성된 합성어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반모음 'ㅣ'로 시작하므로 그 사이에 'ㄴ'이 덧붙어 발음되는 ㄴ 첨가(첨가)가 일어나 [급행녈차]가 된다. 그리고 예사소리 'ㅂ'이 'ㅎ'과 만나 두 음운이 축약되어 거센소리 'ㅍ'으로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나 [그팽녈차]로 발음된다. - ⓓ
- '잡혀갔다'는 끝모음이 'ㅏ'인 용언의 어간 '잡혀가-'가 같은 모음 'ㅏ'로 시작되는 어미 '-았-'을 만나 한쪽의 'ㅏ'가 탈락하는 모음 탈락(탈락)이 일어나 [잡혀갔다]가 된다. 그리고 예사소리 'ㅂ'이 'ㅎ'과 만나 두 음운이 축약되어 거센소리 'ㅍ'으로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나 [자펴갔다]가 된다. 그 다음 '갔'의 끝 자음 'ㅆ'이 'ㄷ'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이 적용되어 [자펴간다]가 되고, 마지막으로 음절 끝에 오는 'ㄷ' 뒤에 오는 'ㄷ'이 된소리인 'ㄸ'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된소리되기(교체)가 일어나 [자펴간따]로 발음된다. - ⓔ

02 문법 요소와 어휘의 활용

문제로 확인 본책 158~161쪽

01 ① **02** ③ **03** ④ **04** ③ **05** 미래 시제, 완료상 **06** ⑤
07 ② **08** ① **09** ① **10** 나

01 ①에서는 주격 조사 '께서'와 특수 어휘 '주무시다'를 사용하여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② 화자를 낮추는 어휘인 '저'와 하십시오체의 평서형 종결 어미 '-습니다'를 통해 청자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③ 부사격 조사 '께'를 통해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④ 특수 어휘 '뵈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사장님'을 높이고 있다.
⑤ 특수 어휘 '모시다'를 통해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02 ③은 부사격 조사 '께'와 특수 어휘 '여쭈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주격 조사 '께서'와 특수 어휘 '주무시다'를 사용하여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② 하십시오체의 평서형 종결 어미 '-습니다'를 사용하여 청자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④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⑤ 비격식체인 해요체를 사용하여 청자인 '형님'을 높이고 있다.

03 ④의 문장에는 현재 시제가 드러난다. '예쁘다'와 같은 형용사의 경우 선어말 어미 없이 현재 시제가 표현되기 때문이다.

04 ①, ②의 보조 용언 '-아/-어 가다'와 ④, ⑤의 '-고 있다'는 진행상을 나타내는 반면 ③의 '-아/-어 있다'는 완료상을 나타낸다.

05 서술형 <보기>에서는 '-ㄹ 것'을 사용하여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있으며, '-아 버리다'를 사용하여 완료상을 나타내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보기>의 문장에 나타난 시제를 '미래 시제'라고 썼다.	☐
<보기>의 문장에 나타난 동작상을 '완료상'이라고 썼다.	☐

06 ㉡의 '물렸다'는 '물- + -리- + -었- + -다'의 구성으로, 능동사 '물다'에 피동의 의미를 더하는 접미사 '-리-'가 붙은 것이다.

07 '사라지다'는 '현상이나 물체의 자취 따위가 없어지다.'를 뜻하며, 주체의 의도나 외부의 행동 없이도 발생하는 상태 변화를 나타낸다. 즉 '사라졌다'는 '사라지- + -었- + -다'로 분석되므로 ②에는 피동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 오답 풀이 | ① '깨졌다'는 '깨지- + -었- + -다'로 분석되며, 동사의 기본형 '깨지다'는 '깨어지다'의 준말이다. '깨어지다'는 능동사 '깨다'에 '-어지다'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사이다.
③ '잡혔다'는 '잡- + -히- + -었- + -다'로 분석되며, 동사 '잡다'에 피동의 의미를 더하는 접미사 '-히-'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사이다.
④ '발견됐다'는 명사 '발견'에 피동의 의미를 더하는 접미사 '-되다'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사이다.
⑤ '풀렸다'는 '풀- + -리- + -었- + -다'로 분석되며, 동사 '풀다'에 피동의 의미를 더하는 접미사 '-리-'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사이다.

08 '버리다'는 어간 '버리-'를 '버- + -리-'로 분석할 수 없으므로, 능동사에 피동의 의미를 더하는 접미사 '-리-'가 붙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버리다'는 '가지거나 지니고 있을 필요가 없는 물건을 내던지거나 쏟거나 하다.'의 뜻을 가진 능동사이다.
| 오답 풀이 | ② '막히다'는 '막- + -히- + -다'로 분석되며, 능동사 '막다'에 피동의 의미를 더하는 접미사 '-히-'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사이다.
③ '섞이다'는 '섞- + -이- + -다'로 분석되며, 능동사 '섞다'에 피동의 의미를 더하는 접미사 '-이-'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사이다.
④ '담기다'는 '담- + -기- + -다'로 분석되며, 능동사 '담다'에 피동의 의미를 더하는 접미사 '-기-'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사이다.
⑤ '흔들리다'는 '흔들- + -리- + -다'로 분석되며, 능동사 '흔들다'에 피동의 의미를 더하는 접미사 '-리-'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사이다.

09 직접 인용은 인용절 뒤에 조사 '라고'를, 간접 인용은 인용절 뒤에 조사 '고'를 쓴다.

10 서술형 직접 인용문에서 인용절의 내용은 '윤희'가 '나'에게 한 말이며 여기서 '너'는 청자인 '나'를 가리킨다. 따라서 직접 인용문을 간접 인용문으로 바꾸면, 인용절의 '너'를 '나'로 바꿔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말을 '나'라고 썼다.	☐

꼭집게 쏙 모단원 평가 문제

본책 162~167쪽

01 ④ **02** ⑤ **03** ⑤ **04** ③ **05** 할머니께서, 주신, 다녀요 **06** ② **07** ④ **08** ① **09** ② **10** ③ **11** ⑤ **12** 진행상, 변화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13** ② **14** ① **15** ① **16** ④ **17** ④ **18** 휩쓸려, 떠밀린 **19** ② **20** ④ **21** ④ **22** ⑤ **23** ② **24** ② **25** ② **26** ②

01 한 문장이나 하나의 발화에 여러 문법 요소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머니는 "그건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쩔 수 없단다."라고 말하셨다.'와 같은 문장은 높임 표현(말하셨다), 시간 표현(말하셨다), 피동 표현(벌어진), 인용 표현("그건 ~ 없단다."라고)이 포함되어 있다.

02 ⑤는 문장의 객체인 '국어 선생님'이 높임의 대상이며, 부사격 조사 '께'를 사용하여 객체 높임을 적절하게 실현하였다.
| 오답 풀이 | ① 주체인 '어머니'가 높임의 대상이므로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어머니께서 집에서 과일을 깎으셨다.'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청자인 '할아버지'가 높임의 대상이므로 화자 자신을 낮추는 어휘인 '저'를 사용하여 '할아버지, 저는 아침을 먹었습니다.'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객체인 '선생님'이 높임의 대상이므로 특수 어휘 '모시다'를 사용하여 '준희는 선생님을 모시고 식당에 갔다.'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주체인 '담임 선생님'이 높임의 대상이므로 특수 어휘 '주시다'를 사용하여 '담임 선생님께서 주신 화분을 어디에 두지?'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03 '친구가 방에서 잔다.'의 주어 '친구'를 '할머니'로 바꾸면 주체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자다' 대신 특수 어휘 '주무시다'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의 문장에 특수 어휘를 사용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에는 객체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하므로 선어말 어미가 아닌 특수 어휘 '여쭤보다'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② '친구가 방에서 잔다.'의 주어 '친구'를 '할머니'로 바꾸어야 하므로, ㉠에는 주체 높임 표현을 사용한 문장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주격 조사 '가'를 '께서'로 바꾸고, 서술어 '잔다'를 '주무신다'로 바꾸어야 한다.
③, ④ '나는 동생에게 약속 장소를 물어보았다.'의 부사어 '동생에게'의 '동생'을 '어머니'로 바꾸어야 하므로, ㉡에는 객체 높임 표현을 사용한 문장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부사격 조사 '에게'를 '께'로 바꾸고, 서술어 '물어보았다'를 '여쭤보았다'로 바꾸어야 한다.

04 이 글은 '할머니'께 쓰는 편지글이며, 편지의 내용을 읽는 사람, 즉 '나'의 사연을 듣는 사람은 '할머니'로 한정된다. 따라서 '할아버지'는 상대 높임의 대상인 청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계시지요', '뵈러', '모시고' 등의 어휘와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조사를 사용하여 '할아버지'를 높인 표현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높임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친밀감보다는 공손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④ 적절한 높임 표현을 사용하여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예의를 지키고 있다.
⑤ '계시지요', '계세요', '뵈러', '모시고'와 같은 특수 어휘와 '안녕하세요', '재호예요', '있어요' 등에 쓰인 종결 어미뿐만 아니라 '지내셨어요(지내- + -시- + -었- + -어요)', '주신(주- + -시- + -ㄴ)', '지내세요(지내- + -시- + -어요)'와 같이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여 할머니를 직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05 서술형 ㉠에서는 주격 조사 '께서'와 '주신(주- + -시- + -ㄴ)'에 포함된 선어말 어미 '-시-', 그리고 '다녀요'에 쓰인 해요체의 평서형 종결 어미 '-어요'를 통해 편지의 수신자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높임 표현이 사용된 단어는 '께서', '주신', '다녀요'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에서 높임 표현이 사용된 단어 '할머니께서'를 찾아 썼다.	☐
㉠에서 높임 표현이 사용된 단어 '주신'을 찾아 썼다.	☐
㉠에서 높임 표현이 사용된 단어 '다녀요'를 찾아 썼다.	☐

06 ②의 문장에서 높여야 하는 대상은 문장의 주체인 '선생님'인데, '오시래'는 '오시라 해'의 줄임말로 청자인 '너'는 높이고 '선생님'은 높이지 않은 표현이다. 따라서 청자인 '너'에 대한 높임 표현은 빼고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는 '오라고 하셔' 또는 이를 줄인 '오라셔'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오시라 하셔' 역시 청자인 '너'를 높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 오답 풀이 | ① '음료'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음료'에 대한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다.
③ 문장의 주체인 '작은아버지'는 높임의 대상이므로, 특수 어휘 '계시다'를 사용하여 '있어'를 '계셔'로 고친 것은 적절하다.
④ 간접 높임의 대상인 '할아버지'의 '허리'를 높여야 하므로, '아프다'를 '아프시다'로 고친 것은 적절하다.
⑤ '할인 기간'은 높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할인 기간'에 대한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여름 할인 기간은 지난주에 끝났어요.'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다.

07 <보기>의 발표에서는 격식체 중 하십시오체의 평서형 종결 어미 '-ㅂ니다'를 사용하여 다수의 청자인 청중을 높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보기>는 다수의 대상 앞에서 발표하는 상황으로, 이는 공적인 상황이다.
② <보기>의 경우 격식체인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여 공적인 상황에서 격식을 차리고 있다.
③ 종결 어미를 통해 발표를 듣고 있는 청중을 높이는 상대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⑤ 격식을 차리는 표현을 통해 신뢰감을 줄 수 있다.

08 ㉠은 미래 시제로,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뒤에 오므로 '사건시 < 발화시'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은 현재 시제로,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시간이 화자가 말하는 시점에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므로 '사건시 = 발화시'로 표시해야 한다. ㉢은 과거 시제로,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사건이 화자가 말하는 시점 이전에 이미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므로 '사건시 > 발화시'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09 '키가 작은 꽃들이 더 화려하다.'에서 '작은'은 형용사 어간 '작-'에 현재 시제를 표시하는 관형사형 어미 '-은'이 결합한 것으로, 현재 시제를 표현한다. 과거 시제를 표현할 경우, 형용사에는 관형사형 어미 '-던'을 결합하므로 '작던'이라고 표현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외쳤다'는 '외치- + -었- + -다'로 분석되며, 동사 어간 '외치-'에 선어말 어미 '-었-'을 결합하여 과거 시제를 표현한 것이다.
③ '달린다'는 '달리- + -ㄴ- + -다'로 분석되며, 동사 어간 '달리-'에 선어말 어미 '-ㄴ-'을 결합하여 현재 시제를 표현한 것이다.
④ '파는'은 '팔- + -는'로 분석되며, 동사 어간 '팔-'에 관형사형 어미 '-는'을 결합하여 현재 시제를 표현한 것이다.
⑤ '넘치겠지'는 '넘치- + -겠- + -지'로 분석되며, 동사 어간 '넘치-'에 선어말 어미 '-겠-'을 결합하여 미래 시제를 표현한 것이다.

10 '가 있다'는 화자가 말을 하는 시점과 '선아'가 도서관에 가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시점이 일치하므로 현재 시제이다. 또한 '가 있다'는 '가- + -아 있다'의 구성으로 보조 용언 '-아 있다'를 통해 동작이 이미 끝나 그 결과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완료상이다. 진행상일 경우 보조 용언 '-고 있다'를 사용하여 '가고 있다'로 표현해야 한다.

11 ㉤의 뒤에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내용이 이어지므로, ㉤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표현하는 미래 시제가 나타나야 한다. 따라서 ㉤에는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ㄹ'을 사용한 '이어질'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이 서술어로 쓰인 문장은 '지난해'의 상황에 대한 내용이므로, ㉠에는 과거 시제를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를 사용한 '발생했다'를 쓰는 것은 적절하다.
② ㉡의 앞 내용은 유럽에서 백여 년 동안 일어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한 것이므로, ㉡에는 과거 시제를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과거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를 사용한 '진행된'을 쓰는 것은 적절하다.

③, ④ ㉢과 ㉣이 서술어로 쓰인 문장은 '과거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한 내용이므로, ㉢과 ㉣에는 과거 시제를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를 사용한 '늘어났다'와 '불어넣었다'를 쓰는 것은 적절하다.

12 서술형 ⓐ는 보조 용언 '-고 있다'를 사용하여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진행상을 표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동작상이 나타나는 표현은 보조 용언 '-고 있다'를 사용한 '변화하고 있다'와 '감소하고 있다'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에 나타나는 동작상을 '진행상'으로 썼다.	☐
'변화하고 있다'와 '감소하고 있다'를 찾아 썼다.	☐

13 ㉠은 '-겠-'을 통해 다른 친구들의 현재 상황에 대한 추측을 나타낸 것이고, ㉡은 '-겠-'을 통해 화자 자신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은 화자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므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말한 것이 맞다. 하지만 ㉠은 다른 친구들의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추측을 나타낸 것이므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

③ ㉠은 화자의 추측을, ㉡은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므로 어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은지 비교할 수 없다.

④ ㉠은 가능성이나 능력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화자의 추측을 나타낸 것이다. ㉡ 역시 화자의 소망이 아니라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⑤ ㉡은 화자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므로 화자가 아직 겪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은 화자의 추측이므로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14 ⓐ는 미래에 발생할 일을 의미하지만,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ㄴ-'을 사용하여 '줄인다'라고 표현한 문장이다. 이는 미래의 사건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② 선어말 어미 '-ㄴ-'을 사용하여 미래가 아닌 현재 시제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닌 확신과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③ 선어말 어미 '-ㄴ-'을 사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닌 확신과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④ 선어말 어미 '-ㄴ-'을 사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의 의지와 다짐이 아닌 미래에 대한 확신과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⑤ 선어말 어미 '-ㄴ-'을 사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의 능력과 가능성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신과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15 <보기>의 문장에서 '토끼'는 '호랑이'에 의해 행위를 당하고 있으므로 '토끼'의 의도나 동기는 드러나지 않는다. 피동 표현을 통해 행위를 당하는 대상인 '토끼'에게 초점을 맞추었을 뿐이다.

| 오답 풀이 | ②, ④ <보기>의 문장은 능동사 '잡다'에 피동 접미사 '-히-'를 붙여(잡- + -히- + -었- + -다) 주어인 '토끼'가 행위의 주체인 '호랑이'에 의해 잡는 동작을 당하는 것을 나타낸 피동문이다.

③, ⑤ <보기>의 문장을 능동문으로 바꾸면 행위의 주체인 '호랑이'가 문장의 주어가 되고, 행위의 대상인 '토끼'가 목적어가 된다(호랑이가 토끼를 잡았다.).

16 '만들어진다'는 능동사 '만들다'의 어간 '만들-'에 '-어지다'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 표현이므로 통사적 피동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덮였다(덮- + -이- + -었- + -다)'는 능동사 어간 '덮-'에 피동 접미사 '-이-'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사이므로 파생적 피동에 해당한다.

② '빼앗겼다(빼앗- + -기- + -었- + -다)'는 능동사 어간 '빼앗-'에 피동 접미사 '-기-'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사이므로 파생적 피동에 해당한다.

③ '업혔다(업- + -히- + -었- + -다)'는 능동사 어간 '업-'에 피동 접미사 '-히-'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사이므로 파생적 피동에 해당한다.

⑤ '파괴되었다'는 명사 '파괴'에 피동 접미사 '-되다'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사이므로 파생적 피동에 해당한다.

17 ㉡은 피동문으로 행위의 대상은 '어린이 다섯 명'이고, 행위의 주체는 '이안류'이다. 따라서 행위의 주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피동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행위의 주체인 '이안류'보다는 행위를 당하는 대상인 '어린이 다섯 명'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 행위의 주체를 밝히지 않은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②, ③ ㉠은 피동문으로 문맥을 고려할 때 행위의 대상은 '물놀이객들'이고 행위의 주체는 '이안류'이다. '이안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피동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행위의 주체인 '이안류'를 밝히지 않았다.

⑤ ㉡은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사고를 당한 대상인 '어린이 다섯 명'에게 초점을 맞춰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18 서술형 ㉡은 피동문으로, 문장의 주어인 '어린이 다섯 명'이 이안류에 휩쓸려 바깥쪽으로 떠밀린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이 문장에 사용된 피동 표현은 '휩쓸려'와 '떠밀린'이다. '휩쓸려(휩쓸- + -리- + -어)'는 능동사 '휩쓸다'의 어간 '휩쓸-'에 피동 접미사 '-리-'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사이다. 그리고 '떠밀린(떠밀- + -리- + -ㄴ)'은 능동사 '떠밀다'의 어간 '떠밀-'에 피동 접미사 '-리-'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사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에서 피동 표현이 사용된 단어로 '휩쓸려'를 찾아 썼다.	☐
㉡에서 피동 표현이 사용된 단어로 '떠밀린'을 찾아 썼다.	☐

19 '바뀌어졌다'는 피동사 '바뀌다'에 '-어지다'가 결합한 것이고, '파손되어진'은 피동사 '파손되다'에 '-어지다'가 결합한 것이다. 이는 피동 표현이 불필요하게 중복된 이중 피동 표현이므로 '바뀌었다', '파손된'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행위를 당하는 대상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 피동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 행위의 주체와 대상을 혼동한 것이 아니다.

③ ㉠은 '집 정리를 하면서'와 같은 능동 표현과 '아버지의 신발이 오빠의 신발과 바뀌어졌다.'와 같이 피동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은 '둑을 복구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와 같은 능동 표현과 '태풍으로 인해 파손되어진 둑'과 같이 피동 표현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④ ㉠과 ㉡에서는 행위의 주체보다는 행위를 당하는 대상인 '아버지의 신발'과 '둑'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피동 표현을 사용한 것이므로, 능동 표현을 사용할 곳에 피동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⑤ ㉠은 신발을 바꾼 주체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은 둑을 파손한 주체가 '태풍'이므로,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로 피동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0 제시된 문장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에는 해요체의 명령형 종결 어미 '-으세요'를 해라체의 명령형 종결 어미 '-으라'로 바꾸어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⑤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에는 상황이나 인용문이 아닌 인용절의 문법 요소나 표현 등을 문장에 맞게 바꾸어 써야 한다. 따라서 인용문의 부사어나 서술어 등은 달라지지 않는다.

② 제시된 문장에서 '거기'는 '우리'(화자를 포함한 청자)에게 가까운 곳을 가리키는 지시어이다. 따라서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에는 '거기'를 화자에게 가까운 곳을 가리키는 '여기'로 바꾸어야 한다.

③ 간접 인용에서는 인용절 뒤에 조사 '고'를 사용한다.

21 '사귈'은 능동사 '사귀다'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ㄹ'이 결합한 표현이고, '알아야'는 능동사 '알다'의 어간에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아야'가 결합한 표현이므로 '사귈 줄 알아야'에 피동 접미사를 사용한 표현은 쓰이지 않았다.

| 오답 풀이 | ① '강연을 하겠습니다'는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겠-'을 사용하여 강연의 내용을 미리 안내하고 있다.

② 프랑스의 철학자인 루소의 말을 문장 속에 넣어서 전달하고 있는데, 큰따옴표와 조사 '라고'를 통해 원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며 인용하는 직접 인용 표현을 사용하였다.

③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하는 강연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와 같이 해요체의 평서형 종결 어미와 '하겠습니다', '말했습니다', '중요합니다', '하겠습니다'와 같이 하십시오체의 평서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청자를 높이고 있다.

⑤ 강연자는 관형사형 어미 '-을'을 사용하여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맺을'이라는 표현을 통해 상대방과 원활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말하기 습관이라는 강연의 주요 내용을 드러내고 있다.

22 ㉠은 철학자의 말을 문장 속에 넣어서 전달하는 인용 표현이다. 이처럼 권위자의 말을 전달함으로써 강연을 듣는 청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흥미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인용 표현은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거나 내용을 충실히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표현으로, ㉠을 통해 강연자가 배경지식을 전달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강연의 주제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말하기 습관'이므로, 인용절의 내용이 강연자가 청중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배경지식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②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의 견해를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있다. 하지만 강연의 주제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말하기 습관'이므로 강연의 내용이 전문성을 가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인용절의 내용을 통해 청중이 가진 지적 수준을 확인하려 했다고 볼 수 없다.

④ 직접 인용을 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가져온 것은 맞지만, 인용절의 내용이 강연의 주제를 압축적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강연의 주제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말하기 습관'인데, 인용절의 내용은 폭넓은 인간관계의 필요성에 대한 것이다.

23 (가)의 글쓴이는 막대한 시설 조성 비용 및 유지비 부담과 이에 비해 저조한 시설 이용률 등의 근거를 들어 공공시설 설치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가)는 중심 화제인 '무리한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글쓴이의 입장을 드러내는 글이다.

③ (가)의 글쓴이는 '무리한', '낭비 논란', '지적', '막대한 비용', '부담' 등의 어휘를 통해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화제에 대해 글쓴이가 갖는 입장에 따라 어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가)는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드러나는 글이다. '무리한', '낭비 논란', '부담' 등은 글쓴이의 부정적 입장이 반영된 어휘이다.

⑤ (가)는 '공공시설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는 글이므로, 이 글과 반대되는 입장은 '공공시설 설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이 글과 반대되는 입장에서는 '특색 있는 공공시설 설치로 지역 경쟁력 강화', '공공시설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24 (나)는 사고 도구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다)는 미술 분야의 전문어를 사용하고 있다. 사고 도구어와 전문어는 모두 의미를 명료하게 표현하고 개념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 오답 풀이 | ① (나)는 '성립(成立)한', '유사(類似)하면서도', '독자적(獨自的)', '발전(發展)시키다' 등의 한자어를, (다)는 '수명(壽命)', '연장(延長)하는', '재질(材質)', '표면 박락(表面剝落)' 등의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다.

③ (다)는 '크랙'과 같은 외래어를 사용하였다.

④ (나)는 삼국의 미술 양식에 대해 학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발표문이고, (다)는 미술관 누리집에 실린 글로 미술 보존 환경에 대해 전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⑤ (나)는 성립(하다), 유사(하다), 독자적, 발전(시키다), 동적, 중시(하다), 지속(적), 복합(적), 작용(하다), 형성(되다), 추측(하다), 요소, 내포(하다), 구별(되다), 영향 등과 같이 논리 및 사고 전개 과정을 보여 주는 어휘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다)는 울음 현상, 표면 박락, 크랙 등 미술 분야의 전문어를 사용하였다.

25 나머지 단어들은 논리 및 사고 전개 과정을 보여 주는 사고 도구어인 반면, ㉡ '험준(險峻)한'은 '지세가 험하며 높고 가파른'이라는 뜻으로 사고 도구어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 '유사(類似)하면서도'는 '서로 비슷하면서도'라는 뜻으로, 논리 및 사고 전개 과정을 보여 주는 사고 도구어이다.

③ ㉢ '내포(內包)하고'는 '어떤 성질이나 뜻 따위를 속에 품고'라는 뜻으로, 논리 및 사고 전개 과정을 보여 주는 사고 도구어이다.

④ ㉣ '구별(區別)됩니다'는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라는 뜻으로, 논리 및 사고 전개 과정을 보여 주는 사고 도구어이다.

⑤ ㉤ '발전(發展)시켰습니다'는 '보다 낫고 더 좋은 상태로 나아가게 했습니다.'라는 뜻으로, 논리 및 사고 전개 과정을 보여 주는 사고 도구어이다.

26 '울음 현상'은 미술 분야의 전문어로 '반반하지 못하고 우글쭈글해지는 현상'을 뜻한다.

| 오답 풀이 | ① ⓐ '연장(延長)하다'는 '시간이나 거리 따위를 본래보다 길게 늘리다.'라는 뜻이다. '어떤 일을 당장 처리하지 아니하고 나중으로 미루어 두다.'는 '유보(留保)하다'이다.

③ ⓑ '표면 박락(表面剝落)'은 미술 분야의 전문어로 '금속을 입힌 표면이나 칠을 한 표면의 일부가 긁히거나 들떠 떨어진 상태'를 뜻한다. '성질이 달라지거나 물질의 질이 변함. 또는 그런 성질이나 물질.'을 뜻하는 말은 '변질(變質)'이다.

④ ⓓ '크랙'은 미술 분야의 전문어로 '거북의 등에 있는 무늬처럼 균열이 생겨서 갈라져 터지는 상태'이다. '깨어져 못 쓰게 됨.'을 뜻하는 단어는 '파손(破損)'이다.

⑤ ⓔ '재질(材質)'은 '재료가 가지는 성질'을 뜻한다. '사물이나 현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뜻하는 말은 '성질(性質)'이다.

고난도 업 오단원 심화 문제

본책 168~169쪽

01 ④ **02** ⑤ **03** ③ **04** ② **05** ① **06** ③ **07** ④

08 • 바꾼 문장: 페인트 층이 갈라져 터지거나 표면의 일부가 벗겨져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 바꾼 이유: ㉠과 같이 전문어를 사용하면 그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개념이나 표현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을 알기 쉬운 말로 바꾸어 쓰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01 제시된 문장에서는 서술어의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주격 조사 '께서'와 '가셨습니다(가- + -시- + -었- + -습니다)'의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에는 '께서'와 '-시-'가 들어가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할머니'는 서술어의 객체이다. 따라서 ㉠에는 '객체 높임'을 써야 한다.

② 주체 높임은 서술어의 주체를 높이는 표현이다. 따라서 ㉡에 써야 할 높임의 대상은 서술어 '가시다'의 주체인 '아버지'이다.

③ 제시된 문장의 청자는 '어머니'이다. 상대 높임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높임 표현이므로, ㉢에 써야 할 높임의 대상은 '어머니'이다.

⑤ '가셨습니다(가- + -시- + -었- + -습니다)'는 격식체인 하십시오체의 평서형 종결 어미 '-습니다'를 사용하여 청자인 '어머니'를 높이는 상대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따라서 ㉤에 써야 할 높임 실현 방법은 '종결 어미'이다.

02 선어말 어미 '-겠-'은 미래의 일을 나타낼 때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에서 '-겠-'은 헤아리거나 따져 보면 그렇게 된다는 뜻을 나타낸다.

| 오답 풀이 | ① '다음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에서 '-겠-'은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어미'로 사용되었다.

② '그 정도 춤은 나도 추겠다.'에서 '-겠-'은 '가능성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어미'로 사용되었다.

③ '어제 모두 피곤했겠지?'에서 '-겠-'은 '과거의 상황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로 사용되었다.

④ '문 좀 닫아 주시겠어요?'에서 '-겠-'은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어미'로 사용되었다.

03 '빌린'은 동사의 어간 '빌리-'에 관형사형 어미 '-ㄴ'을 결합하여 과거 시제를 표현한 것이다. 과거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시제이다.

| 오답 풀이 | ① '읽고 있구나'는 보조 용언 '-고 있다'를 활용하여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② '먹었거든'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었-'을 활용하여 과거 시제를 표현한 것이다. 과거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시제이다.

④ '반납해 버렸어'는 보조 용언 '-아/-어 버리다'를 활용하여 동작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낸 것이다.
⑤ '마무리할'은 동사 어간 '마무리하-'에 관형사형 어미 '-ㄹ'을 결합하여 미래 시제를 표현한 것이다. 미래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뒤에 오는 시제이다.

04 ㉠을 능동문으로 바꾸려면 피동문의 부사어인 '적군에게'를 주어로 바꾸고, 주어인 '요새가'를 목적어로 만들어야 한다(적군이 요새를 뚫었다.).

| 오답 풀이 | ① '뚫렸다(뚫- + -리- + -었- + -다)'는 능동사 '뚫다'의 어간 '뚫-'에 피동 접미사 '-리-'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사이다.
③ ㉡을 능동문으로 바꾸면 피동문의 부사어인 '경찰에'가 주어로 바뀌어 '경찰이 사건 용의자를 잡았다.'가 된다. 따라서 능동문에서 서술어의 주체는 '경찰'이 된다.
④ '나뉘다'는 동사 어간 '나누-'에 피동 접미사 '-이-'를 붙여 만든 피동사이다. 그런데 '-아지다/-어지다'를 활용하여 피동 표현을 실현할 수도 있으므로, '복합어는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누어진다.'와 같이 피동문을 만들어도 그 의미는 같다.
⑤ ㉢을 능동문으로 바꾸면 '복합어를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눈다.'인데, 이때 문장의 주체를 명료하게 설정할 수 없다.

05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에는 인용절의 시간 표현, 높임 표현, 종결 어미, 지시어 등을 문장에 맞게 적절히 바꾸어야 한다. 간접 인용은 직접 인용과 달리 화자의 현재 관점에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딸은 어제 '내일'이라고 말했지만, 화자의 현재 관점에서는 그것이 '오늘'에 해당한다. 따라서 간접 인용절에서 부사어 '내일'을 '오늘(ⓐ)'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직접 인용절에 사용된 1인칭 대명사 '제(저)'와 딸이 화자를 부르는 말인 '엄마'는 간접 인용절에서 각각 재귀 대명사 '자기(ⓑ)'와 1인칭 대명사 '나(ⓒ)'로 바꾸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직접 인용절의 서술어 '계세요'는 딸이 화자를 높이기 위해 특수 어휘 '계시다'와 해요체 명령형 종결 어미 '-어요'를 결합한 표현으로, 간접 인용절에서 '있으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보기>의 직접 인용문을 간접 인용문으로 바꾸면, '어제 딸이 나에게 오늘 자기가 시장에 갈 테니, 나는 집에 있으라고 말했다.'가 된다.

06 '알려지지'는 피동 표현을 중복하여 사용한 이중 피동이 아니다. '알려지지(알리- + -어지- + -지)'는 '알리다'의 어간 '알리-'에 '-어지다'를 결합하여 만든 피동 표현이다. '알리다'는 '알다'의 어간 '알-'에 사동 접미사 '-리-'를 붙여 만든 사동사이므로 '-리-'는 피동 접미사가 아니다. 따라서 ㉢의 '알려지지'를 '알리지'로 고치면 오히려 어색한 문장이 된다.

| 오답 풀이 | ① '말씀'은 간접 높임의 대상이므로 직접 높임을 표현하는 어휘인 '계시다'를 사용할 수 없다. '있다'의 경우 직접 높임을 표현할 때는 특수 어휘 '계시다'로 바꾸고, 간접 높임을 표현할 때는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있으시다'로 바꾸어야 한다. 따라서 '있으시겠습니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② ㉡은 부사 '어제'를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내므로, 서술어도 이에 맞추어 과거 시제로 바꾸어야 한다. 따라서 선어말 어미 '-았-'을 사용하여 '않았습니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④ ㉣은 큰따옴표를 쓰지 않은 간접 인용문이므로 이에 맞게 조사 '라고'를 '고'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⑤ '세금을 낭비한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은 공공시설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에서 쓴 문장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좋게 평함. 또는 그런 평판이나 평가.'를 의미하는 '호평(好評)'은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다. 글쓴이의 부정적인 태도를 반영하여 '허물 따위를 드러내어 폭로함.'을 의미하는 '지적(指摘)'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07 '아이가 우유를 마시고 있습니다.'는 격식체인 하십시오체의 평서형 종결 어미 '-습니다'를 사용해 청자를 높이고 있다. 또한 보조 용언에 '-고 있다'를 통해 동작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구려'는 격식체인 하오체의 감탄형 종결 어미이며, ①의 문장에는 동작상이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①은 '격식체를 사용해 청자를 높일 것'이라는 하나의 조건만을 만족한다.
② '-습니다'는 격식체인 하십시오체의 평서형 종결 어미이며, '-어 있습니다'는 동작이 끝난 후 그 결과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완료상을 표현한다. 따라서 ②는 '평서문으로 종결할 것, 격식체를 사용해 청자를 높일 것'이라는 두 개의 조건만을 만족한다.
③ '-어요'는 비격식체인 해요체의 평서형 종결 어미이며, '-고 있어요'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진행상을 표현한다. 따라서 ③은 '평서문으로 종결할 것, 동작상 중 진행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두 개의 조건만을 만족한다.
⑤ '-어'는 비격식체인 해체의 평서형 종결 어미이며, '-아 버렸다'는 동작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내는 과거 시제 완료상을 표현한다. 따라서 ①은 '평서문으로 종결할 것'이라는 하나의 조건만을 만족한다.

08 서술형 <보기 1>의 ㉠은 '균열'과 '박락' 등 미술 분야의 전문어를 사용한 문장이다. <보기 2>에서 전문어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전문어를 사용하면 전달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표현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어려워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을 알기 쉬운 말로 바꾸어 쓰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에 사용된 전문어 '균열', '박락'을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꾸어 문장을 썼다.	☐
㉠의 문장을 바꾼 이유를 전문어를 사용하면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아 썼다.	☐
㉠의 문장을 바꿈으로써 거둘 수 있는 효과로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썼다.	☐

⊕ 참고 자료

전문어

개념	직업의 특성이 언어에 반영되어 특정한 전문 분야에서 주로 쓰는 용어
특징	• 의미가 정밀하고 다의성이 적음. • 그에 대응하는 일반 어휘가 없는 경우가 많음.
장단점	• 해당 분야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나 대상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일반인과 대화할 때 사용하면 의사소통에 지장을 주므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전문어를 일상어로 풀어 사용해야 함.

03 마음을 잇는 대화

✦ 문제로 확인 본책 171~172쪽

01 ④ 02 ⑤ 03 체면 유지의 원리

01 공손성의 원리는 대화할 때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예의 바르게 말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02 협력의 원리는 대화 참여자가 대화의 목적에 맞게 서로 협력하여 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①~④는 협력의 원리를 지키기 위한 규칙이지만, ⑤는 공손성의 원리를 지키기 위한 규칙이다.

03 서술형 대화 참여자가 서로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를 줄이고, 체면을 보호하는 행위를 한다면 상대방과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보기>에서 설명하는 대화의 원리를 '체면 유지의 원리'라고 썼다.	☐

꼭 짚게 쏙 단원 평가 문제 본책 173~175쪽

01 ② 02 ③ 03 ⑤ 04 ⑤ 05 ④ 06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말한다. 07 ② 08 ⑤ 09 ③ 10 상대방(타인)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11 ② 12 ⑤

01 (가)의 '수연'은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예의를 지키지 않고 말하였으므로, 공손성의 원리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나)의 '지영'은 대화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모호하게 말하였으므로, 협력의 원리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다)의 '선배'와 '후배'는 예의를 갖추는 표현 없이 자신의 요구나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하였으므로, 체면 유지의 원리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02 (가)의 '수연'은 약속 시간에 늦은 것을 사과하는 '우진'을 배려하지 않고 타박하고 있다. 이는 공손성의 원리 중 상대를 비난하는 표현은 줄이고 칭찬하는 표현은 늘려야 한다는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수연'은 '우진'을 타박하고 있을 뿐, 중의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② '수연'은 약속 시간에 늦은 '우진'을 타박하고 있는데 이는 상황이나 맥락에는 부합하는 것이다.

④ '우진'은 약속 시간에 늦은 이유를 말하며 사과하고 있으므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우진'은 '수연'에게 약속 시간에 늦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있으므로 자신과 상대방 의견 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없다.

03 (나)의 '지영'은 무엇을 먹을지 물어보는 친구의 질문에 정보를 담지 않고 짧고 불명확하게 답변하고 있다. 이는 협력의 원리 중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칙과,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해야 한다는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지영'은 충분한 정보를 담지 않은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지 거짓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진실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언은 적절하지 않다.

② '지영'은 짧고 불명확하게 답하고 있으므로 간결하게 말해야 한다는 조언은 적절하지 않다.

③, ④ '지영'은 충분한 정보를 담지 않은 짧은 답변을 하고 있을 뿐, 듣는 사람이 요구한 정보 이상을 말하거나 목적이나 주제에서 벗어난 답변을 한 것이 아니다.

04 (다)의 '선배'는 '후배'에게 직접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후배'는 '선배'의 요청을 한마디로 거절하고 있다. 이는 체면 유지의 원리에 어긋난 대화이므로 예의를 갖추어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의 체면을 지켜 주는 내용으로 고쳐야 한

다. 따라서 '선배'는 '후배'에게 '동아리 방 청소 좀 도와줄 수 있니?'와 같은 우회적 표현으로 부탁을 하고, '후배'는 '죄송하지만', '다녀와서 할게요'와 같이 예의를 갖춘 표현으로 거절하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선배'는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고 있고 '후배' 역시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며 거절하고 있으므로, 체면 유지의 원리를 지킨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선배'는 자신이 선배라는 이유만으로 후배에게 청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후배'는 선배의 말을 맞받아치며 거절하고 있으므로 체면 유지의 원리를 지킨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선배'는 '안 바쁘면 같이 해 줄래?'와 같이 우회적으로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여 체면 유지의 원리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후배'는 예의를 갖추지 않고 직접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체면 유지의 원리를 지키지 않았다.

④ '선배'는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고 있으므로 체면 유지의 원리를 지키지 않았다. 반면 '후배'는 예의를 갖추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체면 유지의 원리를 지키고 있다.

05 (다)의 '할아버지'는 '청년'의 체면을 고려하지 않고 시끄러운 음악을 꺼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직접적이고 무례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를 들은 '청년'도 감정이 상해 예의에 어긋난 표현을 사용하여 답변하고 있다. 따라서 '할아버지'는 체면 유지의 원리를, '청년'은 공손성의 원리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② (가)의 '준서'는 '지연'의 물음에 답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으므로, 대화의 목적에 맞게 서로 협력하여 대화해야 한다는 협력의 원리를 위반한 것이다.

③ (나)의 '예원'은 '준호'를 배려하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며 말해야 한다는 공손성의 원리를 위반한 것이다.

⑤ '할아버지'는 '청년'의 체면을 고려하지 않고 시끄러운 음악을 꺼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직접적이고 무례하게 전달하고 있다.

06 서술형 (가)의 '준서'는 '지연'의 물음에 답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으므로 협력의 원리 중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말해야 한다는 규칙에 어긋난다.

평가 기준	확인 ☑
㉠에서 어기고 있는 규칙을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말한다.'는 내용이 드러나도록 썼다.	☐
㉠에서 어기고 있는 규칙을 한 문장으로 썼다.	☐

07 (나)의 '예원'은 '준호'를 배려하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공손성의 원리 중 상대를 비난하는 표현은 줄이고 칭찬하는 표현은 늘려야 한다는 규칙을 어긴 것이다. ②는 ㉡을 상대방을 칭찬하는 표현으로 적절하게 수정한 것이다. ①은 협력의 원리에 어긋나며, ③~⑤는 상대방에 대한 비난의 의미가 담겨 있다.

08 '어른이 단속하거나 꾸짖을 때 비록 잘못이 있어도 곧장 스스로 해명해서는 안 되고 …… 한참 만에 천천히 세밀한 내용으로 조목조목 말하여야 한다.'라고 했으므로 잘못이 있어도 해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항상 낮은 소리로 흥분을 가라앉히고 말을 상세하고 느리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

② '큰 소리로 떠들어 대거나 허튼소리로 시시덕거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③, ④ '부형이나 윗사람이 가르치고 타이르는 일이 있으면 다만 마땅히 머리를 숙이고 받아들이거나 해야지 자신의 주장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09 (나) 시조의 작자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돌려 말하고 있다. 이와 달리 <보기>에서는 주말에 가족끼리 외출을 하자는 '아버지'의 제안에 '딸'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자, '아들'이 거부의 뜻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나) 시조의 작자는 <보기>의 '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완곡하게 돌려 말해야 한다고 조언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나) 시조의 작자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돌려 말하고 있다. 따라서 말을 많이 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은 (나) 시조와 관련이 없다.

② (나) 시조의 작자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돌려 말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내용은 (나) 시조의 작자가 할 조언으로 적절하지 않다. 아울러 제시된 담화의 '아들'과 '딸'은 모두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④, ⑤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구별해서 해야 한다는 내용이나 남을 비난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은 (나) 시조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10 서술형 <보기>의 속담은 남이 하는 말을 신중하게 잘 들어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를 통해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는 우리말의 담화 관습을 파악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보기>의 속담에 담긴 우리말의 담화 관습을 상대방(타인)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는 내용이 드러나도록 썼다.	☐
<보기>의 속담에 담긴 우리말의 담화 관습을 4어절의 문장으로 썼다.	☐

11 제시된 담화에는 '꾸안꾸', '최애색'과 같은 줄임말이나 '아이템', '레이어드', '캐주얼'과 같은 외국어를 사용하는 현재의 담화 관습이 드러난다.

| 오답 풀이 | ① 손님이나 점원은 줄임말이나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의사를 돌려 말하기 위함이 아니다. 손님이나 점원이 줄임말이나 외국어를 사용한 것은 우리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의미를 대체하여 표현하거나 길게 설명해야 하는 말을 짧게 표현하기 위함이다.
③ 제시된 담화의 손님이나 점원은 서로를 칭찬하고 있지 않다. 점원은 손님에게 옷의 장점을 이야기하며 옷을 추천해 주고 있고, 손님은 옷이 마음에 든다는 표현을 하고 있을 뿐이다.
④ 손님은 옷을 추천해 달라고 하고 점원은 손님에게 옷을 추천해 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대화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겸양'은 '겸손한 태도로 남에게 양보하거나 사양함.'이라는 뜻으로, 옷을 추천해 달라는 손님이나 옷을 추천해 주는 점원의 태도에 겸양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

12 <보기>는 과거에는 겸손과 겸양의 태도로 자신을 낮추어 말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지만, 오늘날에는 자신의 장점을 표현하거나 자신감 있는 태도로 말하는 경우가 많음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를 통해 담화 관습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과거와 현재의 담화 관습의 차이를 파악했을 때 미래의 담화 관습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참고 자료

우리말의 담화 관습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 안에서는 각 언어 공동체 특유의 담화 관습이 있다. 우리말에도 다음과 같이 우리말을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지켜 내려온 담화 관습이 존재한다.

- 신중하게 말하기
- 돌려 말하기
- 겸손하게 말하기
- 경청하고 가려듣기

고난도 업 모단원 심화 문제

본책 176~177쪽

01 ⑤ **02**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말해야 한다. **03** ④ **04** ④ **05** ① **06** ① **07** (다)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솔직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담화 관습이 드러난다.

01 '해경'은 부탁을 하는 상황에서 '좀'이나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등의 표현을 통해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너도 책 더 빌릴 겸'과 같이 상대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고 있다.

02 서술형 '준열'은 요즘 무슨 책을 읽냐는 질문에 대해 관련 없는 정보까지 불필요하게 많이 제공하고 있다. 이는 협력의 원리 중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칙과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말해야 한다는 규칙을 어긴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칙을 썼다.	☐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말해야 한다.'는 규칙을 썼다.	☐

03 제시된 자료의 (가)에서 '할아버지'는 '청년'의 체면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요구를 직접적이고 무례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이를 들은 '청년'은 감정이 상해 예의에 어긋난 표현을 사용하여 말하고 있다. 이에 반해 (나)에서 '할아버지'는 '청년'의 체면을 고려하여 우회적이고 간접적으로 자신의 요구를 '청년'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이를 들은 '청년'은 '할아버지'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체면을 보호하는 행위가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가)에서도 '할아버지'는 자신의 요구를 간결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나)에서 자신을 낮춰 겸손하게 말하는 표현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가)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가)에서 발생한 문제는 두 사람이 나이와 신분에 맞지 않는 대화를 했기 때문이 아니다.

04 <보기>에서 '언니'는 '나도 그 옷이 마음에 든다. 내일은 나 빌려줘.'와 같이 예의를 갖추는 표현 없이 자신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동생'은 '언니'와 어제 산 옷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며 옷을 빌려 달라는 '언니'의 말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대화 목적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동생'은 옷을 빌려 달라는 '언니'의 말에 '싫어. 언니도 용돈 모아서 사 입어.'라고 한마디로 거절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동생'은 '언니'의 질문과 요청에 충분한 정보를 담아 명료하게 대답하고 있다.
⑤ '언니'는 '동생'에게 '나도 그 옷이 마음에 든다. 내일은 나 빌려줘.'라고 자신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무례하게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에게 부담되는 표현은 줄이고 이익이 되는 표현은 늘린 것이라 볼 수 없다.

05 ㉠은 낮은 소리로 신중하고 느리게 말하며, 허튼소리를 하거나 떠드는 것을 삼가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는 말을 삼가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담화 관습이 반영되어 있다. ⓐ '물이 깊을수록 소리가 없다.'는 '덕이 높고 생각이 깊은 사람은 겉으로 떠벌리고 잘난 체하거나 뽐내지 않는다는 말.'이고, ⓒ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아무리 비밀스럽게 한 말도 남의 귀에 들어가기 쉬우니 항상 말조심하라는 말.'로, ⓐ와 ⓒ 모두 말을 삼가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담화 관습이 반영되어 있다.

| 오답 풀이 | ⓑ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자기가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하여야 남도 자기에게 좋게 한다는 말.'로, 상대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배려하며 말해야 한다는 담화 관습이 반영되어 있다.

ⓓ '세 살 먹은 아이 말도 귀담아들으랬다.'는 '남이 하는 말을 신중하게 잘 들어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는 담화 관습이 반영되어 있다.

ⓔ '고기는 씹어야 맛이요, 말은 해야 맛이라.'는 '하고 싶은 말이나 해야 할 말은 시원히 다 해 버려야 좋다는 말.'로, 마땅히 할 말은 해야 한다는 담화 관습이 반영되어 있다.

06 (나)의 시조에는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돌려 말하는 과거의 담화 관습이 드러난다. ①의 아들 역시 용돈이 부족하다는 자신의 생각을 아버지에게 돌려서 표현하고 있으므로 (나)와 같은 담화 관습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07 서술형 (다)에서 아들과 딸은 아버지에게 완곡한 표현을 쓰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는 윗사람에게 자신의 주장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담화 관습이 드러나는 (가)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돌려 말하는 담화 관습이 드러나는 (나)와는 다른 오늘날의 담화 관습을 보여 준다.

평가 기준	확인 ☑
(다)에 자신의 의사를 솔직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오늘날의 담화 관습이 드러남을 썼다.	☐
(다)의 담화 관습이 윗사람에게 자신의 주장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가)의 담화 관습과 다름을 드러내었다.	☐
(다)의 담화 관습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돌려 말하는 (나)의 담화 관습과 다름을 드러내었다.	☐

대단원 평가 문제

본책 178~183쪽

01 ② **02** ① **03** ③ **04** ⑤ **05** ⑤ **06** [바틀], '을'은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07** ② **08** ⑤ **09** ④ **10** 재호는 할머니께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시라고 말씀드렸다. **11** ① **12** ② **13** ⑤ **14** ① **15** ⑤ **16** 한자어를 사용하여 정확하게(세부적으로, 명료하게) 의미를 전달한다. **17** ③ **18** ② **19** 준서가 협력의 원리를 지키지 않았다. **20** ③ **21** ⑤ **22** ① **23** ④

01 '감'과 '곰'은 'ㅏ'와 'ㅗ'에 의해 의미가 달라지는 최소 대립쌍이다.

| 오답 풀이 | ① '강'과 '창'의 경우 중성과 종성은 같지만, 초성 'ㄱ'과 'ㅊ'에 의해 의미가 달라지는 최소 대립쌍이다.

③ '매'과 '무'의 경우 초성은 같지만, 중성 'ㅐ'과 'ㅜ'에 의해 의미가 달라지는 최소 대립쌍이다.

④ '밖'과 '방'의 경우 초성과 중성은 같지만, 종성 'ㄲ'과 'ㅇ'에 의해 의미가 달라지는 최소 대립쌍이다.

⑤ '숱'과 '숲'의 경우 초성과 중성은 같지만, 종성 'ㅌ'과 'ㅍ'에 의해 의미가 달라지는 최소 대립쌍이다.

02 '써서'는 용언의 어간 '쓰-'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어서'가 결합하면서 모음 'ㅡ'가 탈락한 것이다. 이러한 모음 탈락은 표기에도 반영되어 모음이 탈락된 '써서'로 적는다. '굳이'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구지]로 발음하지만, 이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 '좋고'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조:코]로 발음되지만, 이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걷기'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걷:끼]로 발음하지만, 이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지나서'는 용언의 어간 '지나-'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아서'가 결합하면서 한쪽의 'ㅏ'가 탈락한다. 이러한 모음 탈락은 표기에도 반영되어 모음이 탈락된 '지나서'로 적는다.

03 '웃옷'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음절 끝의 'ㅅ'이 'ㄷ'으로 바뀌어 발음되며 [운온]이 되고, 앞 음절의 'ㄷ'이 뒤 음절의 첫소리로 이어져 [우돋]으로 발음된다. 이처럼 교체와 연음 현상만 일어나므로, 음운 변동이 일어난 후에도 음운의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4 → 4개).

| 오답 풀이 | ① '잠가야'는 용언의 어간 '잠그-'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아야'가 결합하면서 모음 'ㅡ'가 탈락한다. 따라서 음운 변동이 일어난 후에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어들며 표기에도 반영된다(7→6개).

② '색연필'은 두 형태소가 결합하여 합성어가 형성되는 환경에서 두 형태소 사이에 'ㄴ'이 덧붙어 발음되는 ㄴ 첨가가 일어나 [색

년필]로 바뀐다. 그리고 뒤에 오는 'ㄴ'의 영향으로 앞말의 끝소리 'ㄱ'이 비음인 'ㅇ'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비음화가 일어나 [생년필]로 발음된다. 이처럼 첨가와 교체 현상이 일어나므로, 음운 변동이 일어난 후 음운의 개수가 하나 늘어난다(8→9개).

④ '굽히다'는 앞말의 받침에 있는 'ㅂ'과 뒷말의 첫소리인 'ㅎ'이 만나 두 음운이 합쳐져 거센소리 'ㅍ'으로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구피다]로 발음된다. 이처럼 축약 현상이 일어나므로, 음운 변동이 일어난 후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어든다(7→6개).

⑤ '닫히는'은 앞말의 받침에 있는 'ㄷ'과 뒷말의 첫소리인 'ㅎ'이 만나 두 음운이 합쳐져 거센소리 'ㅌ'으로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다티는]이 된다. 그리고 'ㅌ'이 모음 'ㅣ'를 만나 구개음인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다치는]으로 발음된다. 이처럼 축약과 교체 현상이 일어나므로, 음운 변동이 일어난 후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어든다(8→7개).

04 '낱낱이'는 'ㅌ'이 모음 'ㅣ'를 만나 구개음인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구개음화([낟:나치])와 음절의 끝에 오는 'ㅌ'이 'ㄷ'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낟:나치]), 그리고 받침 'ㄷ'이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 '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비음화가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난:나치]로 발음된다.

| 오답 풀이 | ① '꺾는'은 음절의 끝에 오는 'ㄲ'이 'ㄱ'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꺽는])과 받침 'ㄱ'이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 'ㅇ'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비음화가 적용되어 [껑는]으로 발음된다.

② '기뻐서'는 용언의 어간 '기쁘-'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어서'가 결합하면서 모음 'ㅡ'가 탈락하는 모음 탈락이 일어나 [기뻐서]로 발음된다.

③ '맨입'은 두 형태소가 결합하여 파생어가 형성되는 환경에서 두 형태소 사이에 'ㄴ'이 덧붙어 발음되는 ㄴ 첨가가 일어나 [맨닙]으로 발음된다.

④ '급박하다'는 음절 끝의 자음 'ㅂ' 뒤에 오는 'ㅂ'이 된소리 'ㅃ'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된소리되기와 예사소리 'ㄱ'이 'ㅎ'과 만나 두 음운이 축약되어 거센소리 'ㅋ'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급빠카다]로 발음된다.

05 '산란기'는 비음 'ㄴ'이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으로 유음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유음화가 일어나 [살:란기]로 발음된다.

| 오답 풀이 | ① '아십니까'는 받침 'ㅂ'이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 'ㅁ'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비음화가 일어나 [아:심니까]로 발음된다. '말합니다', '돌아갑니다', '성장합니다', '있습니까' 역시 받침 'ㅂ'이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 'ㅁ'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비음화가 일어나, 각각 [말:함니다], [도라감니다], [성장함니다], [읻씀니다]로 발음된다.

② '숲과'에서 '숲'의 음절 끝에 오는 자음 'ㅍ'은 뒷말의 첫 음운이 자음이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ㅂ'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숲에서'의 음절 끝에 오는 'ㅍ'은 뒷말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이므로 뒤 음절의 첫소리로 이어져 발음된다. 따라서 [숩꽈], [수페서]와 같이 'ㅍ'의 발음이 달라진다. 음절의 처음에 오는 'ㅇ'은 음가가 없는 글자이다.

③ '같이'는 앞말의 끝소리 'ㅌ'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인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가치]로 발음된다. 이는 잇몸소리인 'ㅌ'보다 센입천장소리인 'ㅊ'이 모음 'ㅣ'가 소리 나는 위치와 더 가까워 발음을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④ '낳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적용되어 [난:는]으로 발음된다. '낳고'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나:코]로 발음된다. 따라서 '낳'의 'ㅎ'은 서로 다르게 발음될 뿐만 아니라, 일어나는 음운 변동 현상의 종류도 다르다.

+ 참고 자료

연음 현상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이어질 때 앞 음절의 끝소리가 뒤 음절의 첫소리가 되는 것을 말한다.

06 서술형 구개음화는 앞말의 끝소리 'ㄷ,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ㅖ'로 시작하는 형태소를 만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밭을'의 경우 '을'은 형식 형태소이지만 모음 'ㅣ'나 반모음 'ㅖ'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바츨]이 아니라 [바틀]로 발음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을'은 모음 'ㅣ'나 반모음 'ㅖ'로 시작하지 않음을 썼다.	☐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음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7 '꽃다발'은 음절의 끝에 오는 'ㅊ'이 'ㄷ'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꼳다발])과 음절 끝 'ㄷ' 뒤에 오는 'ㄷ'이 된소리 'ㄸ'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된소리되기가 적용되어 [꼳따발]로 발음된다.

| 오답 풀이 | ① '탓하다'는 음절의 끝에 오는 'ㅅ'이 'ㄷ'으로 발음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탇하다])과 예사소리 'ㄷ'이 'ㅎ'과 만나 두 음운이 축약되어 거센소리 'ㅌ'으로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적용되어 [타타다]로 발음된다.

③ '영업용'은 두 형태소가 결합하여 파생어가 형성되는 환경에서 두 형태소 사이에 'ㄴ'이 덧붙어 발음되는 ㄴ 첨가가 일어나 [영업뇽]이 된다. 뒤에 오는 'ㄴ'의 영향으로 받침 'ㅂ'이 비음인 'ㅁ'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비음화가 일어나 [영엄뇽]으로 발음된다.

④ '담갔고'는 용언의 어간 '담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았-'이 결합하면서 모음 'ㅡ'가 탈락하는 모음 탈락이 일어난다.

그리고 음절의 끝에 오는 'ㅆ'이 'ㄷ'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담갇고])과 음절 끝 'ㄷ' 뒤에 오는 'ㄱ'이 된소리 'ㄲ'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된소리되기가 적용되어 [담갇꼬]로 발음된다.

⑤ '홑이불'은 음절의 끝에 오는 'ㅌ'이 'ㄷ'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혿이불])과 두 형태소가 결합하여 파생어가 형성되는 환경에서 두 형태소 사이에 'ㄴ'이 덧붙어 발음되는 ㄴ 첨가([혿니불]), 그리고 받침 'ㄷ'이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 '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비음화가 적용되어 [혼니불]로 발음된다.

08 '샅샅이'는 앞말의 끝소리 'ㅌ'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인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샅사치]로, 음절 끝의 'ㅌ'이 'ㄷ'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삳사치]로, 그리고 음절 끝 'ㄷ' 뒤에 오는 'ㅅ'이 된소리 'ㅆ'으로 발음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삳싸치]로 발음된다. 이와 같은 음운 변동 현상은 모두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은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 음운 변동 현상을 표기에 반영하여 생긴 오류이다.

② ㉠ '어떠캐'는 '어떡해'를 잘못 표기한 것이다. '어떡해'는 예사소리 'ㄱ'이 'ㅎ'과 만나 두 음운이 축약되어 거센소리인 'ㅋ'으로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어떠캐]로 발음된다.

③ ㉡ '알아볼께'는 '알아볼게'를 잘못 표기한 것이다. '알아볼게'는 'ㄹ'로 시작하는 어미 '-ㄹ게'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알아볼께]로 발음된다.

④ ㉢ '심난하다'는 '심란하다'를 잘못 표기한 것이다. '심란하다'는 'ㄹ'이 앞말의 끝에 오는 비음 'ㅁ'의 영향을 받아 비음 '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비음화가 일어나 [심난하다]로 발음된다.

09 '주신'은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서술의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또한 관형사형 어미 '-ㄴ'을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 '안녕하세요'는 해요체의 의문형 종결 어미인 '-세요'를 사용하여 편지글의 수신자인 '할머니'를 높이는 표현이다.

② ㉡ '저 재호예요'는 해요체의 평서형 종결 어미인 '-에요'와 화자를 낮추는 '저'라는 어휘를 사용하여 상대 높임을 표현하고 있다.

③ ㉢ '보내고 있어요'는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현재 시제이며, 보조 용언 '-고 있다'를 사용하여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 진행상을 나타내고 있다.

⑤ ㉤ '뵈러'의 기본형은 '뵈다'로, 이는 서술의 객체인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높이는 특수 어휘이다.

10 서술형 ⓐ를 간접 인용문으로 바꾸려면 우선 명령형 종결 어미 '-세요'를 간접 명령을 나타내는 '-시라'로 바꾸고 간접 인용문에 사용하는 조사 '고'를 붙여야 한다. 따라서 ⓐ를 '재호는 할머니께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시라고 말씀드렸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종결 어미를 '-시라'로 바꿔 썼다.	☐
인용절 뒤에 조사 '고'를 썼다.	☐
'재호는 할머니께 ~ 말씀드렸다.'의 형식으로 썼다.	☐

11 '잇따르고 있습니다'는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현재 시제이며, 보조 용언 '-고 있다'를 사용하여 진행상을 나타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② '보도합니다'는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현재 시제이다.

③ '떠 있습니다'는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현재 시제이며, 보조 용언 '-어 있다'를 사용하여 완료상을 나타내고 있다.

④ '타고 있던'은 관형사형 어미 '-던'을 사용한 과거 시제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다. 또한 보조 용언 '-고 있다'를 사용하여 진행상을 나타내고 있다.

⑤ '이어질'은 관형사형 어미 '-ㄹ'을 사용한 미래 시제로, 사건시가 발화시 뒤에 온다.

⊕ 참고 자료

동작상의 실현 방법

동작상은 대체로 보조 용언으로 실현된다.

- 진행상: '-고 있다', '-아/-어 가다' 등
- 완료상: '-아/-어 있다', '-아/-어 버리다' 등

12 <보기>는 사고를 유발한 주체인 '이안류'가 주어인 능동문이고, ⓐ는 사고를 당한 '어린이 다섯 명'이 주어인 피동문이다.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사고를 당한 대상인 어린이들에게 초점을 맞춰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④, ⑤ ⓐ는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이안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보도하는 사람의 주관을 드러내거나 시청자의 주체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추측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이안류'는 자연 현상이므로 사고를 유발한 주체인 '이안류'의 책임을 숨기기 위해 피동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13 ㉤은 높이지 않아야 할 '제품'을 높여서 표현했기 때문에 '제품이세요'를 '제품이에요'로 고친 것이다. 한 문장에서 높임의 대상은 둘 이상이 올 수도 있으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가시랬다'는 '가시라고 했다'의 줄임말로, '가다'의 주체인 '나'를 높이고, '했다'의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지 않은 표현이다. 따라서 높임의 대상이 아닌 '나'에 대한 높임 표현을 고쳐 '가라고'로, 높임의 대상인 '아버지'를 높여 '하셨다'로 고쳐야 한다. '가라셨다'는 '가라고 하셨다'의 줄임말이다.
② '어제'는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이므로 이에 맞추어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았-'을 사용해야 한다. '간다'는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ㄴ-'을 사용한 것이다.
③ 직접 인용문에는 조사 '라고'를, 간접 인용문에는 조사 '고'를 사용해야 한다. ㉢은 큰따옴표를 쓰지 않은 간접 인용문이므로 조사 '라고'를 '고'로 고쳐야 한다.
④ '불려지던'은 능동사 어간 '부르-'에 피동 접미사 '-리-'와 '-어지다'를 결합한 것이다. 이는 불필요하게 피동 표현을 중복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불리던'으로 고쳐야 한다.

14 '께'와 '드린'은 문장의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는 표현이며, '놓여'는 능동사 어간 '놓-'에 피동 접미사 '-이-'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사이다. 또한 '놓여 있다'는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현재 시제로, 보조 용언 '-어 있다'를 사용하여 완료상을 나타낸다.

| 오답 풀이 | ② '좋아하시는'의 선어말 어미 '-시-'는 서술어의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피어 있다'는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현재 시제이며, 보조 용언 '-어 있다'를 사용하여 완료상을 나타낸다. 하지만, 피동 접미사가 결합한 피동사는 드러나지 않는다.
③ '주세요'는 서술어의 주체이자 청자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으며, '잠겨'는 능동사 어간 '잠그-'에 피동 접미사 '-이-'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사이다. '잠겨 있는'은 관형사형 어미 '-는'을 사용하여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며, 보조 용언 '-어 있다'를 사용하여 완료상을 나타낸다.
④ 특수 어휘 '뵈다'는 문장의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으며, '쌓인'은 능동사 어간 '쌓-'에 피동 접미사 '-이-'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사이다. '가는 중이다'는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현재 시제이자 진행상을 나타낸다.
⑤ '퇴근하신'의 선어말 어미 '-시-'와 조사 '께서', 특수 어휘 '계시다'는 서술의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숙이고 계셨다'는 선어말 어미 '-었-'을 사용한 과거 시제이며, 보조 용언 '-고 있다(계시다)'를 사용하여 진행상을 나타낸다. 피동 접미사가 결합한 피동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15 '공공시설 운영과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매년 누적됩니다.'는 공공시설의 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므로 <보기>를 지지하는 입장의 댓글이라고 보기 어렵다.

| 오답 풀이 | ①, ② '기여', '전문적', '적극적'과 같은 어휘를 통해 필자가 공공시설 설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임을 알 수 있다.
③ '더 나은 환경 조성', '도움'과 같은 어휘는 긍정적 입장을 반영하는 어휘이므로, '공공시설은 더 나은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됩니다.'와 같은 댓글은 이 기사와 같은 입장을 나타낸다.
④ 기사 제목의 '특색 있는'과 '경쟁력 강화'는 긍정적인 입장이 반영된 어휘인 반면, '무리한'과 '세금 낭비 논란'은 부정적 입장이 반영된 어휘이다.

16 서술형 <보기>는 '다릅니다'라는 고유어를 '구별됩니다'라는 한자어로 바꾼 것이다. 이처럼 한자어를 사용하면 고유어보다 세부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한자어를 사용했음을 썼다.	☐
의미를 정확하게(세부적으로, 명료하게) 전달한다는 내용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17 (나)의 '지영'은 무엇을 먹을지 물어보는 친구의 질문에 대화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모호하게 말하고 있다. 이는 대화의 원리 중 협력의 원리를 어긴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가)의 '우진'은 자신이 늦은 이유를 설명하며 약속 시간에 늦은 것을 사과하고 있다.
② (가)의 '수연'은 약속 시간에 늦은 것을 사과하는 '우진'을 배려하지 않고 타박하고 있다. 이는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예의를 지키지 않고 말한 것으로, 대화의 원리 중 공손성의 원리를 어긴 것이다. 그러나 '우진'이 늦은 것에 대해 반응하고 있는 것이므로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에 어긋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⑤ (다)의 '선배'는 '후배'에게 직접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후배'는 '선배'의 요청을 한마디로 거절하고 있다. 이는 예의를 갖추는 표현 없이 자신의 요구나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하게 한 것으로, 대화의 원리 중 체면 유지의 원리에 어긋난 것이다. 따라서 '선배'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중의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설명과 '후배'가 '선배'의 체면을 보호해 주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8 (가)의 '수연'은 약속 시간에 늦은 것을 사과하는 '우진'을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타박하여 '우진'을 당황하게 하였다. 이는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예의를 지키지 않고 말한 것으로, 공손성의 원리 중 상대를 비난하는 표현은 줄이고 칭찬하는 표현은 늘려야 한다는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②의 '예원' 역시 새로 산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보여 주는 '준호'를 배려하지 않고 말하고 있으므로 공손성의 원리를 지키지 않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하빈'은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은 줄이고 자신을 낮추는 표현은 늘리는 공손성에 따른 원리의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③ '아들'은 '어머니'의 물음에 답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

만 하고 있다. 대화를 할 때 대화 참여자는 대화의 목적에 맞게 서로 협력하여 대화해야 한다는 협력의 원리를 지키지 않고 있다.

④ '영철'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는 무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⑤ '은정'은 상대가 원하지 않은 정보를 불필요하게 많이 제공하고 대화의 주제에 맞지 않는 내용을 말하고 있으며 협력의 원리를 지키지 않고 있다.

19 서술형 <보기>의 '준서'는 '지연'의 질문에 맞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다. 이는 대화 참여자가 대화의 목적에 맞게 서로 협력하여 대화해야 한다는 협력의 원리를 어긴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대화의 원리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 '준서'임을 썼다.	☐
대화의 원리 중 협력의 원리를 지키지 않았음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20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는 것도 우리말의 담화 관습으로 볼 수 있으나 (가)~(다)에 이러한 내용은 드러나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 ① (가)와 (나)에 드러나는 과거의 담화 관습과 (다)에 드러나는 현재의 담화 관습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 담화 관습은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고 할 수 있다.

②, ④ (가)에는 낮은 소리로 신중하고 느리게 말하며 허튼 소리를 하거나 떠드는 것을 삼가야 하는 등 과거의 담화 관습이 나타나며, (나)의 시조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돌려 말하는 과거의 담화 관습이 나타난다. (다)에는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때 완곡한 표현을 쓰기보다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현재의 담화 관습이 나타난다. 따라서 (나)의 시조와 (다)의 '아들'과 '딸'이 의도를 전달하는 방식은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⑤ (가)에서는 윗사람이 가르치는 일을 마땅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는 담화 관습이 나타나며, (나)의 시조에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돌려 말하는 담화 관습이 나타난다. (다)에서 '아들'과 '딸'은 '아버지'에게 완곡한 표현을 쓰지 않고 분명하게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가)와 (나) 시조를 쓴 작자의 관점에서 (다)의 '아들'과 '딸'의 말하기 태도는 바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21 (가)에는 낮은 소리로 신중하게 말하며 허튼소리를 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과거의 우리말의 담화 관습이 나타나 있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는 가루는 체에 칠수록 고와지지만 말은 길어질수록 시비가 붙을 수 있고 마침내는 말다툼까지 가게 되니 말을 삼가라는 뜻이다.

| 오답 풀이 | ①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이 곱다.'는 '자기가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하여야 남도 자기에게 좋게 한다는 말.'로, 상대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배려하여 말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② '세 살 먹은 아이 말도 귀담아들으랬다.'는 '남이 하는 말을 신중하게 잘 들어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③ '고기는 씹어야 맛이요, 말은 해야 맛이라.'는 '하고 싶은 말이나 해야 할 말은 시원히 다 해 버려야 좋다는 말.'로, 마땅히 할 말은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④ '말이 고마우면 비지 사러 갔다가 두부 사 온다.'는 '상대편이 말을 고맙게 하면 제가 생각하였던 것보다 훨씬 더 후하게 해 주게 된다'는 말로, 말의 힘을 강조하고 있다.

22 '가마귀', '백로'라는 대조적 소재를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으며(ㄱ), 고려 유신에 대한 비판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ㄴ).

| 오답 풀이 | ㄷ. 작가가 조선 개국에 참여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했으므로 반성하려는 목적에서 쓴 글이라고 볼 수 없다.

ㄹ. 검은색과 흰색의 색채 이미지가 드러나지만 이를 통해 대상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23 <보기>에서는 과거의 담화 관습을 오늘날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보완하고 계승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과거의 담화 관습의 긍정적인 부분과 현재의 담화 관습의 긍정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보완하고 계승하는 내용이 담긴 ④가 가장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② 과거의 담화 관습은 어른 앞에서 속마음을 감추거나 의견을 내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해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③ (다)에는 줄임말이나 외국어를 사용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돌려 말하기는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을 돌려 말하는 것이지 주제에 어긋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5. 생각의 힘을 키우는 설득

01 학교 급식에 '채식의 날'을 도입해야 한다

문제로 확인 본책 188~195쪽

01 ① 02 ⑤ 03 1. 축산업이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이다. 2. 축산업으로 인한 토양 오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04 ⑤ 05 ④ 06 ③ 07 ③ 08 ④ 09 ④ 10 ④ 11 ③ 12 ⑤ 13 ⑤ 14 ③ 15 숙의 시간

01 이 토론의 처음에 제시된 사회자의 발언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채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토론의 배경과, 학교 급식에 '채식의 날'을 도입해야 한다는 토론의 논제를 알 수 있다.

02 '찬성 1'의 입론을 통해 미국 뉴욕과 프랑스의 채식 급식 관련 사례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채식 급식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으며, '찬성 1'은 다른 나라가 채식 급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다.

03 서술형 '찬성 1'은 축산업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그로 인해 환경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축산업으로 인해 토양이 오염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식의 날'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축산업이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찾아 썼다.	☐
축산업으로 인한 토양 오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찾아 썼다.	☐

04 '반대 2'는 '채식의 날'을 도입한다고 해도 환경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찬성 측 주장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05 '반대 1'에서 반대 측은 육식을 줄여도 환경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여 '채식의 날'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06 '반대 1'의 입론에서는 농업으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지만 이 때문에 쌀이나 채소를 적게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뿐 쌀이나 채소의 소비량을 줄여야 한다고 하지 않았다.

07 '찬성 1'은 '반대 1'이 먹거리의 종류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음에도 '먹거리'라는 용어로 묶어 단순하게 말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08 ㄴ. '반대 1'은 상대측이 의문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환경 오염에 대처하는 축산업계의 대응을 예시로 들어 답변하고 있다.
ㄹ. '반대 1'은 상대측이 지적한 사항에서 환경 오염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임을 언급하며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09 '찬성 2'는 입론에서 '채식의 날'을 도입하면 동물 복지와 생명 윤리를 실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 2'는 입론에서 동물 복지와 생명 윤리의 문제는 공장식 축산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며 '채식의 날' 도입의 대안으로 동물 복지 인증 식재료 사용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토론 과정에서 드러난 필수 쟁점은 "채식의 날'을 도입하면 동물 복지와 생명 윤리의 실천에 동참할 수 있다.'이다.

10 '찬성 2'는 '반대 2'의 의견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사육 환경과 도축 방법을 개선해도 육류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반대 측의 의견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11 '반대 2'는 '채식의 날' 도입이 축산업의 비인도적인 사육 방식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대 2'는 문제의 근본 원인이 공장식 축산에 있다고 보고, '채식의 날' 도입보다는 동물 복지 인증 제도를 확산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해결책이라고 한다.

오답 풀이 ① '반대 2'는 축산업의 비인도적인 사육 방식을 육류 소비와 관련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②, ④ '반대 2'는 동물 복지 인증을 받은 식재료를 급식 식단에 활용하고 학생들에게 생명 윤리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⑤ '반대 2'는 우리나라에서는 동물 복지 축산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인증 표시를 보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12 이 토론은 토론의 과정 중 반론 단계를 다루고 있다. 반론 단계에서는 입론과 반대 신문을 통해 드러난 상대측 주장의 오류와 허점에 대해 반박하고, 논쟁에 대해 자신의 강점과 상대측의 약점을 자신의 입장에서 재정비하여 최후 진술한다.

13 사회자는 토론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발언 순서와 시간을 관리하며, 토론 참여자들이 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그러나 특정 질문을 던져 토론 참여자들의 주제를 제한하거나 토론에 집중하게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자의 역할이 아니다.

14 '찬성 2'는 '채식의 날' 도입을 '더 큰 가치의 실현과 관련된 문제'라고 표현하며, '채식의 날' 도입을 통해 육식을 줄이면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ㄷ)고 반론하고 있으며, '찬성 1'은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강조하면서 '채식 급식'을 도입하는 일이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ㄹ)이라고 반론하고 있다.

15 서술형 숙의 시간은 질문이나 답변을 준비하려고 양측에서 요청하는 회의 시간으로, 숙의 시간의 횟수와 시간은 토론 전에 결정한 내용을 따른다.

꼭집게 쏙 모단원 평가 문제

본책 196~199쪽

01 ⑤ **02** ④ **03** ③ **04** 1. 육식 위주의 식생활이 환경 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2. 육식을 줄이려는 노력은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05** ③ **06** ② **07** ④ **08** 반대 신문식 토론 **09** ⑤ **10** ③ **11** ④ **12** ① **13**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의 노력을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된다. **14** ⑤

01 ⑤는 협상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며, 토론은 어떤 논제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논증을 구성하여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말하기에 해당한다.

02 이 토론의 논제는 '학교 급식에 '채식의 날'을 도입해야 한다'로 정책 논제에 해당한다. 정책 논제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정책의 도입 여부를 논하는 문제로,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를 그 예시로 들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③ 사실의 진위 여부를 논하는 사실 논제이다. ②, ⑤ 선악, 시비 등 가치를 다루는 가치 논제이다.

03 (다)는 찬성 측의 입론에 대한 반대 측의 반대 신문에 해당한다. 반대 신문 단계에서는 상대측의 입론이 끝난 뒤에 상대측 논증의 논리적인 허점이나 오류를 지적한다. (다)에서도 반대 측이 찬성 측이 제시한 주장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04 서술형 찬성 측은 축산업 때문에 환경 오염이 심각하고 육식을 줄이는 것이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반대 측은 축산업이 환경 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육식을 줄여도 환경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양측의 의견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세부 주장이 쟁점이며, 논제와 관련해 반드시 짚어야 하는 쟁점을 필수 쟁점이라고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육식 위주의 식생활이 환경 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필수 쟁점을 썼다.	☐
'육식을 줄이려는 노력은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필수 쟁점을 썼다.	☐

05 '찬성 1'은 (나)에서 축산업으로 인한 토양 오염 문제가 심각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육식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06 (나)에서 찬성 측은 미국의 뉴욕, 프랑스 등의 '채식의 날' 시행 사례를 제시하여 육식 위주의 식생활에 대해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 법으로 제정되었을 때의 효과를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다)에서는 반대 측이 '채식의 날'을 도입하는 것이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 의문을 가지자, 찬성 측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를 근거로 들어 일주일에 한 번 채식 식단을 실천했을 때 환경에 미치는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③ (나)에서 찬성 측은 축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과 관련된 유엔 식량 농업 기구의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축산업이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함을 제시하고 있다.
④ (라)에서 반대 측은 축산업이 발생시키는 온실가스의 수치는 과장된 면이 있다며 유엔 식량 농업 기구의 조사 자료를 근거로 들고 있다.
⑤ (마)에서 반대 측은 메탄가스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물질을 개발해 소의 사료와 섞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축산업계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07 상대방의 논증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는 주장과 근거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이유와 근거에서 주장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 오류는 없는지,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정보는 없는지, 논증의 내용이 현실이나 삶의 이치에 부합하는지도 평가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해야만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08 서술형 <보기>와 토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을 때, 이 토론은 반대 신문식 토론임을 알 수 있다. 반대 신문식 토론은 어떤 논제에 대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여 상대방의 논증을 반박한다. 또한 반대 신문식 토론의 발언에는 입론, 반대 신문, 반론이 있고 토론 참여자는 각 발언의 성격에 맞게 발언해야 한다.

09 토론을 할 때는 발언 순서와 시간을 준수해야 하므로 중요한 내용이라도 상대방의 발언이 끝난 후에 말해야 한다. 또한 쟁

점에 따른 주장을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들어 제시해야 한다. 또한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상대측 주장을 들을 때는 주장에 논리적 오류가 없는지 파악해야 한다.

10 이 토론에서 찬성 측은 '채식의 날'을 도입하는 것이 동물 복지와 생명 윤리 차원에서 의미 있는 실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대 측은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11 '반대 2'의 입론에서 나타난 주장은 '축산업의 비인도적 사육 방식을 육류 소비와 관련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이다. 학교 차원의 생명 윤리 실천 교육은 '채식의 날' 도입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12 (나)에서 '반대 1'은 '공장식 축산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라고 먼저 상대방의 발언을 언급한 후 사육 환경 및 도축 방식을 개선한다면 육류 소비를 줄일 필요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13 서술형 (나)에서 '찬성 2'는 '채식의 날'을 도입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의 노력을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채식의 날' 도입의 사회적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나)의 '찬성 2'의 발언에서 찾아 썼다.	☐
'채식의 날' 도입의 사회적 의의를 바르게 썼다.	☐
평서문의 형태로 썼다.	☐

14 <보기>로 보아 '반대 2'는 '채식의 날'을 도입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동물 복지 인증 제품을 대중화하려고 하는 방안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찬성 2'의 동물 복지 인증 식재료로 육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학교에서부터 변화하면 점차 동물 복지 인증 제품이 대중화되고 관련 농가도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고난도 업 꼬단원 심화 문제

본책 200~201쪽

01 찬성과 반대 양측이 쟁점에 대한 견해를 확인하고 이유와 근거를 분명히 밝혀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한다.
02 ② **03** ⑤ **04** 축산업은 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토양을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05** ② **06** ①

01 서술형 반대 신문식 토론의 입론 단계에서는 찬성과 반대 양측이 이유와 근거를 들어 논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밝힌다.

평가 기준	확인 ☑
입론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을 올바르게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2 ㄱ. (가)에서 사회자는 토론의 시작을 알리고 논제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ㄷ. (가), (다), (라)에서 사회자는 발언 순서를 안내하고 발언권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03 반대 측은 입론에서 '채식의 날'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축산업이 환경 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과장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 측은 '친환경 방식의 농사'를 할 것을 주장하지 않았으며 '축산업의 환경 오염 문제'와 '농업의 환경 오염 문제'를 비교하며 '채식의 날'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나)에서 찬성 측은 '채식의 날'을 시행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며, 주요 용어인 '채식의 날'을 설명하고 있다.
② (나)에서 찬성 측은 미국 뉴욕과 프랑스의 사례를 들어 '채식의 날'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③ 찬성 측은 유엔 식량 농업 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와 자료를 근거로 축산업이 환경 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④ (다)에서 반대 측은 찬성 측의 주장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히고,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수치가 과장된 부분을 지적하며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04 서술형 '찬성 1'은 (나)에서 육류 생산을 위한 축산업 때문에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고 주장하며 유엔 식량 농업 기구의 보고서와 자료 내용을 근거로 축산업이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축산업으로 인한 토양의 오염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이유를 들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축산업이 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점을 썼다.	☐
축산업이 토양을 오염시킨다는 점을 썼다.	☐

05 <보기>는 소를 키우기 위한 목초지를 만들기 위해 열대 우림이 파괴되는 등 먹거리를 생산하는 방식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찬성 측은 <보기>를 육류를 생산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문제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찬성 측의 주요 발언은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 오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친환경 농업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과는 관계가 없다.
③ <보기>는 축산업에서 발생되는 환경 오염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반대 측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④ <보기>는 축산업에서 발생되는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한 내용이며, 반대 측은 목초지를 지정하여 열대 우림을 보호해야 할 것을 주장하지 않으므로 <보기>는 반대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적합하지 않다.
⑤ <보기>는 축산업에서 발생되는 이산화 탄소와 메탄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반대 측이 '이산화 탄소와 메탄가스의 배출량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06 논증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는 내용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삶의 이치에 부합하는지, 이유와 근거에서 주장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 오류는 없는지, 주장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정보는 없는지 평가한다. 학생이 구성한 근거의 자료들은 한국 질병관리청, 세계보건기구(WHO)의 자료로, 출처가 명확하고 믿을 만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신뢰성을 충족한다.

02 공동체를 위한 글 쓰기

콕집게 쏙 소단원 평가 문제

본책 203~205쪽

01 공원의 실외 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시간을 제한하는 문제
02 ④ **03** ④ **04** ③ **05** 해당 문제에 관심이 있는 지역 주민들 **06** 내용 조직하기 **07** ④ **08** ② **09** ② **10** ③ **11** 사회적 쟁점에 대한 여러 사람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 공동체의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01 서술형 (가)의 기사에서는 '체육 시설 근처 거주자들의 민원 급증'이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나)에서는 이 기사와 관련해 공원의 실외 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측과 실외 체육 시설 이용 시간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측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쟁점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공원의 실외 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시간을 제한하는 문제'를 썼다.	☐

02 '은호'는 공원의 실외 체육 시설의 이용 시간 제한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근 주민만 푸름 공원의 실외 체육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고 하지는 않았다.

03 이 개요의 내용은 시간의 흐름이나 전후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는 시간적 순서를 따르고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이 개요의 중간 부분에서는 야간 실외 체육 시설 사용 문제점의 사례로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② 이 개요의 끝부분을 통해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 글을 쓴 학생의 견해인 '푸름 공원의 실외 체육 시설 이용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를 명확하게 요약하여 제시할 계획임을 알 수 있다.
③ 이 글의 주제는 '푸름 공원의 실외 체육 시설 이용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로, 필자의 주변에서 사회적 쟁점이 되는 문제를 찾아 글의 주제로 선정하였다.
⑤ '중간-3'은 이 견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예상 반론이다. 필자는 예상 반론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반론을 제시함으로써 주장을 강화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04 'ㄴ. 푸름 공원 근처 주민들의 인터뷰'로는 야간과 주간의 상반된 이용 실태를 알 수 없으며, 이러한 내용은 '처음'에 제시될 내용과 연관성도 없다.
| 오답 풀이 | ①, ② ㄱ에서 안전사고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늦은 시간에 발생한 사고를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므로 '중간-2'의 근거로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④ ㄴ의 주민 인터뷰를 활용하여 '중간-1'에서 실외 체육 시설의 야간 이용객들로 인해 소음 및 불빛 문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모습을 근거로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⑤ ㄷ은 야간에도 운영하는 녹색구의 실내 체육 시설 목록으로, '중간-3'의 근거로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05 서술형 개요에 따르면 학생이 작성할 글에서 다루는 문제는 '푸름 공원의 실외 체육 시설 이용 시간 제한'이며, 예상 독자는 '해당 문제에 관심이 있는 지역 주민들'이다. 따라서 학생은 해당 문제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가진 주민들을 예상하며 글의 중간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해당 문제에 관심이 있는 지역 주민들임을 썼다.	☐

06 서술형 개요를 작성하는 것은 내용 전개의 일반적인 원리를 고려하여 수집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내용을 조직하는 단계인 '내용 조직하기'에서 하는 일이다.

07 이 글의 마지막 문단에서는 '푸름 공원에 있는 실외 체육 시설의 야간 이용 시간을 제한한다면 공원 근처 거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이 실현되었을 때 발생할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ㄴ). 또한 '다른 분들도 의견을 주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와 같이 독자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의견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ㄹ).

08 이 글에서는 주민들의 인터뷰 내용, 신문 기사 등을 활용하여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주민 설문 조사 결과는 활용하지 않았다.

09 이 글은 사회적 쟁점에 대한 견해를 표현하는 글이다. 이러한 글은 필자의 주장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므로 중립적인 관점을 유지하였는지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0 '환경 지킴이'는 이 글을 쓴 학생에게 실외 체육 시설의 이용 시간을 제한하자는 제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구청에서 주관하는 주민 정책 제안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을 쓴 학생에게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 오답 풀이 | ① '더불어 함께'는 '조명이나 소음 때문에 생활하는 데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이해해요.'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 제기한 문제 상황에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환경 지킴이'는 야간에 공원 시설을 이용하는 것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실외 체육 시설의 이용 시간을 제한해 달라는 이 글의 입장에 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찬성 의견을 더 모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④ '환경 지킴이'는 이 글에서 제시되지 않은 쓰레기 문제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⑤ '더불어 함께'는 이 글에서 제시한 실외 체육 시설 이용 시간을 제한하자는 견해대로 하지 않고도, 조명 밝기를 조절하고 소음을 방지하는 시설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원 근처 거주민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1 서술형 사회적 쟁점에 대한 견해가 담긴 글을 써서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면 사회적 쟁점에 대한 여러 사람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으며, 공동체의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며 얻을 수 있는 효과를 한 가지 이상 썼다.	☐
완결된 문장으로 썼다.	☐

고난도 업 모단원 심화 문제

본책 206~207쪽

01 ⑤ **02** ④ **03** 우리 녹색구에는 밤늦게까지 운영하는 실내 체육 시설이 여러 개 있습니다. **04** ② **05** ③ **06** <보기>는 개인형 이동 장치가 안전 문제를 초래한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이며, 이를 활용하여 내용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07** ③

01 이 글은 사회적 쟁점에 대한 견해를 표현하는 글이다. 이와 같은 글을 쓰기 전에 사회적 쟁점이 발생한 상황을 이해하고, 쟁점에 대한 찬성과 반대 등 여러 견해를 살펴보며 쟁점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02 이 글에서는 야간의 실외 체육 시설을 사용할 때의 문제점으로 공원 근처 거주민들의 휴식 방해, 안전사고 발생, 야간 관리 인원 확충의 어려움을 들고 있다. 체육 시설의 노후도는 제시하지 않았다.

03 서술형 앞 문장에 제시된 예상 반론은 '야간에만 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야간에도 실외 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이다. <보기>를 통해 녹색구의 실내 체육 시설을 야간까지 이용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고자 할 때, Ⓐ에는 '우리 녹색구에는 밤늦게까지 운영하는 실내 체육 시설이 여러 개 있습니다.'라는 반박을 제시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앞 문장에 제시된 예상 반론을 바탕으로 반박을 썼다.	☐
녹색구에 야간에도 운영하는 실내 체육 시설이 있음을 썼다.	☐

04 견해를 드러내는 글을 쓸 때는 '계획하기 - 내용 생성하기 - 내용 조직하기 - 표현하기 - 고쳐쓰기'의 단계를 거친다. 견해를 드러내는 글을 쓰기 위해 내용을 생성할 때는 견해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한 후 적절성을 판단한 후에 필요한 자료만 선택하여 내용을 생성해야 한다.

05 이 글은 개인형 이동 장치가 안전 문제와 혼잡한 교통 문제를 초래하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개별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형 이동 장치의 이용 안전 방침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끌어 내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개별 사례를 통해 주장을 도출하는 귀납적 전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6 서술형 <보기>는 개인형 이동 장치와 승용차가 충돌하여 이용자가 중상을 입었다는 신문 기사이다. 이는 [A]에 제시된 개인형 이동 장치가 안전 문제와 혼잡한 교통 문제를 초래한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로,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면 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보기>가 어떤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인지 올바르게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7 이 글을 쓴 학생과 상반된 견해를 지닌 예상 독자가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은 헬멧 착용 의무화 제도로 개인형 이동 장치의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반박은 ㉢에 해당한다.

대단원 평가 문제

본책 208~212쪽

01 논제를 제시한다. 논제의 배경을 설명한다. **02** ⑤ **03** ④ **04** ② **05** ④ **06** ⑤ **07** ④ **08** ⑤ **09** ③ **10**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다. **11** 적절한 전개 방법과 전략을 정하고,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조직한다. **12** ① **13** ⑤ **14** (예) 나는 필자의 견해에 동의한다. 왜냐하면 야간에 공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주민들의 이용 시간을 제한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5** ② **16** ④ **17** ④

01 서술형 (가)에서 사회자는 학교 급식에 '채식의 날'을 도입해야 한다는 토론의 논제와 전 세계적으로 채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토론의 배경을 소개하고 있다.

02 상대측의 주장에 대해 의문점이 있더라도, 발언을 할 때는 상대측의 발언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토론 중에 지켜야 할 태도이다.

참고 자료

토론할 때 유의할 점

- 쟁점에 따른 주장을 명확히 밝히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한다.
- 상대측의 주장을 들으며 논리적 오류가 없는지 파악한다.
- 상대측의 주장을 반박할 때는 감정적 발언은 삼가고,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한다.
- 발언 순서와 시간을 준수하며, 상대측에게 예의를 갖추어 말한다.

03 (라)는 '반대 2'의 반론이 아니라 입론에 해당한다. 입론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논제와 관련된 자신의 주장을 근거를 들어 발언하는 단계이다.

04 (다)에서 '찬성 2'는 '채식의 날'을 도입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의 노력을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다)에서 '찬성 2'는 과도한 육류 소비를 줄여야 공장식 축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나)에서 '찬성 2'는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동물들을 사육하는 문제를 막으려면 근본적으로 육류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며, '채식의 날' 도입은 동물 복지와 생명 윤리의 실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④ (라)에서 '반대 2'는 학교 급식에 '채식의 날'을 도입하여 간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가축을 쾌적한 환경에서 사육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⑤ (다)에서 '반대 1'은 '채식의 날' 도입과 공장식 축산 반대는 다른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며 '찬성 2'를 반대 신문하고 있다.

05 (나)와 (라) 양측의 입론을 통해 '채식의 날' 도입으로 동물 복지와 생명 윤리의 실천에 동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6 (라)에서 '반대 2'는 필수 쟁점에 대해 축산업의 비인도적인 사육 방식을 육류 소비와 관련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를 들어 논증하고 있다.

07 ㉣에서 '반대 2'는 상대측의 논증의 허점을 찾아내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찬성 2'가 반대 신문에서 지적한 문제의 일부를 인정하고 있다.

08 '찬성 2'는 '채식의 날' 도입의 교육적 의미로 공동체적 가치 실현을 강조하며 찬성 측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문제의 이론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② '반대 1'은 '채식의 날'을 도입하는 것이 환경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환경 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과 같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반대 측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③ '찬성 1'은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여 찬성 측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④ '반대 2'는 찬성 측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며 찬성 측의 주장을 다시 언급하고 있다.

09 '찬성 1'은 축산업이 야기하는 환경 문제를 언급하며 '채식 급식'의 도입이 이러한 '환경 오염에 대해 고민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대 1'은 '채식의 날'을 도입하지 않고도 일상생활에서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 '반대 1'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육류를 선택하여 먹는 방법'을 제안했다.

㉣ '찬성 2'는 육류 소비가 줄어야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찬성 측은 동물 복지와 생명 윤리 실천에 동참하기 위해 채식 급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 2'는 이러한 찬성 측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언급한 것이다.

10 서술형 '반대 1'은 ⓐ의 근거 자료를 '채식의 날'을 도입하는 것이 환경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근거 자료를 제시한 효과로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썼다.	☐

11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내용을 조직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주제에 맞는 적절한 전개 방법과 전략을 정하고,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조직해야 한다.

12 글의 처음 부분이 아닌, 글의 '중간-1' 부분에서 주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야간에 공원의 실외 체육 시설을 사용할 때의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② (가)의 개요를 통해 '중간-3'에서 야간에도 실외 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반박을 제시할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나)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③ (가)의 개요를 통해 '중간-1'과 '중간-2'에 야간에 공원의 실외 체육 시설을 사용할 때의 문제점을 제시할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나)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④ (가)의 개요를 통해 끝부분에 주장을 제시할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나)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⑤ (나)의 끝부분에서 '다른 분들도 의견을 주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와 같이 독자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3 ㉢은 야간에도 운영하는 녹색구의 실내 체육 시설을 보여 준다. 이는 현재 제기된 문제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아니라 야간에만 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예상 반론에 대해 타당하게 반박할 수 있는 자료이다.

14 서술형 (나)는 푸름 공원의 실외 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시간을 제한해 달라는 견해를 표현하는 글이다. 이 견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정하고, 입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밝힌다.

평가 기준	확인 ☑
(나)에 나타난 필자의 견해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썼다.	☐
(나)에 나타난 필자의 견해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이유를 밝혀 썼다.	☐

15 (나)에 녹색구에 밤늦게 이용 가능한 실내 체육 시설이 있다는 점은 언급되지만, 녹색구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체육 시설이 무엇인지는 언급되지 않는다.

16 사회적 쟁점에 대한 견해가 드러나는 글을 주민 누리집 등에 올려 공론화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나의 견해에 동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견해를 지닌 여러 사람의 의견을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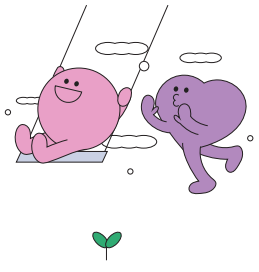
17 녹색구에 밤늦게 운영하는 실내 체육 시설이 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푸름 공원 외에도 야간에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는 사회적 견해에 대한 학생의 주장이 드러나 있을 뿐, 실외 체육 시설의 이용료를 받는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② ⓑ에는 공원의 근처 거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실외 체육 시설의 이용 시간 제한을 찬성하는 측의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며, 실외 체육 시설의 이용 시간 제한을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는 야간에 실외 체육 시설을 관리하기 어려운 녹색구의 상황을 근거로 실외 체육 시설의 이용 시간 제한을 찬성하는 측의 주장을 강화하는 것이다. 야간에만 실외 체육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반박으로 볼 수 없다.
⑤ ⓔ는 실외 체육 시설의 야간 이용 시간을 제한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것이다. 소음 방지 시설 설치가 우선이라는 의견은 찾을 수 없다.

⊕ 참고 자료

논리적 사고

논리적 사고는 논리를 기반으로 하는 사고로, 일정한 논리적 형식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사고 작용이다. 논리적 사고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개념과 논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타당한 논거를 발견한 후 그 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문제 해결에 대한 결론이나 주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1. 소통으로 커지는 세상

본책 214~215쪽

01 방문객

❶ 운율 ❷ 환대 ❸ 가치관 ❹ 문학사적

01 ② 02 ② 03 ③ 04 ② 05 ⑤ 06 ④ 07 ①

01 작품을 외운다거나 따라 쓰는 것도 작품 감상의 한 방법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를 다양한 맥락에서의 감상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02 (가)와 (나)는 현대 시로 서정 갈래에 속한다. ①은 교술 갈래, ③과 ④는 서사 갈래, ⑤는 극 갈래에 해당한다.

03 (가)의 시는 '타인과의 만남에 대한 인식과 자세'를 주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방문객의 위험성을 이 시에서 나타낸 것이라고 본 것은 적절하지 않다. 독자 맥락을 바탕으로 시를 감상할 때에도 시의 주제나 시구의 의미와 같은 내용 요소를 올바르게 파악하여 감상해야 한다.

04 (가) 시에서는 '그의 과거와 / 현재와', '그의 미래와'처럼 '그의'를 강조하여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의 삶 전체와 마주하게 됨을 강조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청각적 심상은 마치 귀로 듣는 것과 같이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는 이처럼 감각적인 시어보다는 평이하고 일상적인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③ 영탄적인 표현은 감탄사나 감탄 조사 따위를 이용하여 기쁨·슬픔·놀라움과 같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인데, (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④ 의문형은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에 질문을 던지는 것인데, (가) 시는 평서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반어는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실제와 반대되는 뜻의 말을 하는 것이므로 (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05 '환대'는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함.'이라는 뜻으로 타인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전체 삶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화자의 자세를 보여 준다.

06 바람이 더듬어 본다는 것은 상처받았을지도 모르는 연약하고 예민한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루만진다는 것이다. 나머지 시구는 모두 타인과의 만남을 소중한 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시구이다.

07 ㉠ '바람'은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존재이다. 화자는 이런 바람의 모습을 흉내 내어 자신도 그러한 존재가 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본책 216~217쪽

02 함께 읽고 매체로 소통하기

❶ 방향 ❷ 모색 ❸ 진로 ❹ 출처

01 ⑤ 02 ③ 03 ⑤ 04 ② 05 ④ 06 ②

01 이 글에서는 사람이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찾아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작가는 자신이 잘하고 동시에 좋아하는 것을 찾는다면 이것이 자신의 방향성을 찾은 것과 같다고 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진로를 정하기 위해 방황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를 아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② 이 글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면서 잘하는 것을 찾으라고 하고 있지, 미래의 성공과 같은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지 않다.
③ 10대에 이것저것 시도하면서 탐색하라고 한 것은 조급하게 자신의 삶을 결정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④ 작가는 자기 자신을 알고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어야 자신의 목표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다 보면 자신이 좋아하거나 잘하는 것이 아닌 길을 갈 수도 있다.

02 이 글에서는 '나를 안다'는 것은 적어도 세 가지를 아는 것이며, 특히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겹치는 부분이 바로 '방향성'이라고 하였다.

03 ㉠은 사람이 자신의 방향을 찾아가는 세 번째 단계인 '두려움'에 대한 내용이다. 길을 찾긴 찾았지만 그 일로 먹고살 수 있을지, 자신에게 정말 재능이 있는 것인지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시기라고 하였다.

04 디지털 매체는 블로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같은 매체를 말하며,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05 매체 자료를 제작할 때에는 먼저 매체 자료의 제작 목적과 내용, 수용자의 특성을 정리해 본다. <보기>에서 소통 목적을 설정하는 것은 매체 자료의 목적을 설정하는 것과 연관되고, <보기>의 수용자의 관심사나 배경지식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수용자의 특성을 정리하는 것과 연관된다.

06 <보기>의 학생은 사회나 문화와 관련이 있으면서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을 담는다고 하였다. 반 학생들의 개인적인 취미 활동은 이러한 내용의 취지와 거리가 멀다.

2. 문학이 그린 네 가지 색깔

본책 218~219쪽

(01) 수라

❶ 가족 ❷ 민족 ❸ 문밖 ❹ 밤

01 ④ 02 ⑤ 03 ④ 04 거미 가족의 재회를 바라고 있다. / 해체된 가족 공동체의 회복을 소망하고 있다. 05 ④ 06 ④

01 이 시는 화자의 반복된 행동을 통해 화자의 정서가 '무심함 → 연민, 서러움 → 슬픔'으로 점층적으로 심화되면서 시상이 전개된다.

| 오답 풀이 | ① 이 시의 시적 대상은 거미로, 화자가 시적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 드러나지 않는다.

② 이 시에는 '방'과 '문밖'이라는 공간만 제시되어 있을 뿐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③ 이 시에는 시적 대상인 거미가 나타나는 시간은 밤이고, 공간은 화자의 방으로 동일하다.

⑤ 이 시에서 화자와 시적 대상인 거미들과의 물리적 거리는 방 안에서 거미를 문밖으로 버리는 행위로 보아 달라지지 않는다.

02 이 시에서는 '가슴이', '문밖으로 버리며' 등과 같은 동일한 시어 및 시구의 반복, '~다'와 같은 종결 표현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반복되어 운율이 느껴지고 있다. 이러한 운율은 이 시의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다.

03 3연에서 '무척 적은 새끼 거미'가 화자가 내민 손에 오르지 않고 '달어나 버리'지만 이를 화자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1연에서 '거미 새끼'를 처음 발견했을 때 화자는 아무 생각 없이 문밖으로 쓸어 버린다. 즉, 화자의 의도가 없이 무심하게 이루어진 행동이다.

② 2연에서 화자는 '큰 거미'를 보며 1연에서 발견한 '거미 새끼'의 가족이라고 짐작하며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서러워하고 있다.

③ 2연에서 화자는 '큰 거미'를 버리며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말하고 있다. 즉, 1연의 '거미 새끼'를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⑤ 3연에서 '무척 적은 새끼 거미'를 밖으로 버리는 행동은 1연과 2연의 거미 가족들을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04 서술형 <보기>는 1930년대는 일제 강점기 시기로 일제의 극심한 수탈 때문에 우리 민족의 가족 공동체가 흩어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A]를 봤을 때 거미 가족이 재회하기를 바라는 것은 해체된 가족 공동체의 회복을 소망하는 시인의 염원이 담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가족 공동체의 회복(가족의 재회)을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다.	☐

05 <보기>에는 '무이징게국을 끓이는 맛있는 내음새'와 같은 후각적 이미지가 드러나 있지만, 이 시에는 후각적 이미지를 사용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② 이 시와 달리 <보기>는 가족 공동체가 함께 모여 놀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생동감 있게 나타내고 있다.

③ 이 시처럼 <보기>도 평안도 방언을 활용하여 향토성을 드러내고 있다.

⑤ 이 시는 '거미'를 통해 일제 강점기 해체된 우리 민족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면 <보기>는 가족의 모습을 통해 우리 민족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 자료

'백석' 작품의 특징

백석(白石, 1912-1996)은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으로, 그의 시에는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요소가 녹아 있다. 백석의 시어(詩語)는 고유의 민속적이고 전통적인 느낌을 지니며, 그가 살았던 지역적 배경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 백석의 작품에서 중요한 특징은 고향 평안도의 언어와 민속적 정서를 그대로 담아냈다는 점이다. 그가 자주 사용하는 토속적인 표현과 방언은, 그가 속했던 언어 공동체의 정체성과 감정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06 ㉣은 어미를 찾는 듯한 '무척 작은 새끼 거미'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화자인 '나'가 내민 손이므로 가족을 해체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에서 화자는 아무 생각 없이 '거미 새끼'를 문밖으로 버리고 있다. 이 시의 1연의 내용으로 보아 '문밖'으로 버리는 화자의 행동으로 인해 거미 가족이 헤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1연의 '문밖'은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는 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다.

② ㉡은 이 시의 시간적 배경으로, 이 시의 창작 시기인 1930년대에 일제 강점기하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현실을 고려할 때, 그러한 시대적 상황을 나타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③ ㉢은 '큰 거미'가 온 방바닥에 비해 추운 바깥이므로 어렵고 힘든 환경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⑤ ㉤의 '문밖'은 화자가 거미 가족이 재회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거미들을 내보낸 공간으로, 가족 공동체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본책 220~223쪽

02 엇박자 D

❶ 관찰자 ❷ 엇박자 ❸ 박자 ❹ 음악 선생 ❺ 엇박자 D

01 ③ **02** ⑤ **03** ② **04** ⑤ **05** 모두가 똑같은 박자와 음을 맞추는 것 **06** ④ **07** ⑤ **08** ③ **09** ⑤ **10** '엇박자 D'가 음치들의 노랫소리를 절묘하게 배치하여 22명의 노래가 어우러지게 리믹스했기 때문이다. **11** ②

01 이 글은 소설로 서사 갈래에 속한다. 눈앞에 있는 관객들에게 '현재 진행 중인 사건'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은 극 갈래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02 축제 때 부를 노래를 추천한 것은 '엇박자 D'가 아닌 다른 합창단 단원이었고, 모두들 합창단 활동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찬성한다.

| 오답 풀이 | ① (나)에서 '나'는 '엇박자 D'의 진면목을 처음 알게 됐다고 하였으며, 진면목이란 '엇박자 D'가 놀라울 정도의 음치이자 박치라는 것이다.

② (다)에서 '음악 선생'이 '엇박자 D'에게 '단장'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알 수 있다.

③ (다)에서 '음악 선생'은 '엇박자 D' 때문에 합창이 방해를 받자 자진 사퇴를 권하지만 '엇박자 D'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④ (다)에서 '엇박자 D'가 축제 때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를 것이라는 광고를 여러 곳에 해 둔 것으로 보아 합창단 활동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03 이 글과 <보기>를 통해 '음악 선생'의 생각을 알 수 있다. 음악 선생은 개인의 개성보다는 전체의 조화를 더 중시하는 인물이다. '엇박자 D'는 음치이자 박치이므로 합창단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고, '음악 선생'으로부터 립싱크를 강요받고 있기에 상처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나)에서 '음악 선생'은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쉬운 노래니까 딱 한 번만 맞춰 보고 자습을 하자고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음악 선생'이 자습에 대해 반대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⑤ '음악 선생'은 '엇박자 D'의 개성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창에서 전체의 조화를 망친다고 생각하여 '엇박자 D'에게 노래하지 말고 립싱크만 하라고 강요한 것이다.

④ '음악 선생'은 합창단 아이들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기에, 합창단 아이들이 '음악 선생'의 지시에 따를지 말지 고민했다고 할 수 없다.

04 '나'가 합창단에 들어간 이유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특별 활동을 하고 싶었고, 특별히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기 때문이다. 즉 서로에게 무관심하기를 바라고 아무런 활동도 하고 싶지 않아서이다.

05 서술형 '음악 선생'은 모두가 똑같은 박자와 음을 맞추는 것이 아름다운 합창이며, 개개인의 개성은 전체를 위해 희생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평가 기준	확인 ☑
모두가 똑같은 박자와 음을 맞추는 것이라는 내용을 썼다.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다.	☐

06 이 글은 작품 속에서 주변 인물인 '나'가 중심인물인 '엇박자 D'를 관찰하며 이야기를 전달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이다.

| 오답 풀이 | ① 이 글에서는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보여 주고 있지 않다.

② 주인공은 '엇박자 D'이며 주인공이 아닌 '나'가 '엇박자 D'를 관찰하여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③ 이 글은 작품 속의 서술자가 등장인물을 관찰하여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⑤ 이 글은 작품 속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과 대화를 서술하고 있으며,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과 대화를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달하는 것은 3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07 '엇박자 D'는 고등학교 때 개성을 존중받지 못해 겪었던 편견과 아픔을 극복하고, 20년이 지난 지금 음치들의 노래를 관객들과 고등학교 시절 합창단 친구들에게 들려 줌으로써 자신이 생각하는 '합창'의 의미를 보여 주고 있다.

08 [A]에서 '음악 선생'이 생각하는 합창은 모두가 똑같은 박자와 음을 맞추는 것이다. 반면 [B]에서 '엇박자 D'가 생각하는 합창은 서로 다른 개개인이 모여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면서도 조화를 이루며 전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09 (가)에서 합창단 아이들이 갈피를 잡지 못한 것은 '엇박자 D'가 다른 아이들과 합창을 할 때 음과 박자를 잘 맞추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아이들이 음치에 대한 편견을 지니고 있어서는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② 음치들의 노래에 친구들이 감동을 한 것은 음치들에 대한 편견과 고정 관념을 버리고, 음치들의 노래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엇박자 D'에게 공감했기 때문이다.

③ 합창단 활동에서 '엇박자 D'가 사퇴 권고를 받은 것은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엇박자 D'를 소외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음악 선생'이 '엇박자 D'에게 자진 사퇴를 권한 것은 음치는 합창을 망친다는 고정 관념 때문이다.

10 서술형 음치들의 노래는 서로의 음이 달랐지만 '엇박자 D'가 22명의 노랫소리를 절묘하게 배치하여 목소리가 겹치면서도 서로의 소리를 해치거나 망치지 않게 리믹스했기 때문에 잘못 부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평가 기준	확인 ☑
'엇박자 D'가 음치들의 노래를 어우러지게 리믹스했기 때문이라고 썼다.	☐

11 ㉠ '음치들의 노래'는 20년 전 고등학교 시절 합창단 축제 때 불렀던 「오늘 나는 고백을 하고」를 '엇박자 D'가 22명의 음치들의 노랫소리로 리믹스한 것이다. 이는 음치들의 목소리로만 리믹스하여 재구성한 것이지, '엇박자 D'의 목소리를 재구성하여 들려준 것은 아니다. (다)에서 음치들의 합창을 들은 '나'가 '나나 친구들의 목소리는 아니었다. 엇박자 D의 목소리도 아니었다.'라고 생각한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책 224~227쪽

03 파수꾼

❶ 파수꾼 ❷ 촌장 ❸ 흰 구름 ❹ 딸기 ❺ 이리 떼

01 ① **02** ③ **03** ④ **04** 팻말은 거짓 명분, 실리를 독차지하기 위한 수단이고, 딸기는 거짓을 통해 얻는 이득, 부당한 권력이 누리는 실리를 의미한다. **05** ④ **06** 해설자, 촌장이 되어 등장. 관객의 몰입을 방해함으로써 극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07** ⑤ **08** ⑤ **09** ① **10** ⑤

01 이 글은 상징적인 소재나 인물을 활용하여 1970년대 정치 현실을 우화적인 기법으로 풍자한 희곡이다. 우화적 기법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편성과 상징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 자료

우화적 희곡으로서의 「파수꾼」의 특징

- 우화 「양치기 소년과 늑대」에서 기본적인 설정을 빌려, 말하고자 하는 바를 구체적인 대상에 빗대어 돌려 표현함.
- 우화를 활용하여 현실의 부조리한 세태를 풍자하며 작품의 주제 의식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함.

02 (라)에서 '촌장'은 '수천 개의 쓸모없는 덫을 보살피고 양철 북을 요란하게 두들겼다.'라고 하며 파수꾼들이 덫을 보살피고 양철 북을 두들긴 일을 대사로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이는 모든 사건을 무대 위에서 배우의 행동을 통해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일처럼 현재화하여 보여 주는 희곡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03 '운반인'은 '이리 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녔는데, 이를 권력의 부당함에 저항하려고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오답 풀이 | ① (가)에서 파수꾼 '나'는 파수꾼 '다'의 말에도 '이리 떼'의 실제 존재라는 진실에 대한 의구심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② (라)에서 파수꾼 '다'는 '이리 떼'가 없다는 사실을 망루 위에 올라가 마을 사람들에게 외치려고 한다.

③ (라)에서 '촌장'의 말에 따르면 마을 사람들은 '이리 떼'에게 대항하기 위해 단결하였다.

⑤ (라)에서 '촌장'은 '이리 떼'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마을의 안전과 질서를 명목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

04 서술형 '팻말'은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한 곳에 세워져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팻말'은 부당한 권력들이 누리는 실리를 상징하는 '딸기'를 독차지하기 위해 내세운 거짓 명분임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팻말은 ~, 딸기는 ~'의 형식의 문장으로 썼다.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다.	☐

05 이 글에서는 '이리 떼'가 없다는 진실을 밝히려 하는 파수꾼 '다'와 이를 막기 위해 파수꾼 '다'를 회유하는 '촌장' 간의 갈등이 드러난다. 즉, 파수꾼 '다'와 '촌장'은 '이리 떼'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일에 대해 입장이 달라 갈등하는 것이다.

06 서술형 <보기>에서 '브레히트'가 창안한 서사극의 방식은 관객들이 극에 몰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이 글에서 이러한 부분은 '해설자, 촌장이 되어 등장.' 이라는 지시문에 드러난다. 해설자가 '촌장'이 되어 등장함으로써 관객의 몰입을 방해하고 연극이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사건임을 강조하여, 관객이 무대 위의 사건과 인물에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이 글에서 <보기>의 밑줄 친 내용이 드러나는 문장을 찾아 썼다.	☐
관객이 극에 몰입을 방해한다는 효과를 적절하게 썼다.	☐

07 파수꾼 '나'는 파수꾼 '다'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냐', '넌 너 자신이 파수꾼이란 걸 힘껏 자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로 보아 파수꾼 '나'는 권력자들이 내세운 거짓 안보를 아무 의심 없이 믿고 따르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1970년대의 정치 상황

1970년대에는 민족 주체성 및 안보 교육이 강화되어 국민들은 국가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정치 권력자들은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과도하게 포장하고 악용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였다.

08 '흰 구름'은 거짓에 은폐되어 있는 진실과 평화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흰 구름'이 민중을 회유하기 위한 권력자의 회유책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9 '견강부회(牽強附會)'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이라는 뜻으로 '촌장'이 마을의 질서를 위해 거짓 공포를 만들었다는 논리와 관련지을 수 있는 한자 성어이다. '살신성인(殺身成仁)'은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인(仁)을 이룸.'이라는 뜻으로 파수꾼들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고귀하게 희생했다는 것과 관련지을 수 있는 한자 성어이다.

| 오답 풀이 | ② '자가당착(自家撞着)'은 '같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아니하고 모순됨.'이라는 뜻이고, '삼고초려(三顧草廬)'는 '인재를 맞아들이기 위하여 참을성 있게 노력함.'이라는 뜻이다.

③ '아전인수(我田引水)'는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말.'이라는 뜻이고, '자포자기(自暴自棄)'는 '절망에 빠져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고 돌아보지 아니함.'이라는 뜻이다.

④ '과유불급(過猶不及)'은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으로, 중용(中庸)이 중요함을 이르는 말.'이라는 뜻이고, '면종복배(面從腹背)'는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내심으로는 배반함.'이라는 뜻이다.

⑤ '자화자찬(自畫自讚)'은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자랑함을 이르는 말.'이라는 뜻이고, '자승자박(自繩自縛)'은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자기 자신이 옭혀 곤란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뜻이다.

10 ⓔ에서 '촌장'은 상대방의 의견에 동조하며 그에 따라 행동하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려는 파수꾼 '다'를 회유하기 위해 거짓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본책 228~229쪽

(04) 선의를 믿는 것의 어려움

❶ 조카 ❷ 선의 ❸ 지적

01 ⑤ **02** ④ **03** ③ **04** '나'는 선생님이 조카에게 지적과 당부를 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조카는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조카가 선생님의 말을 선의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01 교술 갈래를 대표하는 수필에는 작가가 자신의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얻은 깨달음이나 통찰이 드러난다.

참고 자료

수필의 특성

- 일상적인 삶의 문제들을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다룸.
- 작가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때문에 작가의 개성이 드러남.
-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을 바탕으로 인간의 삶에 대한 통찰과 인식을 담아냄.
- 어떤 경험이나 사실을 바탕으로 교훈적, 이념적 내용 또는 작가의 주관적 정서 등을 드러냄.

02 이 글의 작가는 ⓑ에서는 선의를 믿지 못하는 현실이 된 것을 깨닫고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으며, ⓓ에서는 타인의 선의를 믿는 조카의 세상이 자신의 세상보다 더 단단함을 느끼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는 작가가 지인과 약을 잘 짓지 않는 한약방에 대해 대화를 한 경험, ⓒ는 유치원 통학 버스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는 조카와 대화를 한 경험이다.

② ⓑ는 작가가 불필요한 약을 짓지 않는 한약방의 선의를 몰라주는 지인들을 보며 깨달은 것이다.

③ ⓓ는 작가가 선생님의 지적과 당부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조카에게서 얻은 깨달음이다.

⑤ 작가는 ⓑ와 ⓓ의 깨달음을 통해 타인의 선의를 믿는 것의 소중함을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03 이 글은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삶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수필이므로, '정민'의 말은 적절하지 않다.

04 서술형 이 글의 '나'는 유치원 선생님이 조카에게 지적과 당부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조카는 선생님의 지적과 당부 속에 담긴 선의를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나'와 조카의 생각이 드러나게 썼다.	☐
조카의 생각과 관련하여 이유를 썼다.	☐

3. 일상을 보는 예리한 눈

본책 230~231쪽

(01) 투표를 안 해도 될까

❶ 기권 ❷ 후보 ❸ 귀납

01 ③ 02 ④ 03 ① 04 투표를 하지 않으면 세상은 나아지지 않고 불평등이 심화된다.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만 전달되고 반영되어 불평등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05 ②

01 (나)에서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도 투표를 통해 세상이 변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02 <보기>의 내용은 투표권이 없던 사람들이 투표권을 얻게 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권리를 확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투표의 가치를 알고 투표에 동참하라고 조언하는 것이 적절하다.

03 <보기>에서는 '30퍼센트',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등 구체적인 조사 기관과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글에서 제시한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주장을 확대하여 강조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참고 자료

논증의 구성 요소

논증은 주장, 이유, 근거로 구성된다. 주장은 필자가 내세우는 의견이고, 이유는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주관적 요인이다. 그리고 근거는 주장을 지지하는 객관적 자료로, 통계 자료나 설문 조사 자료, 구체적인 예시 등이 해당한다.

04 서술형 필자는 ㉠에 대해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반박할 수 있다. 그 이유로 (다)를 참고하여 투표를 하지 않으면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만 전달되고 반영되어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음을 들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다)를 참고하여 필자의 주장과 이유가 드러나게 썼다.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다.	☐

05 ㉡은 청소년과 관련된 공약을 가리킨다. 그런데 '환경 보호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 실시'는 청소년 맞춤형 공약이라기보다는 환경 보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유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약이라고 볼 수 있다.

본책 232~235쪽

(02) 매체가 비추는 세계

❶ 사회, 문화 ❷ 제목 ❸ 의제 ❹ 분단

01 ⑤ 02 ② 03 ② 04 ④ 05 ⑤ 06 ③ 07 '핸드폰', '도시락'과 함께 이 둘을 뜻하는 북녘 말을 함께 올림말로 수록하여 다름을 분명히 밝힌다. 08 ② 09 ④ 10 북한 사람들에 비해 남한 사람들은 외래어 혹은 외국어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이다.

01 개인 방송은 개인의 주관적 관점을 담고 있으므로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02 기계처럼 일하다 결국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찰리의 모습에서 노동자의 인간적 측면이 무시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가)의 사회적 의제는 인간이 기계의 부품으로 전락하는 문제와 노동자의 인간적인 측면을 무시하는 문제이다. ③ (나)의 사회적 의제는 이에스지 경영의 실효성 문제이다. ④, ⑤ (나)는 사회적 의제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 관점을 제시하며 중립적 태도를 보이지만, (가)는 부정적 태도만 보여 준다.

03 ㉡은 강도 높은 노동을 요구하는 관리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고, ㉣은 인간을 기계의 한 부분으로 취급하는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04 (나)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에스지 경영을 하는 기업이 몇 퍼센트가 되는지는 다루고 있지 않다. 80퍼센트는 플라스틱 컵 회수율을 말하는 것이다.

05 (나)에서 다루고 있는 이에스지 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등장한 것이다.

06 (가)에서는 다문화 형태의 사회가 되면서 언어적 차이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를 (나)의 관점에서 해결한다면 서로의 언어적 차이를 이해하고 문화 교류를 증대한다는 내용이 적절하다.

07 서술형 (다)에서는 '핸드폰'과 '도시락'이라는 단어로 인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라)에서 사전을 만들 때, 남한과 북한의 말이 다를 경우 그 다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으므로, 이를 사전에 수록한다면 북녘 말을 함께 올림말로 수록하여 그 다름을 밝혀 적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핸드폰', '도시락'을 포함하여 썼다.	☐
(라)를 참고하여 수록 방법을 찾아 썼다.	☐

08 (라)와 <보기>는 모두 남북한의 언어 통합을 지향하며 그 일환으로 남과 북이 공동으로 사전을 편찬하는 사례에 대해 보여 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언어 동질화를 위해 어느 한쪽의 언어만 쓰게 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9 <보기>는 남북한의 의사소통 차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간접적이고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지만 북한에서는 직설적인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 따라서 '나중에 연락드릴게요.'와 같은 말을 북한 사람이 듣는다면 직접적인 소통 방식을 요청할 것이다.

10 서술형 북한이탈주민 출연자는 남한에서 블랙, 화이트 등의 외래어 혹은 외국어로 색깔을 표현하는 상황에 어려움을 겪었다.

평가 기준	확인 ☑
북한에 비해 남한에서 외래어 혹은 외국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썼다.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다.	☐

4. 벗나는 언어생활

본책 236~237쪽

(01) 음운의 변동

❶ 발음 ❷ 빋 ❸ 비음화 ❹ 된소리 ❺ 형식 ❻ 거센소리 ❼ ㄴ

01 ④ **02** ② **03** ② **04** ② **05** ① **06** ㉠은 [꼳말] → [꼰말]로 발음된다. ㉡은 [꼳다발] → [꼳따발]로 발음된다. ㉢은 [꼳향기] → [꼬탱기]로 발음된다. ㉠~㉢은 모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다(일어난다).

01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받침이 뒤 음절의 첫소리로 이어져 발음되는 연음 현상이 일어난다. 따라서 '옷이', '꽃이', '부엌을'은 각각 [오시], [꼬치], [부어클]로 발음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음절 끝 또는 자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 앞인 경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ㄱ', 'ㄲ', 'ㅋ'은 모두 [ㄱ]으로 발음한다. 따라서 '국', '밖', '부엌'은 [국], [박], [부억]으로 발음한다.
② 음절 끝 또는 자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 앞인 경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ㅆ', 'ㅈ'은 모두 [ㄷ]으로 발음한다. 따라서 '났다', '낮다'는 모두 [낟따]로 발음한다.
③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받침이 뒤 음절의 첫소리로 이어져 발음되는 연음 현상이 일어난다. 따라서 '국은', '낫을', '낯이'는 [구근], [나슬], [나치]로 발음한다.
⑤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 연음 현상이 일어난다. 따라서 '부엌 안', '낱알', '낯 위'는 [부어간], [나달], [나뒤]로 발음한다.

02 단어의 자격을 지니지 않은 한자들이 결합하여 한 단어를 이루는 경우 'ㄴ'이 'ㄹ'로 바뀌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 '대관령'과 ㉡ '산란기'는 'ㄴ'이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나 [대:괄령], [살:란기]로 발음한다. 반면에 'ㄴ'으로 끝나고 단어의 자격을 지닌 2음절 한자어 뒤에 'ㄹ'로 시작하는 한자가 결합하면 'ㄹ'이 'ㄴ'으로 바뀐다. 따라서 ㉢ '생산량'은 'ㄹ'이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생산냥]으로 발음한다. ㉣ '할는지'는 비음 'ㄴ'이 유음 'ㄹ'의 뒤에서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나 [할른지]로 발음한다. 그리고 ㉤ '먹는다'는 받침 'ㄱ'이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멍는다]로 발음한다. 따라서 '생산량'과 '먹는다'는 비음화가 일어나고, '대관령', '산란기', '할는지'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03 '홑이불'은 접두사 '홑-'과 어근 '이불'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파생어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ㅣ'로 시작한다. 따라서 'ㄴ'이 덧붙어 발음되는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나며, '홑'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ㅌ'이 'ㄷ'으로 바뀌므로 [혼니불]이 된다. 그 뒤 앞말의 끝에 오는 자음 'ㄷ'이 뒷말의 첫 자음인 비음 'ㄴ'을 만나 비음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 [혼니불]로 발음한다.

| 오답 풀이 | ① 'ㅌ'은 접두사 '홑-'에 모음 'ㅣ'는 어근 '이불'에 있으므로, 'ㅌ'과 모음 'ㅣ'는 서로 다른 형태소에 있다.
③ 뒷말인 '이불'은 모음 'ㅣ'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이다.
④ 'ㅌ'이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구개음화 현상은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날 때 일어난다.
⑤ 뒷말인 '이불'은 비음 'ㅇ'이 아니라 모음 'ㅣ'로 시작한다. 그러므로 'ㅌ'이 'ㅇ'의 영향을 받아 비음으로 바뀐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4 '달님[달림]'은 비음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으로 유음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인 유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즉, 'ㄹ'과 'ㄴ' 사이에 새로운 음운인 'ㄹ'이 생기는 첨가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ㄴ'이 'ㄹ'으로 교체된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딱하다[따카다]'는 예사소리 'ㄱ'이 'ㅎ'과 만나 두 음운이 축약되어 거센소리 'ㅋ'으로 발음된 것으로, 두 음운이 합쳐져 하나의 새로운 음운이 된 것이다.

③ '덥고[덥:꼬]'는 음절 끝 'ㅂ' 뒤에 오는 예사소리 'ㄱ'이 된소리인 'ㄲ'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난다. 된소리되기 현상은 교체이다.

④ '맏며느리[만며느리]'는 앞말 끝소리 'ㄷ'이 비음 'ㅁ'의 영향을 받아 비음 '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비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비음화 현상은 교체이다.

⑤ '슬퍼서'는 용언 어간 '슬프-'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인 '-어서'와 결합하면서 어간 끝 모음인 'ㅡ'가 탈락하는 모음 탈락 현상이 일어난다.

05 '곤란'은 단어의 자격을 지니지 않은 한자들이 결합하여 한 단어를 이루는 경우이므로, 'ㄴ'이 'ㄹ'로 바뀌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ㄴ'이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나므로, [골:란]이라고 발음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② '찾아볼게'는 'ㄹ'로 시작하는 어미 '-ㄹ게'에서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나 [찾아볼께]로 발음한다. 된소리되기 현상은 표기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찾아볼게'라고 표기해야 한다.

③ '잠궈 주세요'는 '잠가 주세요'를 잘못 표기한 것이다. 기본형 '잠그다'의 어간인 '잠그-' 끝의 모음 'ㅡ'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가 결합해서 'ㅡ'가 탈락하는 모음 탈락 현상이 일어나므로, '잠가'로 표기해야 한다.

④ '곁' 뒤의 '을'은 형식 형태소이지만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발음할 때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환경이다. 따라서 [겨틀]이라고 발음해야 한다.

⑤ '담요'는 합성어가 형성되는 환경에서 앞말이 자음 'ㅁ'으로 끝나고 뒷말이 반모음 'ㅣ'로 시작하므로, 그 사이에 'ㄴ'이 덧붙는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난다. 따라서 [담:뇨]라고 발음해야 한다.

06 서술형 ㉠ '꽃말'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꼳말]로, 그리고 비음화 현상에 의해 [꼰말]로 바뀌어 발음된다. ㉡ '꽃다발'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꼳다발]로, 그리고 된소리되기 현상에 의해 [꼳따발]로 바뀌어 발음된다. ㉢ '꽃향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꼳향기]로, 그리고 거센소리되기 현상에 의해 [꼬탕기]로 바뀌어 발음된다. 따라서 세 단어 모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다.

평가 기준	확인 ☑
㉠~㉢의 발음의 변화 과정을 밝혀 썼다.	☐
㉠~㉢의 공통점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됨을 썼다.	☐

본책 238~239쪽

02 문법 요소와 어휘의 활용

❶ 주체 ❷ 목적어 ❸ 청자 ❹ 사건시 ❺ 동작 ❻ 주체 ❼ 인용 ❽ 전문어

01 ③ **02** ① **03** ① **04** ② **05** ⑤ **06** ㉮의 밑줄 친 부분에는 고유어가, ㉯의 밑줄 친 부분에는 한자어가 쓰였다. 한자어는 고유어보다 세부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01 ㉢은 청자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종결 어미 '-습니다'와 화자를 낮추는 어휘인 '저'를 사용하였다. 접사 '-님'과 '댁'은 고모를 높이는 표현이다.

| 오답 풀이 | ① ㉠은 문장의 부사어, 즉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부사격 조사 '께'와 특수 어휘 '여쭈다'를 사용하였다.

② ㉡은 높이지 않아야 할 대상인 '음식'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높이고 있다. '손님, 주문하신 음식 나왔어요.'가 올바른 표현이다.

④ ㉣은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문장의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부사격 조사 '께'와 특수 어휘 '드리다'를 사용하여 문장의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⑤ ㉤은 다수의 대상 앞에서 발표를 하는 공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격식체인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여 청중을 높이고 신뢰감을 주고 있다.

02 부사어 '이미'와 '앉아 있었다'에서 선어말 어미 '-었-'을 사용하여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과거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보조 용언 '-아 있다'를 사용하여 이미 끝난 동작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완료상을 표현하였다.

| 오답 풀이 | ②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동작상은 진행상으로, 보조 용언 '-고 있다'를 활용하여 표현한다.

③, ④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함을 나타내는 시제는 현재 시제이다.

⑤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뒤에 오는 시제는 미래 시제이다.

03 ㉠ '펼쳐지는'은 능동사 '펼치다'의 어간 '펼치-'에 '-어지다'를 붙여 만든 피동 표현이다. '펼치다'는 '보고 듣거나 감상할 수 있도록 사람들 앞에 주의를 끌 만한 상태로 나타내다.'라는 뜻의 능동사이다.

| 오답 풀이 | ② ㉡ '담긴'은 능동사 '담다'의 어근 '담-'에 피동 접미사 '-기-'를 붙인 피동사이다.

③ ㉢ '쌓인'은 능동사 '쌓다'의 어근 '쌓-'에 피동 접미사 '-이-'를 붙인 피동사이다.

④ ㉣ '잊혀지지'는 능동사 '잊다'의 어간 '잊-'에 피동 접미사 '-히-'와 피동을 나타내는 '-어지다'를 붙인 표현으로, 이중 피동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잊히지'가 올바른 표현이다.

⑤ '제공되다'는 명사 '제공'에 피동 접미사 '-되다'를 붙여 만든 피동사이다.

04 인용절의 '저'는 '동생'을 의미하므로 이를 3인칭 재귀 대명사인 '자기'로 바꾸고, '싶어요'의 종결 어미는 높임 표현을 조정하여 평서형 '싶다'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사 '라고'를 '고'로 바꾸어야 한다.

05 '울음 현상', '표면 박락', '크랙'은 미술 작품의 보존을 위한 보존 과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전문어로 해당 분야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문어는 의미의 다층성이 적으며 외래어로부터 차용된 어휘가 많고 일반 사회의 기본 어휘로 사용되는 경향이 적다. 논리 및 사고 전개 과정을 담당하는 어휘는 사고 도구어이다.

06 서술형 고유어는 예전부터 쓰던 순우리말로 대개 의미의 폭이 넓으며 일상적으로 쓰는 기초 어휘가 많다. 한자어는 한자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어휘로 고유어에 비해 단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가 많고 세부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 학술 용어나 전문 용어로 많이 쓰인다.

평가 기준	확인 ☑
㉮의 밑줄 친 부분에 고유어가, ㉯의 밑줄 친 부분에 한자어가 쓰였음을 밝혀 썼다.	☐
한자어 사용의 효과를 바르게 썼다.	☐
두 문장 내외로 썼다.	☐

본책 240~241쪽

03 마음을 잇는 대화

❶ 공손성 ❷ 비난 ❸ 협력 ❹ 중의적 ❺ 체면 ❻ 주장 ❼ 담화 관습

01 ② **02** ④ **03** ① **04** ④ **05** ㉮ 자신을 낮추어(겸양의 태도로) ㉯ 자신감 있는(꾸밈없이 솔직한)

01 (가)의 '수연'은 약속 시간에 늦은 것을 사과하는 '우진'을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타박하여 '우진'을 당황하게 하였다. 이는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예의를 지키지 않고 말한 것으로, 공손성의 원리를 어긴 것이다. (마)의 '예원' 역시 새로 산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보여 주는 '준호'에게 칭찬하는 표현 대신 '준호'를 배려하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여 타박하고 있으므로, 공손성의 원리를 어긴 것이다.

(나)의 '지영'은 무엇을 먹을지 물어보는 친구의 질문에 정보를 담지 않고 짧고 불명확하게 답변하고 있다. 이는 대화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모호하게 말한 것으로, 협력의 원리를 어긴 것이다. (라)의 '준서'는 '지연'의 물음에 답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다. 이 역시 대화 참여자가 대화의 목적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협력의 원리를 어긴 것이다.
(다)의 '선배'는 '후배'에게 직접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후배'는 '선배'의 요청을 한마디로 거절하고 있다. 이는 예의를 갖추는 표현 없이 자신의 요구나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하게 한 것으로, 체면 유지의 원리에 어긋난 것이다. (바)의 '할아버지' 역시 '청년'의 체면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요구를 직접적이고 무례하게 전달하고 있으므로, 체면 유지의 원리를 위반한 것이다.

02 (라)에서 '준서'는 '지연'의 물음에 답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는데, 이는 협력의 원리 중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말해야 한다는 규칙을 어긴 것이다. ④는 '지연'의 물음에 적절한 답변을 한 내용으로 바르게 고친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가)에서 대화의 원리를 지키지 않은 사람은 '수연'이다. '수연'은 '우진'을 비난하면서 예의를 지키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표현으로 고쳐야 한다.
② (나)에서 '지영'은 무엇을 먹을지 물어보는 친구의 질문에 짧고 불명확하게 답변하고 있으므로, 대화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충분히 제공하는 표현으로 고쳐야 한다. ②에 제시된 표현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에 맞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고친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③ (다)에서 '선배'는 '후배'에게 직접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후배'는 '선배'의 요청을 한마디로 거절하여 서로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하였으므로, 이를 예의를 갖춰 우회적이고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고쳐야 한다. ③에 제시된 표현 역시 예의를 갖추는 표현 없이 '선배'에게 자신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고친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
⑤ (마)에서 대화의 원리를 지키지 않은 사람은 '예원'이다. '예원'은 새로 산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보여 주는 '준호'에게 칭찬하는 표현 대신 '준호'를 배려하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여 타박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으로 고쳐야 한다.

03 (나)에서 '지영'은 무엇을 먹을지 물어보는 친구의 질문에 정보를 담지 않고 짧고 불명확하게 답변하고 있다. 이는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협력의 원리를 지키기 위한 규칙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 오답 풀이 | ② '지영'이 아무거나 먹고 싶다고 한 것이 진실하지 않은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지영'은 상대를 비난하고 있지 않다.
④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을 줄이고 부담되는 표현을 늘리는 것은 공손성의 원리이므로 (나)와 관련이 없다.
⑤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를 줄이고 상대방의 체면을 보호하는 것은 체면 유지의 원리이므로 (나)와 관련이 없다.

04 (바)에서 '할아버지'는 자신의 요구를 직접적이고 무례하게 전달했으며, 이를 들은 '청년'도 감정이 상해 예의에 어긋난 표현을 사용하여 답변했다. 이에 반해 <보기>에서 '할아버지'는 우회적이고 간접적으로 자신의 요구를 '청년'에게 전달했는데 이는 청년의 체면을 고려해 이야기한 것으로, 이를 들은 '청년'은 '할아버지'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바)에서 '할아버지'는 원하는 바를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으며, <보기>에서는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을 뿐 원하는 바를 모두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바)와 <보기>에서 '할아버지'가 요구하는 바는 모두 '청년'이 시끄러운 음악을 끄는 것이다. 따라서 수용할 수 없는 요구에서 수용 가능한 절충안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
③ '할아버지'는 음악을 꺼 달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상대를 칭찬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⑤ '할아버지'가 '청년'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05 서술형 <보기 1>에서는 과거에는 겸양의 태도로 자신을 낮추어 말하는 태도를 중시했지만, 오늘날에는 자신의 장점을 표현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긍정적으로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에 자신을 낮춘다는 의미를 지닌 내용을 20어절로 썼다.	☐
㉯에 자신감이 있다는 의미를 지닌 내용을 20어절로 썼다.	☐

5. 생각의 힘을 키우는 설득

본책 242~243쪽

(01) 학교 급식에 '채식의 날'을 도입해야 한다

❶ 반대 신문 ❷ 축산업 ❸ 동물 ❹ 반론

01 ④ **02** 육식 위주의 식생활이 환경 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 육식을 줄이려는 노력은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03 ④ **04** ④ **05** ③

01 이 토론은 반대 신문식 토론으로, 이는 논제에 대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상대방에게 반대 신문을 하며 상대방의 논지를 반박하는 토론이다.

02 서술형 이 토론에서 찬성과 반대 측은 육식 위주의 식생활이 환경 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 육식을 줄이려는 노력이 환경 문제 해결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대립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첫 번째 필수 쟁점을 올바르게 썼다.	☐
두 번째 필수 쟁점을 올바르게 썼다.	☐

03 프랑스에서는 모든 학교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채식 급식을 제공하도록 법을 제정했다는 내용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이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된 법을 제정했다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04 '반대 1'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 오염 사례를 들며 먹거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먹거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개선해야 하는 문제로 여기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② (나)에서 '찬성 1'은 환경 오염이 심각한 문제이고, 이 문제는 육식 위주의 식생활과 관련된 축산업도 큰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③ (다)에서 '반대 1'은 축산업에서 온실가스가 발생되지만 그 발생 수치가 과장된 면이 있다고 하였다.
⑤ (다)에서 '반대 1'은 축산업이 환경 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육식을 줄여도 환경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는 어려우므로 '채식의 날' 도입에 반대한다고 하였다.

05 '반대 1'은 상대방이 근거로 제시한 내용인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과장되었으며, 축산업의 직접적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보다 적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례로 제시한 내용이 주장과 연관성이 없다고 지적하지는 않았다.

| 오답풀이 | ① (다)에서 '축산업의 직접적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약 7퍼센트에 불과하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다.
② (다)에서 유엔 식량 농업 기구의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④ (라)에서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라며 상대방의 주장을 수용하고,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이라고 말하며 강조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⑤ (다)에서 환경 오염의 또 다른 원인인 현대 농업의 사례를 제시하여 육식을 줄여야 한다는 상대방의 해결 방안이 적절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다.

본책 244~245쪽

(02) 공동체를 위한 글 쓰기

❶ 쟁점 ❷ 원리 ❸ 예상 독자 ❹ 윤리 ❺ 공동체

01 • 주제: 푸름 공원에 있는 실외 체육 시설의 야간 이용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 / • 예상 독자: 해당 문제에 관심이 있는 지역 주민

02 ⑤ 03 ④ 04 ② 05 ③ 06 ② 07 ②

01 이 글의 처음과 끝부분에서 주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글의 내용으로 예상 독자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다.

02 사회적 쟁점에 대한 견해를 표현하는 글을 쓸 때는 견해에 찬성하는 사람, 견해에 반대하는 사람, 쟁점에 관심 있는 대중 등 예상 독자의 다양한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참고 자료

쓰기 윤리

'개인적 쓰기 윤리'는 글을 쓸 때에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 의견 등을 거짓으로 꾸미지 않고 진실하게 쓰는 것이다. '사회적 쓰기 윤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자료를 무단으로 베끼지 않으며, 그것을 활용할 때에는 원저자의 허락을 얻거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다.

03 사회적 쟁점에 대한 견해를 표현하는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는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을 갖추어야 한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일부러 자극적인 요소를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믿을 만한 내용인지, 주장을 적절하게 뒷받침하는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자료의 객관성을 판단하는 적절한 내용이다.
② 자료 출처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적절한 내용이다.
③ 자료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적절한 내용이다.
⑤ 자료가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판단하는 적절한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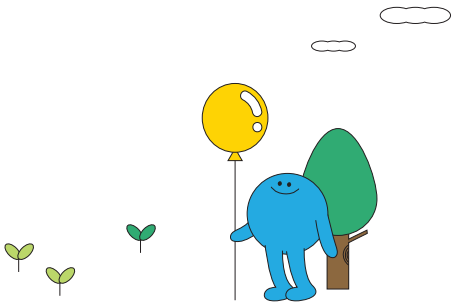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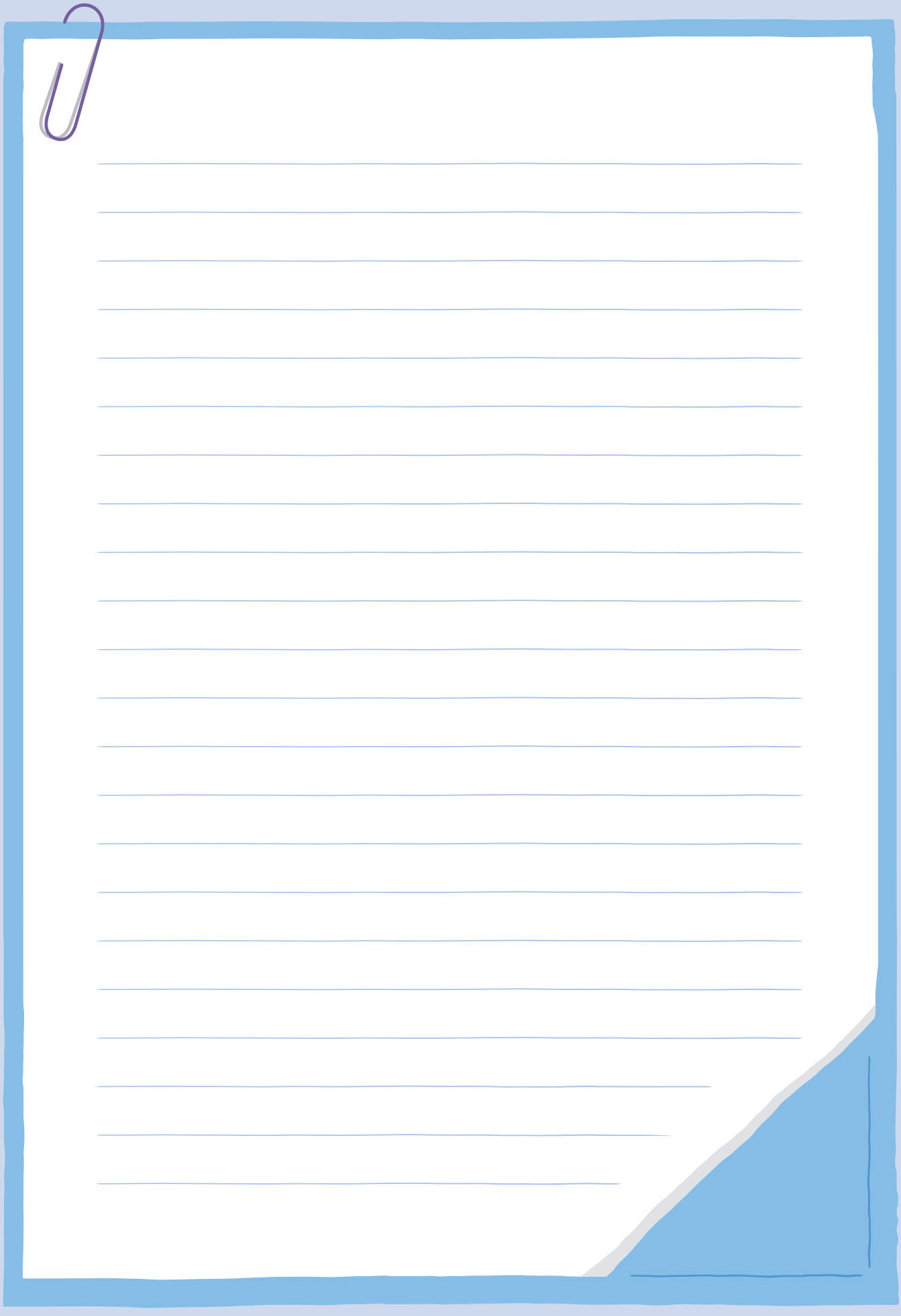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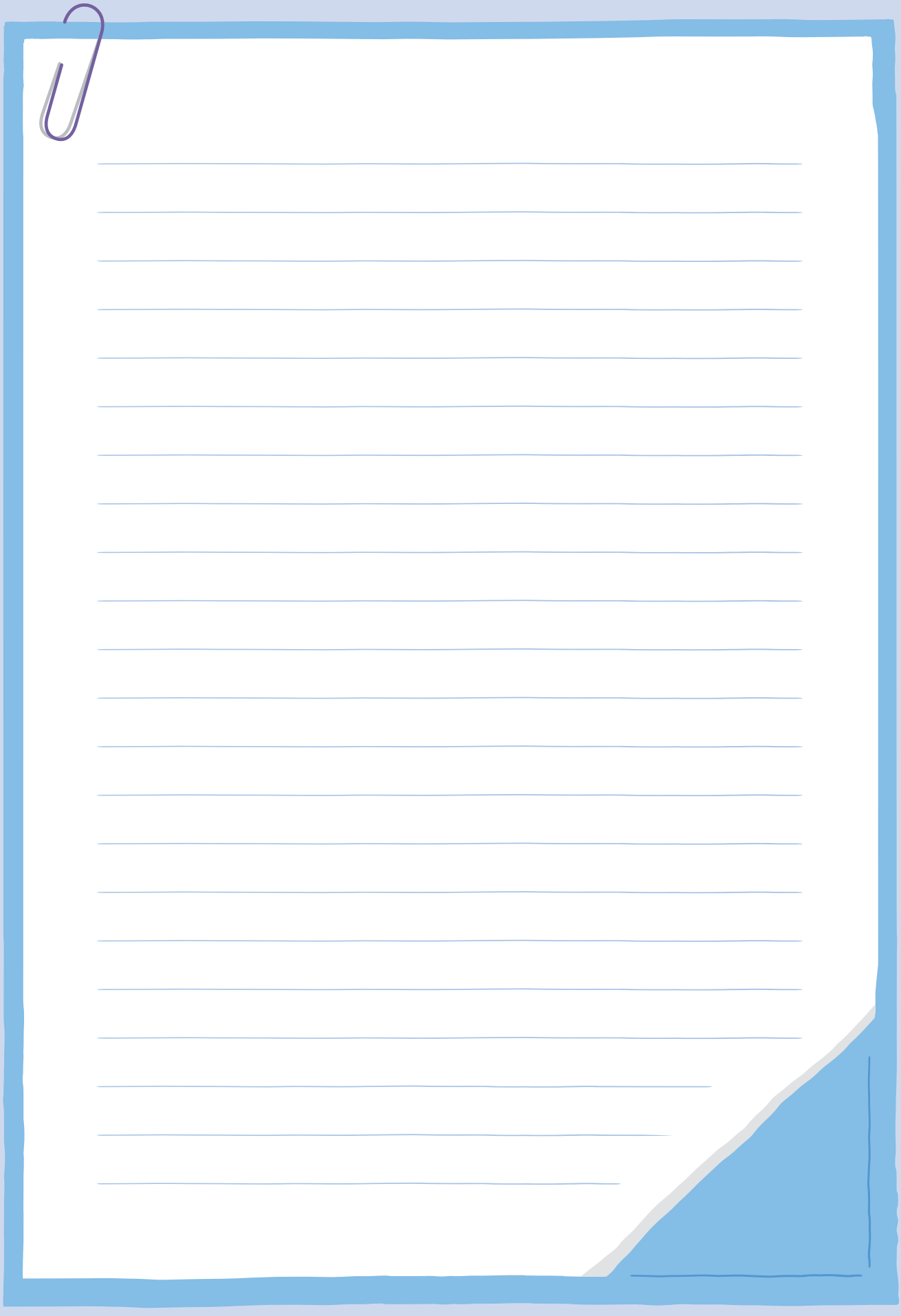
04 이 글에서는 야간에 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공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였지만 다양한 안전사고의 구체적인 사례는 제시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 ① 녹색구에는 밤늦게까지 운영하는 실내 체육 시설이 여러 개 있다고 하였다.
③ 야간에 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근처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트리고 공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늘어난다고 하였다.
④ 야간에만 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는 반론에 녹색구에는 밤늦게까지 운영하는 실내 체육 시설이 있다고 반박하였다.
⑤ 최근 푸름 공원에서 야간 실외 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면서 공원 근처 거주민들이 소음, 밝은 조명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05 <보기>의 '나'는 의사 결정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것이다.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면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해결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④ <보기>와 같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 사회적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므로 공동체의 문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② <보기>와 같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는 활동은 공동체 구성원에게 사회적 쟁점에 대한 문제 상황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⑤ <보기>와 같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사회적 쟁점에 대한 견해를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하게 되면 사회적 쟁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얻을 수 있게 된다.

06 가정에서 고양이를 입양하는 문제는 개별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를 사회적으로 다룰 만한 쟁점이라고 보기 어렵다.

07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결정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토론 활동(ㄱ), 정책 발표회(ㄴ), 견해를 담은 글 쓰기(ㄹ)는 공론화 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 ㄷ.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의견을 지닐 수 있다. 타인의 견해를 존중할 수는 있지만 이를 최대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견해를 세워야 한다.
ㅁ. 사회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쟁점이 발생한 원인을 알아볼 수는 있다.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 누구의 잘못인지 따져보는 것은 적절한 태도라고 볼 수 없다.